



#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

---

## 조사성과와 의의

#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

## — 조사성과와 의의

**총괄** 김태만  
**기획** 윤석홍·백승옥·서영남  
**진행** 김현주

**집필** 이은정·노용석·장현정·채영희·허영란·송지은·권현경·김문기·백승옥  
**III장 원고 및 편집** 김현주  
**교정 및 교열** 전경호·권현경·김재휘·김현주  
**지원** 권가인·이가은 (국립해양대학교)

**디자인** 황지영·조현진 (디자인나무)  
**제작** 디자인 나무

**발행일** 2022년 11월 30일  
**발행처** 국립해양박물관 [www.mmk.or.kr/](http://www.mmk.or.kr/) 051-309-190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45

**발간등록번호** 11-B553496-000030-01  
**ISBN** 979-11-88805-42-6(93910)

© 국립해양박물관(National Maritime Museum of Korea),2022

이 도서의 저작권은 국립해양박물관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도서의 모든 내용에 대하여 등이 없는 어떠한 형태나 의미로든 재생산하거나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All right reserved. No part of this book may be reproduced or utiliz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without permission in writing form National Maritime Museum of Korea.

#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 조사성과와 의의

Life history of the sea people  
Significance and Results of Investigation

## 발 간 사

해양수산부는 바다를 터전으로 삶을 영위해온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발굴·조사하고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국민들에게 親해양문화 확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휴먼스토리 연구용역’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연구용역의 총괄 수행기관으로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로 총 4권의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 시리즈를 발간했습니다.

2021년, 국립해양박물관은 4년간의 ‘휴먼스토리 연구용역’ 조사성과와 그 의미를 대중들과 공유하고, 기록의 보존·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학술대회 <국립해양박물관 4개년 바다 사람 조사성과와 의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학술총서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 - 조사성과와 의의』는 이번 학술대회의 내용을 심화하고 보완하여 논고 형태로 정리한 책입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기존 연구의 성과와 한계점을 짚어보았습니다. ‘휴먼스토리 연구용역’ 사업은 사라져 가는 해양생활사를 서둘러 기록해야 한다는 시급함의 당위로 시작되었지만, 사업을 이어가며 이제는 어떻게 기록·보존·활용할 것인가 논의를 끌어내는 단계까지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논의를 통한다면 앞으로의 해양생활사 연구에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학술총서를 통해 더욱더 체계적인 기준을 가지고 해양생활사를 연구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틀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중한 바다 사람들의 구술생애사 자료와 방법론에 관한 논의가 축적되기까지 지난 4년간 많은 분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먼저 귀중한 시간을 내어서 인터뷰에 응해주신 구술자분들과 현장을 누비며 바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주신 연구진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 학술대회에 참석해주시고 논고를 다시 정리해주신 영남대학교 이은정 교수님, 부경대학교 노용석 교수님, 호밀밭 장현정 대표이사님, 부경대학교 채영희 교수님, 울산대학교 허영란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해 동안 사업을 이끌어오며 이 경험을 발표로 공유해준 해양수산부 송지은 주무관과 우리 박물관 권현경 선임학예사에게도 고생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총서를 발간하기까지 애쓰신 학술연구팀 직원 여러분의 노고도 치하합니다.

국립해양박물관은 앞으로도 바다를 배경으로 한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연구하며 오션 아카이브를 축적해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의 삶과 노고가 기억되고 역사로 남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자료들을 단순히 기록물로만 남기지 않고, 전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활용하여 인류에게 바다의 의미, 지속가능한 미래의 해양을 위한 실마리를 찾아가고자 합니다.

2022년 11월  
국립해양박물관장 김 태 만

## 일러두기

1. 이 책은 2021년 국립해양박물관 학술대회「바다사람 - 조사성과의 의미」의 발표와 논의를 심화하여 학술총서로 발간한 것이다.
2. 논고의 순서는 학술대회의 진행 순서와 같다.
3. 단위의 표기는 kg, g, km, m 등으로 표기하고, 톤(ton), 마일(mile) 등의 경우 한글 표기만을 명기하였다.

# CONTENTS

—	<b>I</b> 논 고 .....	11
	01. 해양생활사 연구를 위한 ‘휴먼스토리’ 사업의 성과와 한계 .....	12
	이은정(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02. 한국 어촌의 문화변동과 어민의 적응전략 .....	26
	노용석(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03. 유사무서(有史無書), 바닷가 보통 사람들의 생애 .....	44
	장현정(도서출판 호밀밭)	
	04. 원양산업 구술기록으로 보는 원양 어장 개척사 .....	66
	채영희(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05. 바다 사람의 기억으로 엮어가는 역사 .....	82
	허영란(울산대학교 역사문화학과)	
	06.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 연구성과와 가능성 .....	92
	송지은(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07.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에 대한 아카이브 체계 구축과 그 방안 .....	104
	권현경(국립해양박물관 학술연구팀)	
—	<b>II</b> 바다사람들을 통해 본 구술채록의 지향점 .....	124
—	<b>III</b> 바다사람과 함께한 시간들 .....	149





I

---

논 고

# 해양생활사 연구를 위한 '휴먼스토리' 사업의 성과와 한계

해양분야 구술채록을 중심으로

이은정 |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 들어가며
- 구술채록 과정과 아카이브 구축
- 구술생애사의 해양생활사적 의의
- 나가며

# 해양생활사 연구를 위한 '휴먼스토리' 사업의 성과와 한계\*

## 1. 들어가며

이 글은 해양수산부 사업으로서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수행한 2018년 해양분야 휴먼스토리 연구 과제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훑어봄으로써 향후 해양생활사 연구의 방향성을 탐색하기 위해서 기획되었다. 해양이라는 거대한 스케일의 환경에 관한 논의에서는 늘 사유와 분석의 단위로서 영토, 국가가 상징되기가 쉽다. 휴먼스토리 사업은 이와 같은 익숙한 패러다임에 문제제기를 하는 방식으로 해양을 배경으로 삶의 조건을 구성해온 개인의 구체적 경험과 기억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국가 단위의 해양은 압도적인 수치, 거대한 규모로도 설명 가능하지만, 정작 그 수치와 규모를 만들어 낸 사람들은 비가시적 존재로서 머물기 마련이다. 역사의 서사 주체로서 개인의 경험과 기억에 관한 관심은 보편과 표준의 자장에서 벗어나 있는 존재들에 대한 사회적 호명에 유익하는 이유에서 증가되어왔고(이은정 2019: 510) 휴먼스토리 사업 또한 동궐에 있는 작업이었다.

해양수산부 휴먼스토리 사업은 크게 두 가지의 범주, 해양분야 종사자와 수산분야 종사자로 구분하여 구술자를 선정하고 이들의 일 경험과 삶의 맥락에 집중하여 구술채록을 진행하였다. 지금까지 해양생활사 연구는 특정한 어촌 공동체의 신앙과 의례, 생산기술, 생업활동, 세시풍속 등에 관심을 두어 왔고(박경하 2019: 9) 이것은 전근대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전환 국면에서 발생한 어촌 공동체의 문화적 수용과 타협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어촌에 정주해서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의 삶과 문화가 해양생활사 연구의 대부분을 차지해왔다고 해도

---

\* 이 글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박물관의 해양분야 휴먼스토리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와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 1』(국립해양박물관 2019)에 수록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음을 밝힌다.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인류학과 민속학 연구자가 수행한 어촌 공동체 연구의 성과가 학술적 함의를 담보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해양인문학의 학술적 영토를 확장하고 우리 사회에 환원 가능한 유의미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양생활사 연구의 시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싶다. 기존에 수행한 어업, 어촌 중심의 해양생활사 연구에서 해양을 배경으로 한 산업과 이동(모빌리티)이라는 개념을 포섭할 수 있는 해양생활사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휴먼스토리 사업의 성과와 한계에 관한 구체적 검토를 해보고자 한다. 이 글의 목표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구술채록의 과정과 최종결과물 내역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구술채록의 과제를 도출해내는 것이다. 둘째, 구술채록 과정에서 생산된 구술 자료가 담보하는 학술적 가치와 생활사적인 의의를 파악하고, 해양생활사 연구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 2. 구술채록 과정과 아카이브 구축

해양분야 휴먼스토리 사업은 이 분야 종사자 12명의 구술생애사를 채록하여 책자 형태로 발간하는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였다. 대부분의 구술채록 사업이 그렇겠지만, 구술자 선정은 사업의 성격과 방향성을 결정짓는 과정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 휴먼스토리 사업에서는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는 부분이었다.

사업 초기에 국립해양박물관에서는 해양산업(조선소, 해양플랜트, 조선소 인근 식당 운영자, 갯강이 마을 거주자 등), 해양과학(이러도해양과학기지, 극지 월동대원 등), 해운·항만(원양어업 선원 및 배우자, 항만건설·부두노동자, 항만시설 관련자, 어선(목선) 제작자, 도서지역 여객선 승무원, 최북단 항구 주민 등), 해양안전 및 영토(항로표지와 관련한 등대 관리자, 독도 주민, 해양안전과 관련한 자, 해경 출신 등), 기타(잠수사, 낚시가게 운영자, 해수욕장 상인 등)로 구술자 범주를 구분하여 섭외의 노력을 기울였다. 구술자의 최종적인 선정과 섭외는 해양수산부, 국립해양박물관, 연구진들 간의 소통과 협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연구진은 인류학, 민속학 전공자로서 연구원과 연구보조원 2인 1팀으로 조직해서 2개 팀을 운영하였다. 총 사업기간이 약 6개월로 단기간 사업이었기 때문에 구술자 섭외·선정, 구술채록 진행, 구술자료 정리, 아카이브 구축까지 상당히 긴장감 있게 진행된 측면이 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구술자의 주된 일 경험으로는 섬 등대원(해사안전/항로표지), 한국 최초의 원양어선인 지남호 어업지도관, 조선소 크레인 신호수(해양산업), 외항선 항해사(해운·항만), 연안여객선 기관사 및 섬 하숙 운영(해운·항만), 수산양식(해양과학), 갯강이 마을 수리조선소 노동자(해양산업), 갯강이 마을 식당 운영, 극지 건설노동자(해양과학), 항만노동자(해운·항만), 외항선 기관사(해운·항만), 선구점

운영이 있었다.

최종 12명의 구술자 가운데 6명의 구술자는 연구진들이 발품과 수소문을 통해서 섭외한 사례에 해당한다.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집하는 사업의 취지와 특성 상 조선소 노동자, 조선소 인근 식당과 하숙업 운영자, 선구점 운영자, 연안여객선 기관사, 항만노동자의 섭외는 간단하지 않았고, 구술채록의 과정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를 해결해가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짧은 사업기간으로 인해 연구진들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구술자의 거주 지역, 연령, 성별에 있어서 한계 또한 여실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구술자의 거주지는 부산, 목포, 거제, 통영, 평택, 김해, 경주로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는 편이었으나, 강원지역 구술자를 섭외하지는 못하였다. 최북단 항구(강원 고성) 주민들을 섭외하고자 노력했으나 짧은 사업기간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실천해내기는 무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구술자의 출생년도를 살펴보면 1920년대 1명, 1930년대 2명, 1940년대 1명, 1950년대 5명, 1960년대 3명으로 고령층을 많이 포함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유·무선 통신을 통한 첫 섭외과정에서 고령자들을 파악하는 일은 좀처럼 쉽지 않았다. 구술자의 성별 또한 남성 10명, 여성 2명으로 편향되어 있고 이것은 해양분야 종사자의 성별 편향성과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구술자의 목록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해양분야 휴먼스토리 사업 구술자 목록

연번	주된 일 경험	인적사항	출생지	거주지	이력
1	깡깡이마을 수리조선소 노동자	강애순(1938년생, 여)	부산	부산	40년 근무
2	외항선 기관사	강용기(1957년생, 남)	부산	김해	한국해양대 졸업 1990년 한진해운 입사, 26년 근무
3	섬 등대원	강용정(1944년생, 남)	완도	목포	36년 동안 섬 등대원
4	항만노동자	김대식(1964년생, 남)	평택	평택	평택항운노동조합 위원장
5	수산양식	박용주(1961년생, 남)	강화	통영	
6	선구점 운영	박철형(1967년생, 남)	경주	경주	1966년 경주 감포 개업 2대째 운영
7	조선소 크레인 신호수	이영기(1954년생, 남)	영천	거제	33년 동안 대우조선 크레인 신호수 조선소 내 자전거점 운영
8	극지 건설노동자	이영재(1957년생, 남)	부산	서울	1988년 세종과학기지 1차 월동대
9	지남호 어업지도관	이제호(1928년생, 남)	남해	서울	부산수산대 졸업 1957년 최초의 원양어선 지남호 승선
10	연안여객선 기관사 섬 하숙	장찬영(1952년생, 남)	완도	목포	대흑산도, 소흑산도 여객선 기관장 대흑산도 섬하숙
11	외항선 항해사	최정윤(1958년생, 남)	서울	서울	한국해양대 졸업 해사위험물검사원 근무
12	깡깡이마을 식당	한기선(1939년생, 여)	하동	부산	40년 이상 조선소 인근식당과 하숙 운영

구술채록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서 각 직업군에 관한 사전 조사와 학술·정책자료를 검색함으로써 질문의 수준을 담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선행되었다. 구체적인 채록은 연구원 1명과 연구보조원 1명으로 구성된 1팀이 진행하였는데, 구술자별 1회 2시간 분량의 면담을 총 2회에 걸쳐서 진행하였다. 면담이 이루어진 공간은 주로 자택, 근무지로 압축되었으나 부득이하게 카페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때는 최대한 녹음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구술채록 과정에서 영상촬영은 스마트폰, 음성녹음은 보이스레코더를 통해 동시에 기록하였고, 구술자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은 사진기록으로 목록화시키고 개요도 함께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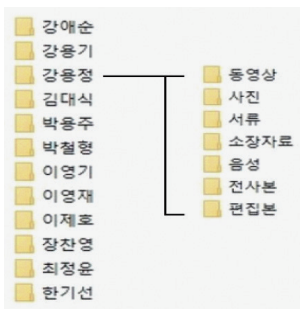
〈그림 1〉 구술자 강용정과와의 면담



〈그림 2〉 구술자 이재호와의 면담

아래 그림은 외장하드에 담긴 최종적인 사업의 결과물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3〉의 왼쪽에는 구술자 12명 자료에 관한 최상위 범주의 폴더이고, 오른쪽에는 구술채록 과정에서 획득한 자료를 형태별로 구분한 폴더에 해당한다. 자료의 형태는 동영상, 사진, 서류, 소장자료, 음성, 전사본, 편집본으로 체계화 되어 있다. 〈그림 4〉와 같이 서류 폴더 하위에는 구술자 인적사항, 구술채록 면담 보고서, 구술 및 자료 활용 동의서, 최종 구술보고서 총 4건이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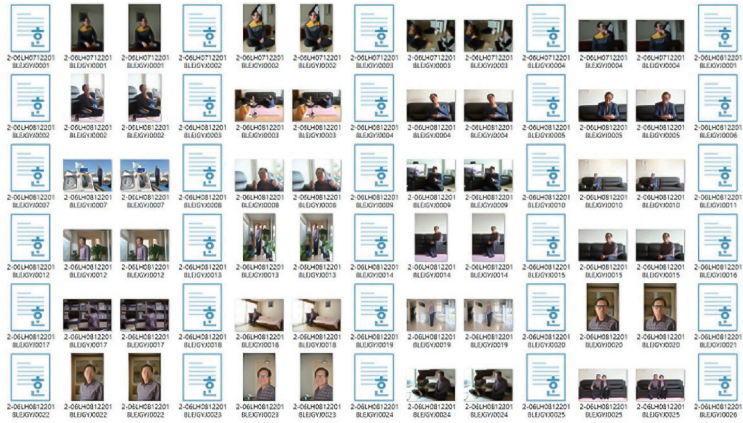
구술자 인적사항에는 주요연보, 수집자료, 면담일정, 구술참여자 항목이 있고, 구술채록 면담보



〈그림 3〉 구술자/자료형태별 폴더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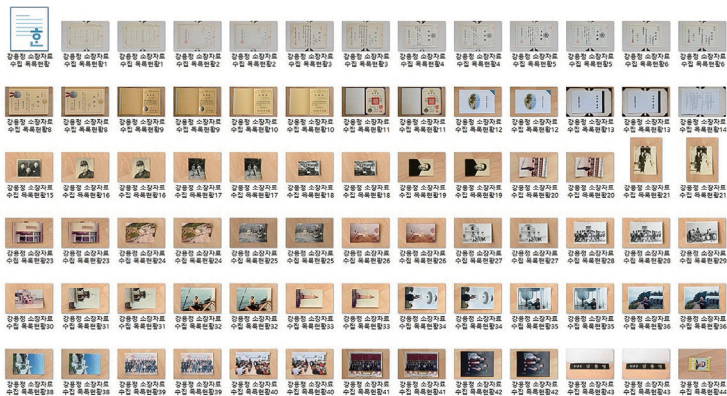
〈그림 4〉 서류 폴더 내 체계



〈그림 5〉 사진 폴더 내 체계 (메타데이터 + 사진)




고서에는 구술일, 연구자, 구술지역, 구술 일정, 구술 대상, 주요 구술 내용, 특기 사항, 향후 계획, 향후 구술지원 및 준비항목, 사용기기, 기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면담보고서는 매회 면담마다 작성하는 것이고, 구술 및 자료 활용 동의서는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제공해 주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최종 구술보고서에는 구술자, 연구자, 구술일시와 장소, 산출물(음성, 영상, 사진, 물증), 구술주제(주요어), 특기사항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이 사업결과물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현재로서는 기능할 수 없으나, 구술채록 당시에는 최대한 아카이브 구축과 디지털 활용까지 염두에 두고 사업 진행을 하였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메타데이터의 작성이라 할 수 있고, 〈그림 5〉는 사진 폴더 내의 체계를 보여주는 데, 사진 1장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의 설명이 담긴 메타데이터 1개씩을 작성해 두었다. 그리고 〈그림 6〉은 소장자료 폴더 내의 체계를 보여주는데, 소장자료 수집 목록현황과 소장자료를 촬영한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7〉은 소장자료 수집 목록 현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촬영한 소장자료에 관한 설명(자료 종류, 자료 내역, 촬영 날짜와 촬영 장소)을 기록해 두고 있다.



〈그림 6〉 소장자료 폴더 내 체계(소장자료 수집 목록현황 + 사진)

소장자료 수집 목록현황

구술자	집중점	자료 소장처	집중점 지역	
소집 자료 개요	2018년 12월 8일 연구보조원 김유신이 집중점 지역에서 소집앨범 사진, 표창장, 입원장, 우정회 회칙 등을 촬영함.			
자료 상세 목록	자료종류	자료내역	촬영날짜	촬영장소
		육포지방행정안전부로부터 기록적 8등급(야인등대 일경정리회) 수료표지와 근무용 열 발품 (1977.7.1.)	2018.12.8.	강릉점 지역
		육포지방행정안전부로부터 기록적 7등급(등대원) 표지와 근무용 열 발품 (1980.3.1. 일경정)	2018.12.8.	강릉점 지역
		육포지방행정안전부로부터 포항장 발품 (1977.12.31.)	2018.12.8.	강릉점 지역

	고종공무원교육원 중합실무자 과정 제1기 해운기술반 교착을 이수함 (1985.11.2.)	2018.12.8.	강릉점 지역
	육포시동맹형으로부터 반상회 문정위원으로 위촉 (1985.9.25.)	2018.12.8.	강릉점 지역
	소안고등공민학교 제3학년 두등상장 받음 (1984.2.5.)	2018.12.8.	강릉점 지역
	육포지방해운표지반백인수 신장으로부서 표창장 받음 (1988.12.31.)	2018.12.8.	강릉점 지역

〈그림 7〉 소장자료 수집 목록 현황

구술채록 과정에서 구술자가 소장한 자료 현황 파악도 대략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소장자료는 구술자의 성향에 따라서 자료의 양에서 차이가 꽤 났다. 당초 사업기획 때부터 소장자료에 대한 수집과 활용에 대한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했다라면 보다 양질의 자료가 확보 가능했을 것이다. 지남호 승선한 경험이 있는 이재호는 연구진과의 면담을 위해서 캐리어 하나 가득히 자료를 담아왔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트롤어업과 관련된 책자, 신문 스크랩 자료, 사진 등이었다. 거제 조선소 근무자 이영기는 대우조선 근무 당시 월급명세서 전부를 파일함에 보관하고 있었고, 극지 건설노동자 이영재도 월동경험과 관련된 귀한 사진자료를 간직하고 있었다. 사진자료와 문서에 대한 구술자의 설명은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에 소장자료 수집 목록 현황을 작성하였다. 〈표 3〉은 구술자 소장자료 수집 목록 개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일람표로 작성한 것이다.



〈표 2〉 구술자 소장자료 수집 목록 일람표

구술자 정보	형태	내역
강애순 (1938년생, 여)  강강이 수리조선소 노동자	사진	유년기, 대신국민학교 재학시절, 대평동 골목, 1965년 결혼식 사진 다수
	문서	1988년 9월 대림조선소 월급봉투
		청락조합분 퇴직금 정리 문서(1991.5.~1998.12.)
		1994년 5월 대림조선소 급여 지급명세서
		1996년 7월 대림조선소 급여 지급명세서
		1998년 5월 급여 지급명세서
		청락 추석상여금(1998.5.~8.)
		조양조선공업주식회사 2002년 6월분 급여 봉투
		2005년 4월 급여 지급명세서
	2012년 4월 급여 지급명세서	
대림조선소 퇴직금 봉투		
도구	주함마, 강강함마, 씨가레프, 작업안경과 장갑	
강용기 (1957년생, 남) 외항선 기관사	사진	유년시절, 한국해양대 실습선 한바다호 승선, 미국 포틀랜드 로즈페스티벌 농악 공연 등 다수
	물증	표창패-한진해운(2001.5.16.) 공로패-한국해기사협회(2008.5.29.)
강용정 (1944년생, 남)  섬 등대원	사진	소안고등공민학교 재학, 군복무, 결혼식, 목포 해운국, 흥도·맹골죽도·당사도, 등대 보급선, 구우회 정기총회, 항로표지 실무과정 기념 등
	문서	우등상장-소안고등공민학교(1964.2.5.)
		인사발령통지서-목포지방항만관리청 수로표지과 근무(1977.7.1.)
		표창장-목포지방해운항만청장(1977.12.31.)
		수로장-교통공무원교육원(1979.4.14.)
		임용장-목포지방해운항만청(1980.3.1.)
		수로장-교통공무원교육원 해운기술반 교육(1985.11.2.)
		위촉장-목포시 동명동 반상회 운영위원(1985.9.25)
		표창장-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1998.12.31.)
		표창장-국립수산과학원장(2003.3.7.)
		표창장-해양수산부장관(1999.12.31.)
		옥조근정훈장(2003.6.30.)
		대한민국등대 우정회 총칙(2011.4.)
	대한민국등대 우정회 회칙(2011.10.29.)	
물증	공로패(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 직원 일동), 기념패(다도 구우회), 재직기념패	
김대식 (1964년생, 남) 항만노동자	사진	평택축구단, 가족사진 등

박용주 (1961년생, 남) 수산양식	사진	뗏목식 진주양식(1981), 강원도 명주군 옥계면 연어 양식장(1986), 비진도 해양조사 (1989), 가두리 양식 시험어장(1989), 1990년대 저도 어장, 왕림수산 산천어 양식장 (1990), 블라디보스톡 어장 개발 및 시장 식량자원확보조사(1996) 등
이영기 (1954년생, 남)  조선소 크레인 신호수)	사진	인도네시아 정비공장 파견 당시, 군복무, 결혼식 등
		대우조선 월급 명세서 묶음
		근속상-대우조선공업주식회사(1989.9.26. / 1994.9.26.)
		공로상-대우중공업주식회사(1994.12.30. / 1997.5.17.)
		수료증-부경대 산업과학기술연구소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2001.9.24.)
		공로상-대우조선해양주식회사(2003.2.22.)
	PROJECT 인도상-대우조선해양주식회사(2010.3.26.)	
	물증	대우조선 김우중 회장 저서, 대우조선 관련 기사 스크랩북 다수, 대우조선 작업복 등
이영재 (1957년생, 남)  극지 건설노동자	사진	남극 전경, 남극 발전동 앞 스노우 모빌(1988), 설상차(1988), 1차 남극월동대 단체사 진, 남극기지 내부 사진, 남극기지 담수화장비, 남극기지 본관동 밑 터널작업(1988), 남극기지 생일파티 준비, 우루과이 기지, 남극 야외창고 바비큐 파티 준비, 아르헨티나 대원들과 기념, 남극 십자가 기념비, 8차 남극 월동 생일잔치, 세종기지 준공 10주년 기념(1998), 남극 편지 배달 헬리콥터 등
	문서	남극사업참여자를 위한 지침안내
		남극에서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들
		제1차 대한민국 남극과학연구단 월동조사대 보고(199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해양연구소)
		제8차 남극과학연구단 월동조사대 보고서
	물증	1차 남극월동대 견장
		8차 남극월동대 견장
		남극월동대 견장
		남극 촬영 비디오 3개(1995)
		개인소장앨범
이제호 (1928년생, 남)  지남호 어업지도관	사진	지남호 출항기념 가족사진, 지남호 승선, 수산진흥원 사무실 앞, 원양어업 진출 60주년 기념 등
	문서	어업 전문 서적 〈Introduction to Trawling〉, 〈The Larsen mid-water trawl〉, 〈Illustrated Catalogue for Danish fishing gears〉, 〈A Few Mid-Water Trawl for Herring〉, 〈"Fairfree"-Fishing Vessel and Floating Factory Development〉
		1959년 4월 레포트
		1972년 6월 28일 신문기사 스크랩
		월간 내외수산 1980년 5월호, 6월호
	고려원양어업주식회사 리플렛	

장찬영 (1952년생, 남) 연안여객선 기관사 심하숙	사진	보길도, 홍도, 흑산도 배경 사진 등
최정윤 (1958년생, 남)  외항선 항해사	사진	한국해양대, 실습선 한바다호, 미국 포틀랜드 로즈페스티벌 행진, 포틀랜드 교민 위한 탈춤 공연, 한국해양대 서울시청역 사진전시회 준비, 한국해양대 연극반 활동, 삼미해운 항해사 근무 시절 등 다수
		문서

### 3. 구술생애사의 해양생활사적 의의

구술생애사 면담을 통해 확보한 구술내용은 각 직업군마다 상당히 다르게 맥락화되었고, 당시 직업 선택의 배경과 일 경험과 관련한 수많은 에피소드들은 기대 이상으로 많은 생활사적 가치를 담보하고 있었다. 해양분야 종사자들의 경험과 기억을 토대로 하는 연구가 많지 않은 조건에서 황경숙·채영희(2016)와 안미정·이수열(2019)의 연구는 해양생활사 연구의 외연을 확장시킨 측면이 있다고 평가된다. 황경숙·채영희(2016)의 연구는 전통적 공간으로서 외양(外洋)이 원양(遠洋)으로 재편되는 과정에 사회적으로 개입한 원양어업 종사자들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원양이라는 공간이 가지는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 또한 해양인문학의 지평을 확대하고자 목표하였다. 안미정·이수열(2019)의 연구는 원양 항해를 경험한 항해사와 기관사와의 인터뷰 자료를 토대로 글로벌 행위자로서 선원을 조망하였다. 산업적 양적 성장 이면에 가려진 존재로서 선원을 상정하고, 이들의 경험을 통해서 국제 해운업 종사자로서 글로벌 교역의 화물 운송자 역할에 주목하였다. 선상 노동자 뿐만 아니라 이문화 접촉자로서의 글로벌 감각에 관한 다양한 논의까지 이끌어냄으로써 해양생활사 연구를 진일보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최근 들어 해양생활사 연구는 기존의 어촌 공동체와 어민 연구를 넘어서 산업사회 이후에 탄생한 직업 종사자의 경험과 기억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휴먼스토리 사업은 이러한 가능성을 탐색해 보는 과정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지남호 어업지도관이었던 이제호의 구술에서는 북양 어업 개척사, 국민 간식 ‘참치’라는 명명 방식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바다는 아무나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구술은 예측불가능한 바다를 목숨 걸고 상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치밀한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미의 지혜가 담겨 있었다. 원양어업의 역사를 쓰기 위해 시험선 도입해 오는 순간부터 첫 원양어선 지남호의 출항, 지구상 바다를 면하고 있는 도처에 원양어업으로 인해

삶의 귀착지가 바뀐 사람들, 원양어선 선원들의 현신, 먼저 떠나간 모든 바다 사람들에 대한 깊은 애도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국립해양박물관 2019: 164).

항해사 출신 최정운은 당대 엘리트로서 한국해양대 선택과정, 한국해양대 생활의 특수성, 외항선 선원으로서의 삶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첫 봉급으로 구매한 세상과의 소통수단으로서 전화기, 선상 생활의 긴장, 육상근무로의 전환 배경 등에 대한 구술을 해주었다. 항해사로서의 특수한 직업을 경험하면서 세계 곳곳을 누빈 기억이 선명하지만, 육상근무로 전환 이후에도 한번 씩 맡게 되는 바다 냄새는 늘 그때의 기억을 소환하는 통로가 되곤 하였다(국립해양박물관 2019: 198). 마지막으로, 휴먼스토리 사업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섬마을 등대원 강용정의 삶의 맥락과 생활사적 의의를 탐색해보는 것으로 구술의 의의를 갈음하고자 한다.

## ■ 섬마을 등대원, 고독이라는 무게

바다의 빛, 갈매기의 벗으로 평생을 버티어 낸 등대원을 호명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낭만적인 서사를 간직한 등대지기, 공적 업무 수행자로서 등대원, 해양에서의 국제적 공공기구 운영자로서 항로표지원 등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명명되어 왔다(국립해양박물관 2019: 46). 이러한 다양한 명명 방식은 등대원이라는 직업의 사회적 위상이 재구성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전남 완도군 소안면 당사리 등대섬에서 4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난 구술자 강용정은 1944년 출생으로 목포 유학을 떠난 형님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부친의 어장 일을 거들면서 유년을 보냈다. 등대원 시험에 합격한 후 고시 공부를 위해서 칠발도 근무를 자원했으나, 등대원 근무 중에 축전지 사고로 한쪽 시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고시 꿈은 좌절되었고 어룡도, 하조도, 맹골죽도, 당사도 섬마을 등대원으로서 묵묵히 책임을 다했다. 등대장이 된 이후에도 당사도 등대 근무 시절 직원과 함께 유류 운반을 위한 고압펌프 기계 작동 점검 중에 사고를 당해 검지 한마디를 상실한 경험이 있다. 퇴임 전 가사도 근무 당시에는 전도사로 목회 활동도 했고, 섬마을 등대원 36년의 삶을 마무리 짓게 되었다. 간단하게 연보를 정리하자면 구술자 강용정은 1968년 목포지방해운국 칠발도 등대원으로 부임, 1977년 무인등대 임검정리원, 1988년 소흑산도 등대장, 1998년 목포에서 현직 소장 시절 다도 구우회 창립, 2003년 목포지방 해양수산청 가사도 항로표지 관리소장으로 정년퇴임, 그리고 2018년 한국등대협회 창립 초대 회장을 역임하기에 이른다.<sup>1</sup>

비약적인 산업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수많은 등대는 무인화 과정에 있다. 지금으로서 등대원은 매우 특수한 직업군에 속하게 되었으며 이내 역사의 자취를 따라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 현

1 국립해양박물관,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 1』, 2019, p.45-63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실이다. 등대원들은 바다를 이용하는 수많은 선박들의 항로에 관한 이정표와 길라잡이 역할을 함으로써 해양산업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해 왔지만, 이들의 노고는 어디에서도 가시화되지 못했다. 특히, 동일한 노동 조건의 등대원으로서 사회적 위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해안에 위치한 육상의 등대원과 남서해 섬에 위치한 등대원의 노동 경험은 매우 상이하게 맥락화된다는 지점은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강용정의 삶의 이야기에서 생활사적 의미를 확인시켜줄 수 있는 구술도 상당히 흥미롭게 다가온다. 당사도 출신인 그는 어린 시절 전기와 수도 시설을 이용한 적이 없다가 국민학교 졸업 후 처음으로 목포에 도착했을 때 번쩍번쩍 거리는 전깃불을 목격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완도에서는 당시 잔 단위로만 술이 판매되던 시절이 있었고, 강용정의 아버지는 완도에서 생산된 해조류나 어류를 목포에 가서 판매를 하셨다고 한다. 어느 여름에 아버지가 하얀 ‘난닝구’를 입고 오시는 모습이 “눈부셔버리더라구요”라고 하는 구술에서 당사도의 어둠과 목포의 빛은 상당히 대조적으로 묘사되고 있었다. 어찌면 강용정의 삶은 어린 시절부터 퇴임 때까지 평생 빛을 쫓아서 살았던 삶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섬에서의 외롭고 고독한 생활을 위안해 주던 것은 라디오와 구독하는 『사상계』 잡지였다고 한다. 구독하는 잡지였지만 이마저도 보급선의 상황에 따라 무작정 늦게 도착하더라도 마냥 반갑기만 한 그런 존재였다고 한다. 이 두 가지는 섬마을 등대원 강용정을 섬 밖 세상과 연결시켜주는 정말 소중한 매개체였다. 라디오를 통해 세상의 소식을 접하면서 스스로 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사상계』 잡지를 통해서 당대 지식인들의 양심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섬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지만 육고기를 섭취하기 어려워 목포에 가면 돼지 비계를 사와서 된장에 묻어두고 내내 먹었던 일, 월급이 든 봉투를 받기 위해 목포 항만청까지 나올 때 식량을 사서 다시 돌아간 일, 자녀들이 목포에 있었던 표지관리소 자녀합숙소에 묵었던 일, 축전지 사고로 눈을 다쳤을 때에도 즉각적인 의료 처치를 못하고 지나가던 배를 무작정 기다려 목포로 나온 일 등 강용정의 삶의 궤적이 말해 주는 구술사적 가치는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 4. 나가며

이 글에서는 구술채록의 과정과 최종결과물 내역을 검토함으로써 구술채록 사업의 향후 과제를 도출해내고자 하였다. 해양분야 휴먼스토리 사업은 구술채록 사업에서 전개하는 일반적인 매뉴얼을 준수하면서 진행하였다. 거대한 해양이라는 환경과 국가 단위의 압도적 수치의 그늘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집하기 위해서 구술자 선정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었다. 총 12명의 구술자를 해양수산부, 국립해양박물관, 연구진들이 협업해서 선정하였는데, 섬 등대원, 어

업지도관, 조선소 노동자, 외항선 항해사와 기관사, 연안여객선 기관사, 깡깡이 마을 수리조선소 노동자, 깡깡이 마을 식당운영자, 극지 건설노동자, 항만노동자, 선구점 운영자, 수산양식 관련 해양 과학 종사자들이었다.

단기간에 수행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구술자 섭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었으니 결과적으로 강원지역을 포함하지 못했고, 고연령자, 여성 구술자 섭외가 까다로웠던 점은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국립해양박물관에서의 추후 활용을 염두에 두고 최대한 아카이브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료를 정리했지만, 소장 자료를 보다 엄밀한 기준에 근거해서 목록화시키지 못한 점 또한 아쉽게 다가온다. 이 사업을 통해서 한 권의 단행본이 출판되었지만, 이미 구축된 아카이브 자료들은 여전히 활용잠재력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목표는 구술채록 사업의 결과가 해양생활사 연구의 지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탐색이었다. 12명의 구술자들로부터 들은 내용은 각 직업군을 경험한 사람만이 기억하고 복기해낼 수 있는 것이어서 어디에서도 쉽게 들을 수 없는 사회적·문화적 특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술자들의 경험은 대부분 산업사회에서 탄생한 직업군에 종사함으로써 획득된 것이었고 이들에게 해양은 어떤 물리적·문화적 공간이었는데가를 설명하는 일은 해양인문학 연구를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라 생각한다.

보다 한정해서 설명하자면, 지금까지 어촌 공동체와 어민, 어업에 집중되어 있는 해양생활사 연구도 충분히 의미 있지만, 산업화 이후의 해양 분야 일 경험 또한 이미 기록의 가치를 가질 만큼 시간의 깊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구술채록 사업과 같은 연구기획을 통해서 한국의 산업사회를 관통한 바다 사람들의 경험과 기억을 직업별로 수집해 보는 것은 해양생활사 연구의 새로운 영토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논문

- 박경하, 「21세기 해양 생활사 연구 동향과 방향」, 『역사민속학』57, 한국역사민속학회, 2019, pp.7-23.
- 안미정·이수열, 「한국 선원의 원양 항해와 글로벌 네트워크의 형성」, 『해양도시문화교섭학』21,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19, pp.243-282.
- 이은정, 「대구시 중구 생애사열전의 도시생활사적 의미」, 『인문사회21』10(1), 인문사회 21, 2019, pp.509-522.
- 황경숙·채영희, 「원양어업 종사자의 구술 자료에 나타난 해양 인식」, 『동북아문화연구』49,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6, pp.65-78.

### 보고서

- 해양수산부·국립해양박물관,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 1』, 국립해양박물관, 2019.

# 한국 어촌의 문화변동과 어민의 적응전략

노용석 |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 서론
- 선행연구 분석과 연구의 과정
- 한국 어촌의 문화변동 사례
- 어민과 어촌의 적응전략
- 소결



# 한국 어촌의 문화변동과 어민의 적응전략\*

## 1. 서론

본 연구는 해양수산 분야에 종사하는 전국의 어민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구술생활사를 수집·분석한 것으로서, 구술생활사를 통해 현재 한국 어촌이 처한 다양한 문제와 문화변동 사안을 분석하고, 한국 어민들이 이러한 변화과정에 대처하기 위해 어떠한 적응전략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서술한 글이다.

전 세계적으로 산업화가 이어지면서 자연을 대상으로 생산이 이루어지는 농수산업 시스템은 상당한 변화를 맞이한 것이 사실이다.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인류는 그들의 문명이 발생하고 난 이후 가장 역동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의 어촌 역시 비슷한 과도기를 겪고 있으며, 어민과 어촌 공동체의 사고와 생활방식이 불과 30여 년 전과 확연하게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기후변화는 필연적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유발하고 있고, 생태계의 변화는 어류나 식물의 종류를 변화시켜, 수백 년 간 이어져오던 어민의 생계 방식, 즉 어업 문화의 변동을 야기하고 있다.

---

\* 이 글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박물관의 해양분야 휴먼스토리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와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 2』(국립해양박물관 2019)에 수록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음을 밝힌다.

어촌은 바다를 매개로 만들어진 공동체이며, 산업기술화가 진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보다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문화 형태를 유지해오던 곳이다. 인간은 농업에서의 불확실성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었지만, 현재까지 바다와 연관된 각종 환경들은 인간에게 많은 제약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수적 문화라 할지라도, 생태계 변화에 기인한 어종의 변화 등은 어민들에게 새로운 어촌문화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어촌은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그 인식의 담지자인 어민들은 변화를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을까? 이것이 본 연구가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이며, 이러한 배경 하에서 어민과 어촌공동체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21세기 들어와 많은 학문분야에서 구술사와 생활사 연구의 범주가 확대되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많은 연구적 관점이 '아래로부터의 역사'와 같은 패러다임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역사와 문화의 해석에 있어서 민중의 담론에 입각한 해석주의적 시각이 확장되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논의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한국 어촌의 문화변동과 어민의 적응전략에 대해 행위주체자의 인식 분석을 중심으로 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물론 본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구술증언의 텍스트적 의미를 분석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민의 관점에서 현재의 위기와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던 것은 분명하다.

## 2. 선행연구 분석과 연구의 과정

### 1) 구술생활사를 통한 어민의 인지 연구

구술생활사를 수집하는 목적은 한 개인이 가진 생애이야기 또는 개인의 경험이 사회문화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것을 후대에 남기고자 하는데 있다(윤택림 2019: 177). 개인 생활사는 단순히 개인에 관한 정보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구술자를 통해 사회문화적 맥락을 알기 위한 방법이며, 또한 그 맥락에서 어떠한 인식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민중의 기억과 생활사를 기록하고 정리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작업임에 틀림없다. 특히 특정 범주와 연구 영역을 확정할 수 없는 민중의 일상사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에 대한 아카이브를 한다는 것은 마치 무계획적인 우리의 일상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일 수 있다.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민중들은 기록문화에서 제외되었거나 스스로 자신들의 역사를 기록할 수 없는 상태였다. 다만 어네스트 겔너(2009)와 같은 많은 민족주의 연구자들이 지적하다시피, 산업자본주의가 도래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민중들이 문자와 교육에 기반을 둔 커뮤니케이션 체계에 접근하면서

‘민족성’을 공유하기도 했지만, 이것은 또 다른 ‘종속’의 과정이었지 자신들만의 역사와 문화를 정의할 수 있는 시대의 시작은 아니었다. 문자와 기록의 보급은 일반화 되었으나, 이것을 이용해 자신들의 역사와 생활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어민의 생활사를 기록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현재까지 축적된 연구 결과물이 많은 것도 아니다. 하지만 구술생활사 연구에 포함될 수 있는 어민들의 생활범주는 상당히 많은 편이다. 먼저 어민들이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환경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의 범주부터 시작해서 공동체의 구성과 운영, 이러한 지식에 근거하여 생산되는 각종 문화적 의례 등이 모두 구술생활사 연구를 통해 조명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흥미로운 연구 분야는 아마도 어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자연환경에 대한 분석이 아닐까 한다. 이 연구 분야는 어민과 어촌의 문화적 특성을 가장 강렬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구술생활사의 접근 없이는 연구와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이다. 대표적인 연구로서, 왕한석(2018)은 바닷물의 변화에 대한 민간지식인 ‘물때체계’를 중심으로 어민들의 토착 지식 체계 특징 구조를 분석하고 있으며, 강성복(2015) 역시 유사한 주제영역에서 충남 보령시 외연도 어민들의 전통어로지식을 물때의 인지와 어로활동 등을 통해 파악하고 있다. 어민들의 인지체계에 대한 연구들은 구술사를 통해 자신들의 자연환경을 어떠한 문화적 코드로 전환시켜 인식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영역이 될 수 있지만, 거시적 측면에서의 사회문화적 변동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숙정(2017)의 연구는 상당히 흥미로운 것이 사실이다. 조숙정은 서해에 위치한 곰소만 연안 어촌에서 조기잡이가 쇠퇴하는 등의 어로활동 변화가 발생한 이후 어민들의 적응전략이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하였는가에 대해 민족지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외에도 구술사를 통한 어민의 연구들에서는 어민 스스로 기록하지 못했던 인식과 지식을 어떻게 학문적인 영역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다양한 영역들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구술생활사를 통한 어촌과 어민의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환경과 인간의 접점인 문화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급격한 문화변동에 따른 사회적 변화의 요구에 대해서는 인지체계의 분석과 같은 주제보다 좀 더 확장된 영역이 필요할 수도 있다.

## 2) 어촌의 사회문화변동과 향후 방향에 관한 연구

현재 어촌과 연관된 상당수의 연구들은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어촌의 문화변동과 이에 대한 대안적 사회모델 구성에 상당히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위에서 살펴본 어민들의 인식체계 연구와는 달리, 현재 한국 어촌에 직면한 변동과 위기를 어떠한 방식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

는가에 대한 보다 실용적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이창현과 신호식, 임명환(2017)의 연구는 한국 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실질적 개선방안 가운데 어떠한 요소들이 중요한 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특히 이 논의에서는 어촌의 경제를 활성화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중 가장 대표적인 방안들은 한국 어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관광지’화 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강철승(2013)은 한국어촌의 해양관광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들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고, 손재영·김진동(2018)과 같은 연구자들 역시 지역별로 한국의 어촌체험마을 지정 현황을 ‘바다·해양생물’, ‘어구 및 어법’, ‘레포츠 장비’, ‘생활문화’, ‘주변환경’, ‘역사문화’ 등의 범주로 분류한 후, 한국의 어촌지역들이 각기 어떠한 자원들을 이용하여 어촌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신동주(2011)는 동해안 장호어촌체험마을을 방문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어촌체험마을을 방문한 동기 등을 조사하여 어촌관광의 개발과 운영에 있어서의 발전 방향을 연구하였고, 김경수(2007)는 부산 기장을 관광과 지역산업이 혼재한 복합형 어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 등에 주목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연구들이 한국 어촌의 문화변동에 기인하여 보다 나은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다만 많은 분석들이 사업과 정책의 윤곽을 거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각 지역에 대한 심층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는 한계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거시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별 지역에 대한 미시적 조사나 민족지적 연구를 수행한 연구도 있다. 박혜영(2016)은 부산 ‘기장미역’의 역사적 근원과 전통을 분석하면서, 21세기를 넘어 오면서 점차적으로 전통적 수공업에 의존하던 기장미역이 점차적으로 양식업으로 되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또 다른 연구의 경향으로는 현대사회의 거대한 사회문화적 변동으로 야기된 ‘어촌의 위기’를 어떠한 방향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존재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것들이다. 함한희와 강경표(2007)는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어촌의 사회문화적 변동에 있어서 어민과 정부, 환경운동가 등 각기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담론과 다른 해법들을 소개하고 있고, 특히 함한희(2004)는 젠더적 측면에서 어촌의 여성들이 문화변동에 있어서 수행하고 있는 특색 있는 역할들을 다루고 있다. 김준(2007) 역시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말하면서, 이러한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체계적인 생활실태조사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위에서 살펴본 민중생활사적 의미의 분석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구술자들의 인지과정 분석보다는 사회문화변동에 대한 인식과 이를 극복해나가는 방향에 대해 좀 더 많은 분석을 할에 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전체 구술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현 상황의 문제점과 향후 방향을 다소 정책적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함이었다.

### 3) 본 연구의 과정

본 연구는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평범한 어민들의 생활사를 발굴하고 연구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sup>1</sup> 사실 해양과 관련한 상당한 유적 및 문화유산이 존재하지만, 정작 그곳에서 생을 살아가고 있는 어민들의 생활사를 보호해야 할 문화유산으로 생각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뒤늦은 시작으로 인해, 이 연구는 좀 더 중요성을 가질 수 있다.

연구의 시작은 연안어업 분야 종사자 12명을 선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연구진은 최대한 광범위한 한국 어촌의 실상과 다양한 어민의 생활사를 수집하기 위해 연구대상자의 출신 지역과 주요 어업 및 어종을 중복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다.<sup>2</sup> 구술대상자 선정이 완료된 이후인 2019년 6월부터, 연구진은 12명의 어민들을 11월까지 인터뷰하였는데, 1회 인터뷰에서는 최소 4시간 이상의 대화를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인터뷰 당시 주로 질문한 내용은 연구범주에 따른 주요 생애사와 일상 범주에 관한 것들이었다. 또한 인터뷰 시에는 구술자의 모든 증언을 녹음하였고, 동시에 캠코더 및 사진촬영을 함께 실시하였다.<sup>3</sup> 조사가 끝난 인터뷰 자료는 모두 전문 인력에 의해 전사되었고, 이를 토대로 각 구술대상자별 생애사 요약본 텍스트를 완성하였다(국립해양박물관 2019 참조).<sup>4</sup> 또한 전사가 끝난 녹음파일과 사진파일, 동영상파일 등은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되어 향후 아카이브 구축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 3. 한국 어촌의 문화변동 사례

### 1) 구술대상자와 인터뷰 개요

앞선 장에서 간략히 소개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구술대상자는 한국의 동·남·서해안에서 혼

---

1 본 연구는 “연안어업 휴먼스토리 연구용역”이라는 이름으로 해양수산부의 프로젝트를 국립해양박물관이 수행하면서 실시되었고, 본 논문의 연구진들은 연구기간 동안 국립해양박물관의 연구진에 포함되어 활동하였다.

2 12명의 구술대상자 중 7명은 해양수산부의 추천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 외 5명은 연구진이 거주지역 및 어업분야, 어종 등을 고려하여 자체 선정하였다.

3 연구진은 구술인터뷰를 실시하기 전 인터뷰 대상자들과 면담허가 및 구술자료 활용동의서를 협의하였다.

4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 2』(국립해양박물관 2019)의 내용은 구술대상자별 요약본에 해당한다.

히 볼 수 있는 연안 어민들로서, 이들의 개략적인 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구술대상자 기본정보

이름	거주지역	주요어업	주요어종	보직
강도건	제주	채낚기 <sup>5</sup>	갈치, 오징어	-
강부선	제주	나잠어업	보말, 소라	해녀단체 회장
강성기	전북김제	-	바지락, 백합	
김우경	인천	어업경영	꽃게, 선박	인천수산인협회장
김진수	경북영덕	정치망, 양식	김, 멍게	어촌계장, 경로회장
김찬식	울산	통발	장어, 문어	제전마을박물관장
박상현	부산기장	유자망	멸치	유자망협회 회장
손홍주	전남함평	갯벌, 숙박업	낙지	마을이장
임선구	전북김제	내수면양식	메기, 가물치	어촌계장
장재수	강원속초	유자망	잡어	청호동 어촌계장
한승남	전남완도	양식	전복	완도군전복협회부회장
홍운기	충남서천	연안자망업	꽃게, 대하	장항소형선박발전협의회회장

위 구술대상자들의 대부분은 거주 지역에서 어업으로 생을 이어가고 있으며, 연령으로 볼 때 대략 50~60대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고향에서 성장해 온 생애사와 생활사를 구술하면서 다양한 어촌 및 어업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상황과 입장을 언급하였다.

일반적으로 인터뷰에서 행해진 질문의 유형은 두 가지로서, 하나는 생애사(유년기-청년기-중·장년기-노년기) 범주이고, 다른 하나는 일상범주(주변 환경의 인식, 노동, 놀이, 공동체, 종교, 교육, 어업제도, 교류, 여성과 아동, 국가)에 관한 것이었다. 생애사 범주에 관한 질문은 구술대상자의 생애사를 기록하면서 특정 지역에서의 어촌 문화와 공동체 생활양식 등을 재구성하기 위함이다. 이에 반해 일상범주에 관한 질문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이 구술자의 사고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일상범주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도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바 있는 ‘문화와 인지체계’ 등에 관한 연구 분석도 가능하지만, 무엇보다 구술자와 공동체가 어떤 위기와 변동에 처해 있는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각 구술대상자들의 증언은 상이한 바다환경과 문화를 가지고 있

5 채낚기는 집어등을 이용한 어업으로 전동 및 조명의 발달과 어선의 동력화와 함께 본격화되었으며, 주로 잡는 어종으로는 오징어, 복어, 갈치 등이 있다.

있기에 지역적으로 특수한 경험들을 언급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현재 한국 어촌이 처한 문화변동과 관련해서는 공통된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다. 그 주요 항목들은 다음 절에서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다.

## 2) 어촌의 문화변동 사례

### ①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구술자들의 증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변화를 들 수 있다. 2019년 한국의 어촌은 불과 30여 년 전과 비교해보더라도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후변화이며<sup>6</sup>, 이로 말미암아 많은 지역에서 대표적인 어종이 바뀌게 되었다. 이렇듯 특정 지역의 대표 어종 변화는 결국 생계를 잇기 위해 구성해 놓았던 해당지역의 문화를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결과를 낳게 한다. 오징어가 더 이상 잡히지 않는 곳의 오징어잡이 문화는 '두뇌 속에 내장된 기억'일 뿐이며, 더 이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문화가 될 수는 없다.

부산기장의 경우 미역과 갈치, 멸치가 대표적인 특산물인데, 현재 갈치는 수온 등의 변화로 인해 거의 잡히지 않고 멸치 역시 수온과 폐·오수로 인해 연안을 벗어나 먼 바다로 나가야 멸치를 잡을 수 있다. 예전에는 울산항 앞 장수바위에서도 멸치가 많이 잡혔으나, 현재는 멸치가 전혀 잡히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울산에 공단지역이 들어섰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박상현 증언). 또한 강원도 속초의 경우에는 과거 주요 어종이 명태와 오징어였다. 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인해 강원도 일대에서 명태는 더 이상 잡히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또한 간혹 명태가 잡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예전에 비해 상당히 말랐다고 한다. 현재 강원도 일대 바다의 수온은 전반적으로 상승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과거 제주도 인근에서 잡히던 고기들이 동해에서 포획되고 있다. 강원도 속초에서 오징어는 아직까지 잡히고 있지만, 약 20여 년 전 100여 척에 달하던 오징어 배는 현재 20척 미만의 규모로 축소되었다(장재수 증언). 이외에도 많은 지역들은 특정 어종의 큰 변화가 아니라 할지라도 대부분 상당한 생태계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어업 기초생산량과 어족자원 프로세스가 변화하거나 질병 등이 확산되어 수산업계의 사회경제적 변동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박성쾌 외 2010: 394-396). 본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구술자들 역시 현재 어촌의 체계가 10년 후까지 이어진다고 보지 않고

---

6 한국의 경우, 1968~2005년 사이에 대기는 약 1.3℃, 바다표층은 약 1℃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한반도 기온 변화는 IPCC(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패널)에서 지난 50년 동안 보고한 세계 평균 온난화 속도보다 약 2.6배 정도 빠른 것이며, 이것은 해양생물의 서식지를 변화시키고, 연쇄적으로 어업자원 분포의 변화를 초래한다(박성쾌 외 2010: 389).

있었으며, 생태환경으로 인한 변동이 상당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다. 구술자들은 변화를 준비하기 위해 정부의 다양한 시책 및 새로운 정책이 필요함을 역설하였고, 국가적 시책 이외에도 어촌공동체 내부에서의 변화를 준비하기 위한 독자적 움직임이 필요함을 말하였다. 변화를 맞이하기 위한 어촌공동체의 독자적 움직임에 대해서는 4장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다.

## ② 노동력의 변화

박상현은 부산 기장에서 멸치를 잡기 위해 베트남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물론 그의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어업을 하겠다고 결심했지만, 그와 함께 바다로 나아가 조업을 하는 것은 외국인 노동자이다. 제주도의 강도건 역시 연안 어선으로 조업을 하고 있는데, 채낚기를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다. 강원도 속초에서 오징어잡이와 유자망을 하고 있는 장재수도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조업하고 있다. 장재수의 외국인 노동자는 베트남인으로서, 그는 몇 년 전 베트남에 관광을 갔을 당시 베트남 노동자의 본가(다낭)까지 가서 부모님께 자식의 안부를 전해주고 오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 직원은 2년 1개월 동안 일을 하다, 인천에서 좀 더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떠나 버렸다. 속초항에는 상당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는데, 홍계를 잡는 쪽에는 중국인들이 많고, 유자망을 하는 곳에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지에서 와 있다. 전남 완도에서 전복 양식업을 하고 있는 한승남 역시 양식장의 많은 일과 관리 등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많은 구술자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었고, 이들의 노동력이 없다면 한국 수산의 미래는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2016년 한국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 선박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은 총 24,624명으로 전체 선원의 42%를 차지하고 있고, 이것은 2005년에 비해 3배, 1992년에 비해 120배 증가한 수치이다(노호래 2017, 86-87).<sup>7</sup> 현재 어업주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상당히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지불비용에는 한국에 들어오기 전 받았던 교육비와 최저임금, 의료보험비, 숙박비, 퇴직금, 귀국장려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만약 이러한 것들을 챙겨주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sup>8</sup> 현재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자신들만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고, 이미 취업 전 노동법과 같은 것을 교육받고 오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저임금으로 '수탈'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강도건 증언).

7 공식통계에 의하면, 1992년 한국의 외국인 선원은 192명이었다(해양한국 2010: 9 ;노호래 2017 재 인용).

8 임금과 관련하여 한국인 선원과 이주노동자 선원 사이에는 분명 차이가 있다. 한국인 원양어선원의 최저임금은 「선원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의 고시로 규정되지만, 이주 노동자 선원의 임금은 「선원법」과 상관없이 노사합의에 의해 책정되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2012년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노동자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연근해 선원 이주노동자 인권 개선을 위한 권고'(노호래 2017: 96)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어업 노동력 문제의 발생은 결국 한국의 청년들 가운데 어업을 자신의 미래로 선택하는 경우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구술자 중 한승남과 박상현 등 일부의 경우, 후속세대가 어업을 승계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청년층은 어업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추세는 어촌의 전통적 생활양식이 '다문화 구조'로 바뀌는 계기로 작동할 것이며, 아울러 어촌 공동체의 정체성 혹은 존재 자체를 불확실하게 만들 가능성이 많다.

### ③ 연안어업: 남획과 지속가능한 어업의 어려움

한국 어촌의 어업은 일반적으로 1911년 일제강점기 제정되었던 '어업령'을 시작으로 '전용어업', '어촌계에 의한 공동어업' 등으로 변화된 마을 공동어업 형태와 개인어업이 혼용되어 있다(최치훈 2019; 김준 2011; 김대영 2017). 또한 어장의 횡단적 경계와 외연적 경계를 중심으로 근해어업과 연안어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근해어업은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제1항에 근거하여 대형기선저인망, 대형선망, 잠수기 등의 조업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연안어업에서는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sup>9</sup> 본 연구의 구술자들은 한국 연안어업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 문제점은 어족자원의 보호 등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어업'과 연관되어 있다.

가장 중심적인 문제점은 연안에서 행해지는 일부 선박들의 '씩쓸이 조업' 형태에 있다. 예를 들어 충남 서천의 흥운기는 근래 꽃게의 수확이 10년 전 보다 약 30%가 줄어들었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인공적으로 방성한 치어까지 '씩쓸이' 해버리는 일부 어선들의 조업 방식 때문이다. '씩쓸이'의 방식은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일부 유자망 배들이 협력해서 15마일이나 되는 그물을 4~5개 쳐놓는다거나(강도건 증언), 혹은 쌍끌이 어선과 채낚이 배가 공조하여 일대의 모든 물고기를 잡아버리거나(장재수 증언), 아니면 20톤 저인망 배들이 수심부터 물고기를 모두 쓸어버리는(김우경 증언) 형태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씩쓸이' 어업은 연안어업 어종개체수를 줄어들게 만들고, 소형 어선들이 더 이상 연안에서 조업을 할 수 없게 만들므로써, 결국 한국 어촌공동체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부수적으로 위의 조업형태들은 연안에 쳐 놓은 그물과 자망들을 훼손시키기도 하고, 바다에 무단으로 폐기물을 방류<sup>10</sup> 하여 환경을 훼손시키는 경우도 유발하고 있다.

사실 연안은 어촌계의 관리 하에 있는 공동어업 구역도 아니고, 그렇다고 담을 쌓아 분리할 수 있는 지역도 아니다. 이곳은 자신의 권리를 내세울 수 없는 공동수역이므로 무엇보다도 '공동적'이고

9 법적으로 연안어업은 총톤수 8톤 이상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다.

10 흥운기의 증언에 의하면, 서해안의 경우, 약 1시간 30분 정도 바다로 나가면 수심이 60m에 이르게 되는데, 이러한 지역까지도 수심 속에 상당히 많은 쓰레기가 있다고 말한다.

‘지속가능한’ 개념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연안은 발달된 어업 장비들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엄청난 ‘자원약탈’을 행하고 있으며, 이것은 향후 어촌의 생계 자원과 환경을 변화시켜 상당한 문화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 ④ 국가 개발로 인한 지역사회의 붕괴

만약 내일 바다가 사라진다면 어민들은 어떻게 될까? 이러한 만화 같은 이야기가 한국의 어촌에서 실제 발생하였다. 바로 새만금 간척사업이 그것이었다. 국가는 세계 최대의 방조제를 자랑하는 새만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삶과 마을공동체,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하였으며(김준 2007: 286-288), 이로 인해 많은 어민들은 생계 터전에서 바다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구술대상자 중 강성기는 김제 출신으로서,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 어민에서 농민이 된 인물이며, 아직도 자신의 배가 새만금 간척지에 갇혀있는 ‘나홀로 배 11’의 주인공이다. 그는 과거 갯벌이 있었던 김제를 회상하면서, 간척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빨리 바다가 사라지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바다는 사라졌고, 그는 현재 바다일을 할 수도 없고 농사일을 할 수도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간척사업 이후 갯벌에서 맨손어업을 주로 하고 있었던 어민들은 조금의 보상을 받는 조건으로 어업을 포기해야 했고, 이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이주를 한 결과 마을공동체는 거의 파괴되어 버렸다.

새만금 간척 이전 김제지역이 갯벌에서 나오는 자원으로 인해 상당한 부촌(임선구 증언)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새만금 간척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제점은 국가개발과 사회문화변동 양자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다. 현재 국가는 수익 혹은 경제적 효과를 내세워 상당한 규모의 자연환경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바, 바다 역시 이러한 범주에 포함되어 있고 또 다른 새만금이 도래할 수도 있다. 구술자의 증언에서 나타난 네 번째 문화변동의 요인은 이러한 국가개발에 의한 것이었다.

## 4. 어민과 어촌의 적응전략

현재 어촌과 어민에게 맞닥뜨린 문화변동의 요소들은 그리 긍정적인 측면을 가진 것이 아니다. 자연생태계는 변화하고 있고, 발달된 인간의 문화가 그 변화를 주도하기도 한다. 사실상 현재 한국의 어촌에는 생계와 공동체를 이어가기 위한 새로운 적응전략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앞 장에서 살

---

11 강성기의 배는 새만금 간척사업 당시 바닷물이 모두 빠질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한 유일한 배이다. 현재 이 배는 새만금 간척지 중앙에 있으며, 배를 바깥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한 현실이다.

피본 바와 같이, 어촌을 둘러싸고 있던 많은 전통문화들이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여 변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많은 연구에서 향후 어촌의 변화를 위해서는 경제적 요소가 상당히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생태환경의 변화와 물고기의 남획 등으로 인해 어족자원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어촌공동체 구성원의 노령화와 후계자 부족, 도시로의 이주 문제를 극복하며 새로운 경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많은 연구들은 어촌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범주로는 어촌공동체를 새롭게 편성하여 역량을 강화하는 것(김대영 2017: 905-907)과 어촌관광체험프로그램 등을 강화하여 경제적 자생력을 갖게 하는 방법(손재영·김진동 2018; 신동주 2011), 어촌과 연관된 각계 계층의 인사들이 바다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하는 제안(함한희·강경표 2017) 등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위의 논지들은 조금씩 다른 처지와 관점에서 어촌 문화의 지속과 발전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술조사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몇 가지 민족지적ethnographic 사례를 중심으로 어민과 어촌공동체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마을 정체성의 보존과 활용: 울산 제전마을박물관 사례

경제력이 복원된다 하더라도 어촌에 대한 자긍심과 정체성이 무너진다면 공동체의 지속성은 유지될 수 있을까? 이것은 경제력 이외의 한국 어촌의 항구성이 정체성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물음이다. 즉 어촌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대외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어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이 어촌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지와 관련하여 울산 제전마을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제전마을은 울산시 북구 구유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을의 역사는 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오늘에 이르고 있다. 주요 제보자였던 김찬식의 증언에 의하면, 제전마을은 40여 년 전까지 120호 정도의 전형적인 어촌 마을로서, 장어, 놀래미, 망상어, 전복, 해삼, 소라, 상어, 미역 등을 채취하면서 옥수수과 고추, 고들빼기, 콩, 들깨, 배추 등의 소규모 농업을 병행하는 농어촌 복합형 마을이었다. 하지만 이곳은 1997년 광역시로 편입된 이후 상당히 큰 폭의 문화변동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다.

제전마을은 평범한 어촌이지만 많은 주민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미역채취이다.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돌미역은 동해안 전역과 남해안 일부에서 채취되고 있으며, 특히 울산 북구 해안의 돌미역은 조류가 세고 수심이 얕아서 일조량이 많으며, 기세작업<sup>12</sup>으로 포자가 촘촘히 부착되어 쫄깃한 탄력을 가진다고 하여 '쫄쫄이 미역'이라 불리고 있

12 기세작업이란 미역이 자라는 바위에 있는 잡해초와 불순물을 긁어내는 작업으로서, 미역의 포자가 잘붙고 빠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다.

다(울산광역시·국립민속박물관 2017: 66). 제전마을의 돌미역은 전국적인 특산물로 알려져 있고, 이를 통해 마을 주민들도 공동체의 정체성과 연대의식을 느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제전마을의 미역 채취는 매년 10월 달부터 12월까지 행해지는 ‘기세작업’으로 시작하는데, 미역바위가 수면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해녀들이 작업하며, ‘기세호미’<sup>13</sup>나 ‘실갯대’<sup>14</sup>와 같은 도구를 사용해 모든 마을 사람들이 작업에 참여한다. 이후 본격적인 미역 채취는 4월말부터 5월 까지 진행되는데, 미역을 물에서 채취해서 배에 올리고 건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시기는 마을에서 가장 바쁜 시기로서 ‘미역철에는 장모님 장례식에도 못간다, 그마이 바빠’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모든 노동력이 총집중되어야 한다. 미역은 제전마을의 주요 수입원이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홍보가 많이 되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sup>15</sup>

하지만 현재 제전마을은 미역이나 기타 조업을 통해 수익을 올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불투명한 미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보다도 인구구성의 변화에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제전마을의 인구는 총 151명이고 실제 거주 가구수는 78가구<sup>16</sup>이다. 하지만 인구구성적 측면에서 본다면, 제전마을은 60대 이상 주민이 98명으로서, 대부분의 인구가 고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울산광역시·국립민속박물관 2017: 50-51). 이러한 상황에서 미역채취와 같은 대단위 노동집약적 어업을 지속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임에 분명하다. 무엇보다도 제전마을의 고령화는 도시와 근접해있다는 특성과 맞물려 공동체의 기능과 존재감을 약화시킬 수 있기에, 향후 마을에서 지속적인 어업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 제전마을에 설립된 것이 마을박물관이다. 제전마을박물관은 2017년 울산시와 국립민속박물관과의 협조에 의해 설립되었고,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일부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를 남기고 싶다는 요구에 의해 진행되었다. 박물관은 기존 마을회관의 건물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의 1년 생활과정을 전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년 생활과정에는 미역채취와 같은 노동 일정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외에도 주민들의 여가생활은 어떠한 가에 대한 것도 전시되어 있다. 우선 박물관 내부에는 제전마을의 문화적 특징들을 요약하기 위한 지도가 그려져 있는데, 여기에는 ‘해녀의 집’과 ‘당집’과 같은 마을의 생활과 역사를 알 수 있는 위치들이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

13 기세작업을 할 때 해녀가 잠수하여 미역바위를 긁어내는 도구이다.

14 기세작업에 쓰이는 도구로서 ‘기세대’라고도 불린다. 잠수하지 않고 미역바위를 깎아낼 때 쓰이는 도구이다.

15 이외에도 제전마을의 중요한 어로행위는 장어를 잡는 것이다. 장어잡이는 김찬식의 부모님 세대부터 시작되었는데, 과거 한때는 3.5톤 규모의 장이잡이 어선이 12척이나 마을에 있었으며, 이것을 가지고 장어구이 집을 운영해 상당한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16 가옥의 수는 100가옥이었으나, 실제 거주하는 가구수는 78가구였다.

가장 역점을 두어 전시되어 있는 것들은 어로도구들이다. 여기에는 제전마을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어로행위에 사용되는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고, 특히 미역 채취와 관련하여서는 노동의 과정과 세부적인 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전시공간을 마련하였다. 노동과정 이외에도 박물관에는 마을 주민들의 일상사를 볼 수 있는 각종 옛 사진들과 여행사진, 의류(한복 등), 기념수건 등이 전시되어 있어서, 방문한 사람들에게 마을의 생활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모든 전시품과 사진 등은 주민들의 기증으로 이루어졌으며, 아직까지 많은 관람객이 찾지는 않지만 겨울을 중심으로 박물관을 방문한다고 한다(김찬식 증언).

제전마을박물관의 효용성은 관람객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을 주민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스스로 기록하기 위해 나섰다라는 것이고, 이를 통해 노령화 등으로 인해 맞게 된 어촌공동체 정체성의 붕괴를 새로운 방법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박물관의 운영이 당장 마을 내 노령화를 급격하게 바꿀 수는 없겠지만, 박물관을 통한 주민 정체성의 고조와 외부의 지원이 간헐적으로 더해진다면, 한국 어촌의 문화가 동시대적 보편성으로 자리 잡으며 새로운 발전의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체성과 주인의식을 갖는 것이 공동체 보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 2) 주민주도형 어촌 관광마을의 트렌드 만들기: 전남 함평 돌머리 마을의 사례

어촌관광은 어촌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하여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부가 횃집과 민박사업을 지원하기 시작한 1984년부터 본격화되었다(신동주 2011: 543).<sup>17</sup> 이후 어촌관광의 패러다임은 더욱 다양해졌으며, 현재에는 자연자원(바다, 하천, 해변 등)과 사회경제적 자원(항구, 어장, 레포츠 시설, 어민의 의식주 등), 문화자원(유적 및 문화재, 과거 어민의 의식주 등) 등을 주요 매개로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포괄적 행위를 말한다. 이번 전남 함평 돌머리 마을의 사례는 어촌관광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전남 함평 돌머리 마을은 함평만에 위치한 반농반어 지역이다. 이곳에서는 예전부터 어선을 이용한 어업보다 뺨에서의 맨손어업이 주류를 이루었고, 주로 생산되는 어종으로는 석화와 바지락, 낙지, 갯지렁이 등을 꼽을 수 있다. 돌머리 마을은 2000년대 이전까지 그렇게 주목을 받는 곳은 아니었다. 마을에서는 어선업을 하지 않고 갯벌에서만 어로행위를 했기 때문에 함평군 내에서도 가장 경제적으로 뒤처지는 지역이었다. 하지만 2002년 돌머리 마을이 ‘체험마을’로 지정되면서 조금씩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체험마을의 운영이 초기부터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지만, 현재 돌

17 어촌관광의 정부적 지원에 관한 포괄적 사항은 김성귀(2006)의 연구를 참조바란다.

머리 마을은 체험마을 운영과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함평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마을로 변모하게 되었다.

돌머리 마을의 관광 프로그램은 체험마을과 캠핑장, 그리고 돌머리 해수욕장의 유기적 운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돌머리 해수욕장은 1980년대 개장을 하였으나, 초기에는 기반 시설이 부족하여 찾아오는 관광객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약 10여 년 전 해수욕장의 관리를 마을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조금씩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현재 돌머리 해수욕장의 운영은 마을에서 자율관리공동체를 조직하여 주민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다. 자율관리공동체는 어민들이 서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마을을 공동으로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는데, 이를 계기로 해수욕장 내에 종합안내소와 편의시설, 화장실, 샤워장, 방갈로, 관광객을 위한 조류 전망대와 해안 탐방로 등을 만들었다. 또한 갯벌 체험과 맨손고기잡이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해수욕장과 연계되어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한 캠핑장도 운영하게 되었다. 이러한 운영 이후 돌머리 해수욕장과 연계 관광 프로그램은 상당한 수익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결국 돌머리 마을에서 체험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진화할 수 있었던 것은 주민들의 자율적인 공동관리 시스템이 큰 역할을 한 셈이다.

돌머리 체험마을 운영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손홍주는 체험 프로그램 성공 사례의 요인으로 주민 공동운영을 말하고 있다. 체험프로그램과 특산물 판매 등을 통해 만들어지는 모든 수익은 어촌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어촌계는 수익 관리를 위해 '석두어촌계영어조합법인'으로 법인화되어 있다.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은 수산업법에 의거해 생산성을 높이고 어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어업인 5인 이상이 설립한 협업적 어업 경영 조직인데, 돌머리 마을의 경우에는 수산물을 판매해서 얻어지는 수입보다 관광산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이익이 더 많은 것이다. 돌머리 마을에서 체험 마을 운영비는 10% 정도 마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적립된 기금으로 시설 재투자와 해수욕장 관리를 하는 마을 주민들의 인건비를 지급한다.

위와 같은 돌머리 체험프로그램의 성공은 귀어(歸漁)가 늘어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돌머리 마을에는 귀어자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40~50대 마을 출신 자녀 6~7명이 최근에 귀어하였고, 이외에도 외부인들이 새로 집을 사거나 지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손홍주 증언). 조사 당시 만났던 귀어자 이충연은 돌머리 마을 출신으로서 서울에서 대기업을 다니다 귀어한 경우이다. 그는 현재 돌머리 해수욕장에 위치한 편의시설을 맡아 관리를 하고 있고, 함께 내려온 그의 부인은 돌머리 자율관리공동체의 사무장 직을 맡아 하고 있다.

현재 다수의 어촌관광 및 체험프로그램 연구들이 어떠한 시설과 상품 등의 개발이 어촌관광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를 연구하고 있다(김재민 1998; 손재영·김진동 2018; 신동주 2011 등). 하지만 어촌관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시설과 상품의 개발이기보다는 어떻게 '주민 주도형' 사업으로 어촌관광을 정착시키는가의 문제이다. 물론 좀 더 자세한 재정 구조와 운영시스템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구술증언에 나타난 함평 돌머리 마을의 어촌관광 프로세스는 단순

히 정부의 지원과 재정적 측면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어촌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능동적 참여가 기반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어족자원 부족과 도시화, 노령화로 접철되어가고 있는 어촌 공동체의 변화를 위한 중요한 적응전략이 될 수 있다.

## 5. 소결

본 연구의 생활사 증언에서 감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어촌의 무한한 변화가능성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술증언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와 노동력 구성의 변동, 그리고 어족자원 부족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한국 연안어업의 현실, 대규모 국가개발 사업으로 인한 어촌공동체의 파괴 등을 한국 어촌의 주요 문화변동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물론 이외에도 상당한 문제점들이 어촌과 어민의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구술증언에서 드러난 주요 문제들은 다른 문제들을 보다 큰 범위에서 포괄하고 있다. 이미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학계와 정부의 노력은 시작되고 있지만, 정작 어민들의 인식에 기반한 적응전략이 어떠한가에 대한 모델은 충분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연구진은 조사과정에서 국가의 정책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민들이 주도적으로 변화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주목했으며, 그것이 울산 제전마을과 전남 함평의 돌머리 사례들이다. 이와 같은 주민 자발형 프로세스는 모든 정보가 확장되어 아래로부터의 인식과 주체적 참여가 가능한 현재 상당히 유용한 모델로서, 향후 어촌마을의 문화변동과 적응전략을 분석하는데 용이하게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나름대로의 결론을 가지고 있으나, 향후 연구에서의 확장성 또한 견지하고 있다. 12명의 구술생활사를 통해 한국 어촌의 문화변동과 적응전략을 말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또한 본 연구진 역시 어촌의 문화변동에 대한 적응전략 이 연구가 각 지역의 특수적 상황에 기반해야 한다는데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볼 때, 본 연구의 확장 가능성은 각 지역에서 증언하였던 어민들의 구술사에서 텍스트 의미 분석을 강화하여 지역과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올 수 있는 사례연구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 점은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세밀한 생활사적 연구로 거듭나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논문

- 강성복, 「서해 도서지역 전통어로지식의 전승양상과 변화」, 『민속연구』 31,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15, pp.239-267.
- 강철승, 「한국 해양 어촌관광활성화 정책방향」, 『한국경영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3-2, 한국경영교육학회, 2013.
- 김경수, 「해양관광 복합형어항 개발에 따른 인프라정비의 파급효과 분석 -부산시 기장지역 어항을 중심으로-」, 『한국지리정보학회지』 10(1), 한국정보지리학회, 2007, pp.146-157.
- 김대영, 「어촌환경 변화에 대응한 어촌공동체 발전방향」, 『수산해양교육연구』29(3),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2017, pp.899-908.
- 김상구·강윤희·강은숙·우양호, 「어로행위로 인한 연안오염 실태분석」, 『지방정부연구』 9(4), 한국지방정부학회, 2005, pp.253- 278.
- 김성규, 「어촌관광 진흥사업의 현황 및 과제」, 『한국관광정책』 2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6, pp.48-55.
- 김재민, 「어촌의 관광개발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21(2), 한국관광학회, 1998, pp.297-311.
- 김 준, 「대형 간척사업이 지역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 새만금사업을 중심으로」, 『환경사회학연구 ECO』 11(2), 한국환경사회학회, 2007, pp.285-316.
- \_\_\_\_\_, 「마을어장의 위기와 가치의 재인식」, 『도서문화』 38,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11, pp.245-272.
- 노호래, 「수산 및 해양 분야 외국인노동자 현황 분석과 해양경찰의 정책방안」, 『한국경찰학회보』 19(6), 한국경찰학회, 2017, pp.85-112.
- 박성래·권혁준·박중운·차철표, 「기후변화와 수산업의 관계에 관한 연구」, 『수산해양교육연구』 22(3),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2010, pp.388-401.
- 박혜영, 「기술변동에 따른 미역 인공약식의 확산과 어민들의 생업전략-부산 '기장미역'을 중심으로-」, 『실천민속학연구』 28, 실천민속학회, 2016, pp.47-94.
- 신동주, 「어촌관광 방문동기와 만족도 -장호어촌체험마을의 2008, 2010년 비교를 중심으로-」, 『관광연구』 25(3), (사)대한관광경영학회, 2011, pp.511-558.
- 오창현, 「20세기 전반기 서해 어민들의 의례와 해역 신앙」, 『한국민속학』 59, 한국민속학회, 2014, pp.203-234.
- 왕한석, 「한국의 물때 체계: 그것의 구분법과 지역적 변이 그리고 실학자들의 이른 기술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51(3), 한국문화인류학회, 2018, pp.9-63.
- 이창현·신호식·임명환, 「어촌의 실태 및 기존연구 분석」, 『수산해양교육연구』29(4),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2017, pp.967-975.
- 손재영·김진동, 「어촌관광 체험프로그램의 유형과 지역별 특성 및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저널』 32(9), 한국관광연구학회, 2018, pp.19-31.
- 조숙정, 「곰소만 어촌의 어로활동에 관한 민족지적 연구 -1970년대 이후 어업의 변화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23(2),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7, pp.105-143.
- 최치훈, 「마을어업의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연구』 31(4), 2019, pp.179-204.
- 함한희, 「생태계의 위기와 여성어민들: 새만금지역의 사례」, 『환경사회학연구 ECO』 7, 한국환경사회학회,



2004, pp.150-170.

합한희·강경표, 「어민, 환경운동가, 그리고 정부의 바다인식: 새만금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중심으로」, 『환경사회학연구 ECO』 11(2), 한국환경사회학회, 2007, pp.247-284.

#### 단행본

윤택림, 「역사와 기록 연구를 위한 구술사 연구방법론」, 아르케, 2019.

#### 보고서

국립민속박물관·울산광역시, 「(미역바위를 가꾸며 살아가는) 울산 구유동 제전마을」, 국립민속박물관, 2017  
해양수산부·국립해양박물관,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 2』, 국립해양박물관, 2019.

# 유사무서 有史無書, 바닷가 보통 사람들의 생애

장현정 | 도서출판 호밀밭

1. 들어가며
2. 조사 개요
3.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 3권'의 성과와 의의
4. 나가며

# 유사무서<sup>有史無書</sup>, 바닷가 보통 사람들의 생애

## 1. 들어가며

이 글은 지난 2020년 진행한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 3』의 조사와 성과에 대해 정리한 글이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부터 매년 구술생애사를 통해 바닷가 사람들의 살아 숨 쉬는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해 ‘휴먼스토리 연구’ 사업을 진행해왔는데 2018년에는 ‘해양과 수산’을 주제로, 2019년에는 ‘연안어업’을 주제로 조사를 진행했고 2020년 세 번째 조사는 사라져가는 해양 관련 ‘일상과 문화’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바다는 유사무서<sup>有史無書</sup>의 역사다”라는 말처럼 오랫동안 역사는 지나치게 육지 편향적 관점에서 기록되어 왔다. 여기에 엄밀한 사실관계에만 집중하는 사료 중심의 역사 연구가 가진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아지면서 바다와 이곳에 터를 두고 살아온 사람들의 육화<sup>incarnation</sup>된 경험과 지식을 남기는 일의 의미는 한층 더 중요해졌다. 이런 배경에는 20세기 중반 이후 서구 중심적 근대성의 한계에 대한 비판과 함께 출현한 이른바 ‘성찰적 근대성<sup>reflexive modernity</sup>’도 영향을 주었다. 서구 중심 근대성을 ‘육지적’ 관점으로, 새롭게 요구되는 성찰적 근대성을 ‘해양적’ 관점으로 거칠게나마 대별<sup>大別</sup>해 본다면 오랜 기간 인류는 감성보다 이성, 여성보다 남성, 육체보다 정신, 죽음보다 삶의 문제에 천착해왔고 지나치게 이성 중심주의, 가부장주의, 정신(관념) 우월주의 혹은 생존 중심주의에 치우쳐 온 측면이 있었다. <표 1>과 같이 서로 다른 영역이 균형감 있게 스미고 배며 공존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이번 사업에서 연구팀은 이러한 사업의 취지와 배경을 끊임없이 환기하며 바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발굴하고 기록하고자 했다.

〈표 1〉 육지성과 해양성의 성격

육지성(근대성)	해양성(탈/후기근대성, 성찰적 근대성)
직선	곡선
일의 논리	삶의 논리
개인(分)	공동체(緣)
고체적/ 권위적/ 일원적	액체적/ 수평적/ 다원적
자본/ 토지/ 사물 등 물성에 기반	정보/ 경험/ 감성 등 비물성에 기반
정착성/ 안정 지향/ 삶	유동성/ 모험 지향/ 죽음
이성/ 관념/ 남성성	감정/ 육체/ 여성성

최근, 우리 사회에서 ‘아카이브 Archive’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실제로 도시재생, 문화도시 같은 사업은 물론 수많은 기관에서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이런 대안적 흐름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공식적인 기록이 자칫 놓칠 수 있는 ‘유사무서(有史無書)’의 기록에 대한 중요성을 새삼 깨닫고 그동안의 관점과 방법으로 포착하지 못했던 사라져가는 것들, 잊히고 있는 것들에 대해 새로운 관심과 접근, 기록과 해석이 필요하다는 데 갈수록 더 많은 이가 동의하고 있다. 동시에 그렇다면 분명히 존재하지만 기록되지 못한 역사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현재 진행형이다. 구술생애사와 참여자행동연구, 포토보이스 등 다양한 방법론이 개발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더 많은 사람이 자신들의 언어와 방식으로 자신들의 삶을 표현하고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들은 강박적 객관성의 틀에서 벗어나 더욱 생생하고 실질적인 방식으로 우리 문화를 확장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나간 것을 기록함으로써 다가올 것을 준비한다는, 과거와 미래를 잇는 아카이브의 중요성에 갈수록 더 많은 이가 주목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연구팀은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엄밀한 객관성을 추구하는 학술적 연구라기보다 구술자들의 주관적 기억 속에 존재하는 공통 기억을 끄집어냄으로써 우리 바다의 역사에 새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아카이빙의 목적을 띄고 있음을 공유하고 단순한 자료의 축적에 그치는 게 아니라 활용을 염두에 둔 스토리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의도했다. 아카이빙은 흔히 획득(기록을 만들거나 한 곳으로 모으는 일)과 관리·보존(가치 있는 기록을 안전한 환경에서 소장하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준비하는 일)을 거쳐 활용(필요할 때, 쉽고 빠르게 찾아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재가공하는 일)으로 나아간다.<sup>1</sup> 단순한 사실의 축적은 아카이브라고 보기 어렵고, 나름의 분명한 의도와 방향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을 축적한다는 점에서는 비슷

1 아카이빙 네트워크 연구원, 『(경기아카이브총서1) 지역 기록자를 위한 아카이빙길잡이-관리편-』, 경기도사이버도서관, 2018.

하지만 그것에 대한 해석, 가공의 정도에 차이가 있고 그렇게 할 때 아카이빙은 단순한 자료를 넘어 기억과 역사가 된다.

이미 우리는 아카이빙에 있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나라이다. 『조선왕조실록』은 세계 어디서든 유례를 찾기 어려운 최고 수준의 아카이빙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공공영역에서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2006년 기록관리법을 전면 개정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아카이빙에 대한 중요성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

연구팀은 이번 작업 이전에도 이미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영도 대평동 짱짱이마을 3부작 『짱짱이마을 100년의 올림 - 역사』, 『짱짱이마을 100년의 올림 - 산업』, 『짱짱이마을 100년의 올림 - 생활』을 통해 주민들의 구술과 사료들을 축적하고 그 결과물을 대중의 눈높이에 맞게 가공하여 주목받은 바 있고, 2019년에는 대평동 주민들의 구술을 기반으로 출판한 책 『영도, 타향에서 고향으로』와 어르신들의 인생 이야기를 엮은 『부끄러워서 할 말도 없는데』 등의 작업을 통해 구술을 통한 기록의 가치를 새삼 깨닫고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작업의 방식을 다듬고 있던 참이었다. 이후 2020년에 진행하게 된 이번 ‘휴먼스토리 연구’는 이런 나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12명의 구술자와 함께 진행되었고, 2020년 11월 『바다사람들의 생애사 3』으로 출판되었다.

## 2. 조사 개요

연구팀은 구술자 선정과정에서 동해, 남해, 서해 중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등 지역별, 직업별, 분야별로 나름의 균형을 맞춰 분배하고, 음식과 같은 생활문화부터 무속과 장인에 이르는 예술의 영역까지 되도록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살펴보기로 했다. 이런 원칙 위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알게 된 다양한 분야의 구술대상자 중 예비조사를 통해 섭외를 시작했고 구술에 동의한 분 중 12명을 최종 선정하여 일정을 조율하고 사전 조사를 통해 작성한 질문지를 미리 보낸 뒤 조사를 진행했다. 꼭 만나고 싶었던 이들 중 구술자 개인의 사정을 비롯한 여러 이유로 연구할 수 없었던 이들도 있었고 오히려 더 좋은 사람이 있다며 소개해주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된 구술자들이었다. 구술자들의 개요는 <표 2>와 같다.

〈표 2〉 구술자 개요 (나이 : 2020년 기준)

연번	이름 (나이/ 성별)	개요	조사일시/장소
1	강창언(61세/남) 김희선(66세/남)	재야사학자 제주 국선장 김천년 선생 차남	2020.08.20~22. 제주 구좌읍 등
2	김관일(77세/남)	가덕도 송어잡이 어로장	2020.07.30~31. 부산광역시 가덕도 일원
3	김진수(63세/남)	백령도 물범지킴이	2020.06.12~14. 인천광역시 백령도 일원
4	김창명(83세/남)	4대째 하단포구 황포돛배 장인	2020.07.30~31. 부산광역시 사하구 일원
5	박명호(56세/남)	머구리	2020.07.17~19. 강원도 고성군 일원
6	최신일(46세/남)	염전업	2020.07.03~06. 전남 신안군 도초도
7	이강윤(63세/남) 이화봉(62세/여)	여간장 연구가	2020.06.26~28. 경상남도 남해
8	정성수(64세/남) 신애자(61세/여)	가자미식해 명인 고 김송순 선생의 차남과 며느리	2020.07.17~19. 강원도 속초 아바이마을
9	김동언(56세/여)	5대째 가업 잇는 세습무	2020.09.06~07. 부산광역시 기장군
10	배재적(76세/남)	창리 영신제보존회 회장	2020.06.06~07. 충남 서산시 부석면 창리
11	정경용(74세/남)	거문도 뱃노래 전수자	2020.06.26~28. 전남 여수시 거문도
12	최병천(71세/남)	초분 기술자	2020.07.03~06. 전남 완도군 청산도

주된 연구방법은 구술조사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최종 선정된 구술자들에 대한 선행연구와 기초자료 및 문헌을 조사해 기초 질문지를 작성하는 등 예비조사를 거친 후 각 구술자를 만나 회당 2시간 내외로 2~5회에 걸쳐 구술조사를 진행했고, 매번 3인 1조로 움직이며 최대한 구술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에서 실제 사용하는 도구와 작업방식을 직접 보면서 진행했다. 구술조사 와 동시에 녹음, 영상 및 사진 촬영, 면담 기록 등을 병행했고 조사 이후에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소한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후 전사 및 검독 작업을 거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했다. 구술조사 인터뷰의 기초 질문범주는 〈표 3〉과 같다. 여기에 현장에서 새롭게 알게 된 이야기들, 구술자의 표정이나 말의 속도, 몸짓 같은 비언어적 표현 등에 따라 구술 당시의 맥락을 파악하고 섬세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진행했다.

전통 방식으로 배를 만들었던 제주 테우나 낙동강 황포돛배 장인의 이야기는 우리 해양문화의 전통이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기에 더욱 시급했다. 생태와 환경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백령도에서 물범지킴이로 활동 중인 선장의 이야기나 신안에서 들었던 우리 염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 200년 전통을 가지고 있으나 이제는 사라지고 있는 부산 가덕도 송어잡이 어로장의 이야기와 가장 전통적인 방식으로 매일 바다로 들어가는 동해의 머구리 이야기, 남해 어간장과 속초의 가자미식해, 뱃사람들만의 전통적인 장례문화인 청산도 초분과 동해 별신굿, 남해 거문도 뱃노래, 서해 영신제의 이야기까지 한 분 한 분의 생애와 구술은 모두가 우리 바다의 역사로서 묵직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표 3〉 구술조사 인터뷰 기초 질문범주

범주	대분류	구체적 내용
유년기	고향 부모와 형제 가족 배경 유년기 교육, 놀이	고향의 물리적·사회적 환경 등 부모님의 성품과 직업, 형제 관계, 가족 형태 등 가족의 경제적·사회적 배경, 친족과 관계 등 교육환경, 놀이 방식 등
청년기	교육 직업 군대(남성 해당) 결혼	진학 과정, 수학 경험, 학비 조달 방식 등 직업 경험, 직업의 변화와 계기, 직업의 선택 등 군대 생활 등 배우자 선택, 결혼 생활, 살림살이 등
중장년기	자녀 출생과 양육 생업 사회적 네트워크 여가	자녀 출생, 가구 구성, 양육 경험 등 생업 경험, 생업 기술 획득 과정, 소득과 지출, 생업 도구 등 종교, 지역 네트워크, 생업 네트워크 등 여가 방식, 시간 조직 방식 등
노년기	일상생활 자녀 회고	일상을 구성하는 방식 등 자녀의 생활, 자녀와의 관계, 자녀 거주지 등 인생 회고, 후회와 회한, 기쁨과 환희 등
바다	바다에 관한 기억	바다에 관한 기억, 바다가 주는 의미 등

### 3.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 3권’의 성과와 의의

#### 1) 치열한 재야사학자의 발견과 향토해양사의 의미

2020년 8월, 제주 구좌읍 등지에서 제주 전통 배인 테우의 복원과정을 기록한 강창언 선생과 제주 국선장 김천년 선생의 차남 김희선 선생을 만나 구술조사를 진행했다. 테우는 여러 개의 통나무

를 엮어서 만든 제주 전통의 뗏목 배다. 해녀들이 뱃물질 할 때 섬 주변까지 운송수단의 역할을 하였으며 강창언 선생은 테우 제작 및 재현 전문가로 거의 사라진 제주의 지역문화이자 우리의 전통 해양문화를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다.

**제주 전통 테우 복원 과정 기록한  
강창언 선생과 제주 국선장  
김천년 선생의 차남 김희선 선생**

강창언 김희선 (왼쪽부터)



1960년생인 강창언 선생은 제주 용담 한두기마을에서 출생해 어린 시절부터 순전히 독학으로 공부와 답사를 병행하며 제주 지역의 역사를 연구해왔다. 어릴 때부터 혼자서 도자기 조각을 주워 모으는 게 유일한 놀이였고, 이후에도 제주도 곳곳을 답사하며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을 지속해가던 중 1996년에 처음으로 故김천년 선생과 차남 김희선 선생을 만나면서 제주 전통 배의 복원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었다. 마침 제주 배의 원형에 대해 의문을 갖고 혼자서 탐구를 시작한 참이었다. 이때 강창언 선생은 김희선 선생과 함께 김천년 선생의 덕판배 제작 과정에 참여하였고, 이후 제주도 뗏목배인 테우를 함께 만들기도 했다. 이들은 복원한 테우의 제작 설계도와 기록을 남기기도 했는데, 이제 이를 토대로 김천년 선생이 복원했던 덕판배를 온전히 재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었다. 덕판배의 어원은 분명치 않지만, 『제주어사전』에는 ‘바닷가 바위에 배를 대어 우마<sup>우마</sup> 따위를 싣고 내리기에 적합하게 선수를 넓고 평평하게 만든 제주도 고유의 배’라고 나와 있다. 제주도에 서 덕판배는 한반도와 일본을 연결하는 연륙선이었고, 일부에서는 고기잡이배로 쓰였다. 덕판배가 없었다면 백제, 신라, 왜 등과의 교류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생전에 국선장<sup>國船匠</sup>이라 불렸던 김천년 선생은 1925년 제주 구좌읍 세화리에서 출생했다. 그의 차남 김희선 선생도 1955년 같은 곳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전통을 잇고 있다. 김천년 선생은 덕판배 기능을 두 명에게 전수했는데 그 중 김천년 선생의 조카 강정식 선생은 건강이 좋지 않아 거동이 힘든 상태이고 다른 한 명인 김희선 씨가 지금도 강창언 선생과 함께하고 있다.

강창언 선생은 최근 『탐라야사』를 출판하는 등 여전히 제주도를 기반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 2) 사라지는 전통어업의 장인을 직접 만나다

2020년 7월, 부산 가덕도 일원에서 200년 가덕도 송어잡이의 전통을 잇는 어로장 김관일 선생을 만나 구술조사를 진행했다. 김관일 어로장의 집은 가덕도 입구 대항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있었다. 봄부터 시작해 초여름까지 주로 진행되는 송어잡이가 막 끝난 무렵이었다.

1944년 가덕도 대항마을에서 어부의 아들로 태어나 한평생을 이곳에서 살아온 김관일 어로장은 말 그대로 이곳의 토박이다. 그시절 누구나 그랬듯, 먹고 살기 어려운 가난한 집에서 6남 1녀, 7남매 중 셋째로 태어나 초등학교를 졸업한 직후부터 부친을 따라 배를 타기 시작했다. 일이 힘들어도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으니 다른 데 취직하기도 어려웠다. 이후 평생 바다와 함께 살아온 것이다.

가덕도 앞바다는 낙동강에서 흘러내린 민물이 바다와 만나는 곳으로 플랑크톤이 풍부해서 예로부터 '가덕수로'라 하여 가덕도에서 잡은 고기는 최상품으로 쳤다. 그중에서도 송어의 맛이 좋다 보니 무리 지어 다니는 송어의 특성을 활용한 가덕도만의 송어 잡는 방식이 발달하기도 했다. 최소 150년에서 200년을 이어온 가덕도 전통 송어잡이 방식인 '송어들이'에 변화가 생긴 건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신항 준공을 전후로 송어 양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선원들의 인건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 노를 젓던 배에서 동력선으로 바뀌었고 산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진두지휘하던 어로장의 망루에서 보여주었던, 이제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물이 올라올 수 있도록 설계된 기계에 의존하면서 송어 잡는 방식도 바뀌었다. 김관일 어로장은 이렇게 사회와 산업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던 시기인 1980년대부터 2020년까지 약 40년간 가덕도의 송어잡이를 진두지휘해왔다. 전통적인 송어잡이 방식의 변화 순간을 지켜봐 온 목격자이기도 한 그의 이야기를 통해 그 격변의 시간 속

### 2백년 된 가덕도, 송어잡이의 전통을 잇다

김관일 (68세)



망대 바로 뒤 사당의 모습과 14위 어로장의 위패

에서 우리 바다의 많은 것들도 함께 사라져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 3) 섬에서 나고 자란 사람의 이야기에 각인된 현대사와 오래된 미래

2020년 6월, 인천광역시 백령도 일원에서 선장이자 물범 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는 김진수 선장을 만나 구술조사를 진행했다.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이지만 우리 바다엔 보이지 않는 벽도 존재한다. 대한민국 서쪽 최북단, 그 멀고 외로운 바다 위에 작은 섬 백령도가 있다. 백령도는 인천항에서 200km가량 떨어져 있지만, 북한 옹진반도에서 12km밖에 되지 않는, 육안으로 북녘의 해안과 능선을 바라볼 수 있는 섬이다. 이 아득한 섬에 서해를 자유롭게 오가는 생명 점박이물범이 있다. 점박이물범은 중국 보하이만, 랴오둥만의 유빙 위에서 새끼를 낳고 봄이 되면 남하하여 백령도 인근에 머무는 동물이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의 마스코트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점박이물범이지만 같은 바다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어민과 물범의 공생 관계는 멀기만 했다. 물범은 어민이 쳐놓은 어망을 찢어놓았고, 어민의 그물은 먹이를 찾는 물범의 생명을 위협했다. 김진수 선장은 이곳에서 어민의 생계와 물범의 생명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 경계 위에서 꿈꾸는 공존의 삶, 백령도 물범지킴이

김진수 (물범지킴이)



물범이 까나리를 꺼내먹기 위해 물속에서 뜬어놓은 그물을 그때그때 손질하며  
까나리 조업 중인 김진수 선장

그는 3대째 백령도에 살며 까나리를 낚는 어부이자 어촌마을의 이장, ‘물범지킴이’로 꾸준히 활동해오고 있다. 김진수 선장의 할아버지는 북한 황해도 출신으로 ‘범 영감’이라 불렸다 한다. 그 ‘범 영감’의 손자가 이제 ‘물범지킴이’가 되어 점박이물범과 서해 바다 속을 유영하고 놀래미와 우럭, 해삼과 가리비 등 바다가 내어 준 선물을 함께 나눈다. 바다는 김진수 선장에게 보물이다. 노력한

만큼 거뒀을 수 있어서 그렇다. 물범은 김진수 선장에게 애완동물처럼 사랑스러운 존재들이다. 물질할 때 쫓아다니고 물속에 있을 때 다가와서 뺨히 쳐다본다. 손자들이 백령도에 오면 데리고 가서 물범을 만지게도 해 준다.

김진수 선장은 물범이 웅진군의 큰 보물이라고 생각한다. 김진수 선장을 따라 배를 타고 나가 가까이서 바라본 물범들의 모습은 장관이었다. 코로나-19로 생태와 기후,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해양환경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남과 북 양측의 군대가 직접 마주하는 긴장의 섬, 서해 최북단 백령도라는 이 아슬아슬한 경계 위에서 오늘도 홀로 물질하며 공존과 공생을 바라는 김진수 선장의 이야기를 통해 바닷사람의 생명에 대한 감수성을 목격할 수 있었다.

#### 4) 더 많은 장인이 떠나기 전에 직접 듣고 기록할 필요를 알려주다

2020년 7월, 부산 사하구 일원에서 4대째 하단포구 황포돛배를 만들어온 김창명 장인을 만나 구술조사를 진행했다.

수운과 해운을 연결하는 낙동강 하구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인 하단포<sub>下端浦</sub>는 바다가 아닌 강의 포구로서 조선 시대부터 낙동강 수운을 이용하여 내륙 지방에 운반하던 물류의 중심지이자, 낙동강을 거슬러 구포를 거쳐 안동까지 이어지는 뱃길의 출발지 역할을 했다. 이후 부산의 대표적인 물류항 역할을 하면서 부산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자가 하단포로 모였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강기슭의 정비가 덜된 상태의 낮은 수심과 더불어 주위의 갈대숲과 낙동강 하구에 한가롭게 오가던 돛단배의 풍경은 옛 풍류 시인들의 흥을 돋우어 주기도 했다. 하지만 근대화의 물결은 이러한 낭만을

#### 하단포구에서 4대째 황포돛배 제작 중인, 마지막 장인

김창명  
(부산광역시 우정문화회  
제25호 하단돛배 초산장)



김창명 선생은 아직도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도구들을 보관 중이고 일부는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

사라지게 하면서 누군기는 생존의 변화에 직면하게 하였다.

1971년 대티터널을 시작으로 낙동로가 확장 정비되었고, 1988년에는 낙동강 하굿둑이 하단을 기점으로 구축되었다. 이러한 근대화 노력으로 하단 지역은 그동안의 낙후된 이미지를 벗어나 쾌적한 삶을 추구하는 신흥도시로 바뀌었지만, 동시에 하단포는 옛 포구의 정겨우면서도 한적한 낭만의 품격을 잃어버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60여 년 동안 4대째 조선장 가업을 잇고 있는 김창명 선생은 1937년에 하단에서 태어났다. 예전에는 선착장이었던 곳이며, 증조할아버지인 김두행 선생이 가업을 시작한 조선장으로부터 남쪽에 위치해있다. 집과 배를 만들던 곳이 가깝다 보니 어릴 때부터 김창명 선생은 부친인 김만이 선생과 조부 김원선 선생이 배를 만드는 일을 보고 자랐으며, 자연스럽게 배를 만드는 일에 관심과 재미를 가지기 시작했다. 이후 중학교를 중퇴하여 배 만드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고, 제대 후에 본격적으로 배 만드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이후 스물다섯이 되던 해에 첫 배를 진수하였으며, 하단선창조선소란 이름으로 60여 년 동안 1천 척 이상의 배를 진수하였다.

김창명 선생은 어느새 여든이 넘은 나이이지만 후계자인 조목근 기능전수자와 함께 여전히 현업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2016년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5호 하단돛배 조선장으로 등록되었다. 배 만드는 사람은 아버지이고, 배 주인은 자식이나 다름 없다는 김창명 선생과의 만남은 하단 황포돛배의 역사와 더불어 장인의 숨결을 느낄 좋은 기회가 되었다.

## 5) 북한과 남한, 아버지와 아들로 이어지는 머구리 이야기

2020년 7월, 강원도 고성군 일원에서 매일 아침 아들과 함께 머구리 작업을 하고 있는 박명호 선생을 만나 구술조사를 진행했다. 머구리는 해녀와도 작업방식이 다른, 그들만의 언어로는 바다의 막장이라 표현될 정도로 어려운 작업이다. 한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의 낚과 추를 메고 한 마디 얇은 산소 호스에 의지한 채 어둡고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존재. 땀이 뻘뻘 나는 육지의 마지막 갯도와 달리 살을 에는 추위로 몸이 떨리는 냉기의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존재. 그 바다의 제일 깊은 곳에 머구리가 있다. 머구리는 산소 호스를 통해 호흡하며 깊은 물 속에서 조업하는 잠수부를 뜻한다. 살기 위해 숨을 참아야 하고, 지역에 뿌리내리기 위해 정처 없이 바다를 헤매야 하는 역설이 머구리의 삶이다.

외로운 머구리의 삶처럼 보다 제대로 살기 위해 정든 땅을 떠난 사람이 있다. 대한민국의 가장 북단 강원도 고성에서 그리운 고향 '청진'의 이름을 내건 작은 어선을 타고 대한민국에서의 새로운 삶과 두 아이의 미래, 아내와 함께 살아갈 따뜻한 내일을 그리며 오늘도 차가운 바다로 들어가는 머구리 아버지 박명호 선생이 그 주인공이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오늘도 생과 사의 경계로 나선다는 그

의 이야기는 마치 바닷속처럼 깊고 무거웠다. 가장이란 남과 아버지란 추를 메고 오늘도 바다로 향하는 그는 자식만은 다른 일을 하기를 바랐지만, 역시 삶이란 게 바다처럼 마음대로 되는 것만은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역사적으로도 머구리가 많았지만 모두 자기 아들에게는 전승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모두 대가 끊어졌다. 그러나 박명호 선생은 이제 큰아들과 함께 머구리 일을 하고 있다. 함께 바다에 들어가 보는 게 좋다고 했다. 사람의 의지가, 삶에 대한 의지가 모두 바다 안에서 생기는 것이라면서 이 일을 해보면 다른 일의 수월함도 알게 되고 서로에 대한 존경도 생긴다면서 말이다.

**북한과 남한의 경계에서  
생과 사의 경계에서,  
오늘도 묵묵히  
잠수하는 머구리**

박명호 (머구리)



머구리 직업은 혼자 할 수 없어 매일 큰아들과 함께 바다로 나간다.

머구리 박명호 선생이 마지막으로 강조한 말도 오래 기억에 남았다. “우린 바다가 삶의 전부죠. 바다가 없는 곳은 상상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제일 아쉬운 게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연 어업이 발전할 수 있을까가 제일 큰 고민이에요. 더 깨끗한 바다, 우리가 더 오래 누릴 수 있는 바다를 희망합니다.”

## 6) 염전의 미래를 위한 민간의 노력과 소금처럼 짠 삶의 이야기

2020년 7월, 전남 신안군 도초도에서 대를 이어 염전을 운영하고 있는 최신일 대표를 만나 구술 조사를 진행했다.

소금은 오래전부터 인류의 가장 중요한 물질 중 하나였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 중요성은 여전하며 특히 절임 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 음식에서 소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신안은 바로

그런 소금을 떠올릴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언급할 만한 곳이다. 대표적인 천일염 생산지로 기술자들이 한국전쟁 때 피난민으로 내려와 비금도에 정착했고, 지금의 신안 염전을 조성했다고 알려져 있다. 당시만 해도 염전업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었기에 많은 사람이 염전업에 뛰어들었고 서해안에 대규모 염전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하지만 소금 전매 제도는 1961년을 끝으로 폐지되었고, 수입산 소금이 들어오며 국내 소금은 점차 힘을 잃게 되었다. 또한 국가에서 태양광 발전을 장려하며 많은 염전이 태양광 부지로 전환되었고, 거기다 신안 천일염에 관한 여러 논란까지 이어지자 신안 천일염도 조금씩 과거의 명성을 잃어갔다.

**식품이 아닌 문화상품으로,  
천일염에 콘텐츠의  
맛을 더하다** 최신일 (영진주, 영진 기술 개발사)



신안에서 염전을 운영 중인 최신일 선생은 1973년 신안 도초도에서 태어났다. 그의 할아버지가 염전 축조 작업에 뛰어들었고 그의 아버지 역시 자연스럽게 염전 일을 물려받았다. 반면 그는 어렸을 적부터 염전 일을 싫어했지만, 결국 제대 후 도초도로 다시 돌아왔다. 20대 중반 결혼 후 본격적으로 도초도에 자리 잡으며 염전 일에 뛰어든 그는 단순히 소금을 생산해 판매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 소비자들이 소금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는 중이다. 2006년 ISO 22000인증을 받아 당시만 해도 광물로 취급받던 소금이 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2008년 염전 바닥과 지붕 등을 전면적으로 교체하며 친환경적인 염전 시설을 구축했다. 그는 지금도 다양한 시도를 통해 소금이 나아갈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 그의 소금에 향한 뜨거운 열정과 도전적인 태도가 세상 그 어떤 소금보다 진하게 다가왔다.

**7) 서울에서 남해로, 바다가 열어준 두 번째 인생과 바다 음식 이야기**

2020년 6월. 경남 남해에서 어간장 연구가 이강운, 이화봉 부부를 만나 구술조사를 진행했다.

바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간혀 있던 저마다의 본능을 흔들어 깨우는 묘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아예 삶의 경로를 완전히 바꾸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강운·이화봉 부부의 경우가 그랬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두 사람은 서울에서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웠으며 그렇게 오랜 시간을 서울에서만 살아왔다. 부친을 따라 장교로 생활하다 중년 이후에는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했던 이강운 선생은 우연한 여행을 통해 남해를 처음 만나 이곳에서 지금까지의 인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기로 마음먹었고, 그 결심은 조기 은퇴와 남해로의 귀촌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강운 선생의 설득에 결국 수개월 뒤에는 이화봉 여사도 남해로 와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제2의 삶에 도전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부부가 운명처럼 만난 것이 어간장이었다.

### 어간장으로 남해에서 인생 이모작

이강운·이화봉 부부 (어간장 연구가)



양조간장이 대중화되기 전 내륙에서는 콩으로 간장을 담갔다면 해안가에는 어류를 소금에 절여 숙성시킨 어간장을 담가 먹었다. 남해 지역에서는 특히 남해에서 나는 질 좋은 멸치로 담가 먹던 전통적인 멸간장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 재미 삼아 옛날 맛이 생각나서 조금씩 담가 보는 정도다. 그러나 어간장뿐 아니라 양조간장조차 이제는 메주를 안 쓴다는 게 문제다. 그래서 부부는 메주, 그것도 아주 건강한 콩이 들어가는 전통 어간장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확산하고자 노력 중이다. 멸치로 어간장을 만드는 전통적인 과정도 번거롭기 그지없다. 남해 미조항에서 가져온 멸치는 바닷물에 씻겨 나오지만 또 한 번 씻어야 한다. 씻으면 비린 냄새가 나는 비늘이나 내장 같은 게 제거된다. 그리고 소금에다 버무리려 놓고 집어넣는다. 숙성은 항아리에서 3년 걸리고 이후 액질을 분리하여 다시 2차 숙성과정으로 메주와 버섯, 새우, 고추 등을 넣고 기다린다. 주변 기온에 따라 다르지만 2~3달 만에 발효될 수도 있고, 선선한 시기에는 6개월 이상도 걸리는데 숙성이 다 되면 다시 메주와 간장을 분리하는 일명 ‘장 가르기’ 과정을 거친다. 간장은 비린내를 잡고 살균도 하기 위해 한 번 가마솥에 낮은 온도로 살짝 끓인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필터로 3회 정제하여 용기

병에 담는다.

농사도 지어본 적 없는 초짜 귀농인이자, 신장 면허까지 났지만 멀미 때문에 가끔 일을 도와줄 때 말고는 배를 타지 못하는 초짜 바다 사람인 이강운 선생이지만, 그는 지금 부인 이화봉 여사와 함께 남해의 좋은 멸치들로 전통 방식을 고집하며 만드는 어간장에 삶의 후반부를 모두 집중하고 있다. 이제는 미생물학을 공부한 딸의 도움까지 받으며 어간장을 연구하고 있는데 가족 전체의 삶을 이토록 강력하게 사로잡은 어간장의 전통이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고 오랜 시간 전승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 8) 아바이마을에서, 아마이의 마음으로 만드는 함경도식 가자미 식해

2020년 7월, 강원도 속초 아바이마을에서 가자미식해 명인인 고 김송순 선생의 차남 정성수 선생과 그의 아내 신애자 여사를 만나 구술조사를 진행했다.

1929년 함경남도 북청군 신창면 만춘 1리에서 출생한 고 김송순 명인은 1950년 6.25전쟁이 일어나자 1.4후퇴 때 피난 와서 속초 청호동 일명 ‘아바이마을’에 정착했다. 당시 이곳에 온 피난민들이 주로 함경남도 출신이었고, 그래서 ‘어르신’ 또는 ‘할아버지’를 뜻하는 함경도 사투리 ‘아바이’가 이 마을의 별칭이 되었다. 당연히 아바이마을에는 함경도 음식이 특히 유명해졌는데 아바이 순대, 함흥냉면 등 지금 속초에 뿌리내려 특색 있는 향토음식으로 유명세를 타는 음식들의 뿌리가 되었다. 정성수 선생은 여기서 1957년, 3남 1녀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나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어머니의 가업을 잇게 되었다.

### ‘아바이’ 마을에서 ‘아마이’의 마음으로 만드는, 함경도식 가자미식해

정성수 신애자 부부  
(가자미식해 명인 고김송순  
선생의 차남과 며느리)



정성수 선생은 수협 공판장이 있던 아바이마을에서 평생 생선 장사를 하던 어머니의 모습을 보



며 성장해서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이 남달랐다. 서른아홉에 혼자가 되어 삼형제를 키워낸 어머니는 새벽 5시만 되면 리어카를 끌고 나가 ‘고기 삼세, 고기 삼세’를 외치며 종일 돌아다녔다. 사람들이 어머니를 ‘삼세 아마이’라고 부를 정도였는데 하루도 쉬지 않았을 만큼 억센 어머니였다고 했다. 그러다가 조금씩 집에서 만들어 먹던 가자미식해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생선 장사만 하던 김송순 여사는 본격적으로 식해 제작과 판매를 하기 시작했다. 가자미나 명태 같은 생선은 손이 많이 간다. 소금에 절이고 2~3일 정도 숙성한 뒤 8시간가량 소금물이 하얗게 나올 때까지 계속 씻어야 한다.

가자미는 가을부터 봄까지 나는 게 가장 맛있지만 대체로 사시사철 계속 나오는 생선이기에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먹기 좋았고 그래서 이북이든 한국이든 바다 사람들이 많이 먹어왔다. 가자미는 생선 중에 성질이 조용한 편이고 특히 맛이 달고 독이 없어 몸이 약한 사람들이 먹으면 체력을 보강해주고 기력도 좋아진다. 발효식품이라 소화도 잘되고 환자나 노약자, 그리고 어린이 영양식에 좋다는 이야기도 있다. 식해의 ‘해’는 바다 ‘해’가 아니라 젓갈을 의미하는 ‘해’다.

낮선 타향에서 왜 그 수많은 실향민들은 먼 거리에 있는 속초 아바이마을까지 찾아와 꼭 김송순 선생의 가자미식해와 젓갈만을 찾았을까? 작은 병에 담긴 소박한 음식은 젓가락질 한 번만으로도 그리운 고향의 정경과 이야기, 몸으로 직접 스며드는 향과 맛을 보여주었을 것이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갖은 고생을 하며 자식들을 키우는 신산한 삶 속에서도 가자미식해를 통해 실향민의 마음을 보듬어주었던 김송순 어머니의 삶은 그대로 둘째 아들인 정성수 선생과 며느리 신애자 여사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생생하게 전해지고 있다. 오랜 숙성의 시간이 지나야만 비로소 그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가자미식해처럼 대를 이어 어머니의 마음을 잇고 있는 정성수 선생과 신애자 여사의 이야기에서도 그런 깊고 진득한 삶의 향을 느낄 수 있었다.

## 9) 바다와 지역, 전통이 만나는 곳의 무형문화재

2020년 9월, 부산 기장군에 있는 오구굿 무형문화재 사무실에서 동해안별신굿 초대 무형문화재인 김석출 선생의 네 명의 딸 중 셋째 딸이자 5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세습무 김동연 선생을 만나 구술조사를 진행했다.

무당이 신을 청하고 환대하고 환송하는 과정인 굿은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계속되어왔으며, 조선 시대에도 왕실과 지배층에서도 심심치 않게 행해졌다. 별신굿은 무당이 주관하는 큰 규모의 마을굿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동해안별신굿은 부산 다대포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이르는 해안 지역에서 행해지는 별신굿을 이르는 말로, 매년 혹은 몇 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마을의 평화와 안녕 그리고 풍어와 다산을 비는 형태로 진행된다.

여러 자료에 따르면 1980년도까지만 해도 100여 개의 마을이 별신굿을 벌였다고 한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와 현대화 과정 속에서 점점 굿을 중단하는 마을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동해안 별신굿의 존재마저 사라질 위기에 이르렀다. 여전히 별신굿을 벌이는 마을조차도 5년에 한 번 하던 굿을 7년 단위로, 혹은 2년에 한 번 하던 굿을 3년에 한 번 하는 식으로 점점 횟수를 줄이는 추세다.

**동해안별신굿  
무형문화재의 딸로 태어나  
5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세습무의 삶**

**김동연**  
(동해안별신굿 세습무)



김동연 무녀의 굿하는 모습

1965년 부산 충무동에서 태어난 김동연 선생은 이렇듯 급변한 현실 속에서도 동해안별신굿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었다. 동해안별신굿 초대 무형문화재 보유자인 김석출 선생과 변난호 무녀 사이에서 셋째 딸로 태어난 김동연 선생은 9살 때 어머니를 여의면서 무당으로서 한을 가슴 속에 품게 되었다. 이후 17살 터울의 큰언니를 따라 다니며 무가를 익히게 되고 13살부터 본격적으로 무당의 길로 접어들어 17살에는 처음으로 소리를 완판하게 된다. 이후 50여 년간 수많은 자리에서 무가를 뽑냈으며, 부친과 집안 형제들 모두 함께 전승해온 동해안별신굿 무형문화재 전수조교를 거쳐 2014년 1월에는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23호로 지정되어 부산기장 오구굿의 명맥을 잇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 별신굿을 가장 잘하고 싶은 사람이자 전통의 명맥을 잇기 위해 노력하는 김동연 선생과의 만남은 동해안별신굿의 역사와 장인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 10) 5대째 마을에 살며 400년 전통의 풍어제를 이어온 생애

2020년 6월, 충남 서산시 부석면 창리에서 영신제보존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배재적 선생을 만나 구술조사를 진행했다.

창리는 충남 서산시에 위치한 자그마한 어촌 마을이다. 창리 주민들은 그리 풍족하진 않지만 그리 부족하지도 않은, 인심 넉넉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하고 있다. 이 마을에는 400년 전부터 이어오고 있는 풍어제가 있다. ‘영신제’라는 이름의 이 풍어제는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고 먼바다로 배를 끌고 나가는 이들의 평안을 기원하며 진행되는 대표적인 축제이다. 영신제에서 마을 주민들이 모시는 임경업 장군은 조선 중기 혹은 말에 활동하였으며, 연평도 부근에서 조기를 처음 발견했다고 하여 조기어업의 신으로도 알려져 있다. 바다와 함께 늘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바닷가 마을 사람들에게는 수호신과 다름없는 더욱 특별한 존재다.

풍어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창리의 풍어제인 ‘영신제’는 마을의 상당과 하당 사이를 오가며 진행되는데, 이런 영신제도 빠른 현대사회의 변화와 함께 많은 것들이 변해가고 있다. 특히 ‘농토 확장’을 명분으로 박정희 정권이 추진한 간척사업이 1983년에 마무리된 이후 마을의 많은 것들과 함께 영신제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마을의 지형, 특징, 주민들의 생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된 간척사업으로 창리 주민들은 생계의 터전이었던 바다를 잃고 영신제의 행사 규모도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으며 영신제를 모시던 상당이 사라지기도 했다.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창리 주민들은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야만 했다.

**마을 문화와 전통이 뒤엎기는 격변의 시기를 온몸으로 맞이하다**

**배재적** (영신제 보존회장)



영신제 보존회장을 맡은 이후 매년 초 영신제를 준비해 진행하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영신당 하당의 내부와 외부 모습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마을의 전통이자 문화인 영신제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배재적 영신제 보존회장은 1953년 이곳 서산에서 태어났다. 5대째 서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그와의 만남은 충남 창리 영신제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 11) 우리가 몰랐던,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무형문화재의 회한

2020년 6월, 전남 여수시 거문도에서 거문도 뱃노래 전수자인 정경용 선생을 만나 구술조사를 진행했다.

1947년 거문도에서 태어난 정경용 선생은 태어나기 전 불의의 사고로 아버지를 잃었다. 홀로 아이를 키우기 힘들었던 어머니는 새아버지를 만나 재가했고 밑으로 3명의 동생이 태어났다. 초등학교를 겨우 마치고 어린 나이에 다른 섬에서 수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는 등 가난하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다. 노래를 곧잘 하는 새아버지 밑에서 어깨너머로 노래를 따라 했고, 섬에서 상이 나면 상여 소리가 듣고 싶어 상갓집에 찾아갈 정도로 소리에 심취하며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버텼다.

배 생활을 하면서는 거문도 뱃노래 선창꾼이었던 김창옥 선생과 함께 노래를 불렀던 경험이 있는데, 거문도 뱃노래가 전라남도 중요 무형문화재 1호로 지정되기 전에 선생께서 돌아가시고 말았다. 뒤를 이어 정경용 선생이 선창꾼으로 발탁되었으나 앞서 노래하던 선창꾼 김창옥 선생이 작고한 탓에 직접 노래를 배우지 못하고 녹음된 테이프를 듣고 따라 부르며 소리를 익혔다.

### 소리에 발이 묶인 거문도 뱃노래꾼의 회한과 애정

정경용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1호  
거문도 뱃노래 전수자)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와 정경용 선생의 소리가 담긴 자료들



거문도 서도리 장촌에 있는 거문도뱃노래보존회 사무실 전경. 정경용 선생은 보존회와 회원들에게 갈수록 많은 고마움을 느끼지만 한편으로 뱃노래 전승에 대한 걱정도 많다.

말단 선원부터, 통선, 여객선, 환경미화원 등 섬에서 여러 직업을 거치는 동안 늘 소리와 함께 했고 거문도 뱃노래꾼으로 활동해왔으나, 오히려 바로 그 소리 때문에 친구들처럼 원앙어선이나 외양선 등의 배를 타고 돈을 모으러 나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나이 칠십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노래는 부를 때마다 항상 좋다고 말씀하시며 천진난만한 웃음을 보였다. 또한 정경용 선생은 나이가 들고 건강이 안 좋아져 후계자를 양성해야 하는 현재에 이르러서도 오히려 소리에겐 연륜이 더해져야 하고 그럴수록 더 좋아지는 것 같다며 큰 애정을 보여주었다. 이제는 갑상선 암과 폐암 등으로 본인의 건강이 안 좋아졌고, 몇 년 전 2명의 후계자 중 한 명

이 불의의 사고로 죽은 일도 있어 앞으로 거문도 뱃노래의 명맥이 끊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그는 오늘도 거문도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소리로 노래를 불러본다.

## 12) 일본에서 더욱 관심을 가져온 우리 바닷가 사람들의 전통 의례

2020년 7월, 전남 완도군 청산도에서 뱃사람들의 임시 무덤인 초분<sup>草墳</sup> 기술자 최병천 선생을 만나 구술조사를 진행했다.

청산도는 사시사철 푸르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과거에는 ‘신선들의 섬’이라 불렸으며, 현재까지도 그 장엄한 풍경과 진한 색깔이 만들어내는 절경은 많은 이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청산도는 예전부터 어업으로 유명하기도 했다. 모든 거래가 배 위에서 이루어지는 해상 시장 ‘과시’가 자주 열렸으며, 일제강점기 때와 해방 이후에 호황을 누렸다고 한다. 다만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과시’ 문화는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청산도가 사람들에게 본격적으로 알려진 건 영화 <서편제>의 영향이 크다. 영화 주인공들이 ‘진도 아리랑’을 부르며 신명나게 걸어가는 황톳길이 바로 청산도 당리에 있다. 청산도의 돌담길과 구들장 논, 유채꽃과 더불어 아름다운 풍경이 영화에 고스란히 담겼다. 그런 청산도를 거닐다 보면 문득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가에서 짚으로 둘러싸인 무덤과 만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시신을 땅에 묻지 않고 짚으로 만든 가묘에 뒀다가, 3~4년 후 선산에 묻는 장례법인 ‘초분’으로 오래전 섬마을을 중심으로 많이 행해졌던 우리의 고유한 장례풍습 중 하나다. 배를 타고 멀리 나갔을 때 집에 초상이 나면, 상주가 돌아올 때까지 시신을 땅 위에서 보관하는 게 그 유래라고 한다. 짚으로 꾀꾀 맨 무덤 안에는 뱃사람의 간절함과 애환이 담겨 있는지도 모른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잠시 머물 듯,  
뱃사람의 간절함과  
애환이 담긴  
임시 무덤, 초분**

최병천 (초분 기술자)



영화 <서편제> 촬영지인 당리 바로 아래에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초분 모습

1950년 청산도에서 태어나 한평생을 이 섬에서 살아온 최병천 선생은 50살 무렵 처음 초분을 작업했다. 어깨너머 배운 초분을 작업한 지도 어느새 20년이 흘렀다. 오랜 지인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초분 작업했다고 톡톡히 말하는 그의 얼굴에는 주름살이 가득하다. 초분 기술자로서 많은 죽음을 가까이서 목격한 그에게, 초분이란 어떤 의미로 다가올 것인지 궁금해진다.

#### 4. 나가며

동해, 서해, 남해를 누볐던 2020년의 한여름은 내리쬐던 피약별만큼이나 구술자들의 입체적인 삶의 이야기들로 뜨거웠던 기억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적지 않았지만 그런 만큼 더욱 이 기록들이 많은 이에게 확산되어 널리 기억될 수 있다면 좋겠다.

누구나 자기만의 역사와 이야기를 갖게 된 시대에 흔히 ‘아래로부터의 역사’라고 표현되는, 이전에는 발화되지 못했고 기록되지 못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기억과 삶의 가치는 앞으로 더욱 큰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이다. 평범함 속의 비범함, 익숙함 속의 새로움, 쓸모없음의 쓸모, 비효율의 효율 같은, 얼핏 말장난 같지만 곱씹어보면 우리를 성찰하게 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사회적 기록으로서의 아카이브는 더이상 단순 홍보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 복무하는 프로젝트 이상의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연구팀은 평소 아카이브 작업을, “주관적 기억 속 공통 기억을 발굴함으로써 공동체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문화와 산업의 변화를 예비하는 작업”이라고 정의해왔다. 그리고 이 정의를 기준으로 작업을 진행하며 최대한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연구의 결과는 해양문화 관련 역사와 문화 관련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우선 활용 가능할 것이다. 나아가 기초 조사한 내용을 기반으로 향후 스토리텔링 자료로 개발하여 다양한 콘텐츠로도 활용 가능하며 수집 가능한 자료는 확보 후 박물관 자료 기증 사업으로 연계하거나 해양문화 생애사 관련 전시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연구와 별개로 최근 진행되는 관의 다수 아카이브 사업들이 1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 용해야 하는 한계 때문에 대체로 단기적이며 형식적인 측면이 있고 그래서 지속가능하지 않고 활 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 원천 자료로서 향후 활용에 방점을 두고 진행하기보다는 당장의 성과를 바라는 측면이 있다거나 여전히 학계 중심의 아카데미적 성격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비판 등을 떠올려보면 ‘휴먼스토리 연구’ 용역이 향후 여러 아카이브 사업을 기획할 때 참고할 만한 유용한 선례 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연구팀이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함께 떠올린 아프리카의 유명한 속담을 인용하며 글을 맺는다.

“노인 한 명이 사라지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



## 단행본

- 깡깡이예술마을사업단·문화예술 플랜비, 『깡깡이마을 100년의 올림 - 산업편』, 호밀밭, 2017.  
\_\_\_\_\_, 『깡깡이마을 100년의 올림 - 역사편』, 호밀밭, 2017.  
\_\_\_\_\_, 『깡깡이마을 100년의 올림 - 생활편』, 호밀밭, 2018.  
\_\_\_\_\_, 『부끄러워서 할 말도 없는데』, 호밀밭, 2019.
- 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 『(경기아카이브총서1) 지역 기록자를 위한 아카이빙길잡이 -관리편-』, 경기도사이버도서관, 2018.
- 하은지, 『영도: 타향에서 고향으로』, 호밀밭, 2019.

## 보고서

- 해양수산부, 「2019년 휴먼스토리 연구용역 추진계획 보고」, 2019.
- 해양수산부·국립해양박물관,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 1』, 국립해양박물관, 2019.  
\_\_\_\_\_,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 2』, 국립해양박물관, 2019.  
\_\_\_\_\_,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 3』, 국립해양박물관, 2020.  
\_\_\_\_\_,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 4』, 국립해양박물관, 2021.

# 원양산업 구술기록으로 보는 원양 어장 개척사

채영희 | 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서론
- 1960년대 원양어장 개척에 나선 사람들
- 1970년대 원양어장 확장을 주도한 사람들
- 1980년대 원양어장 경계를 허문 사람들
- 결론



# 원양산업 구술기록으로 보는 원양 어장 개척사

## 1. 서론

한국전쟁으로 초토화된 국가의 빈곤과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권장한 산업 중 하나가 원양어업이었다. 연근해어업에서 원양어업으로 해양공간이 확장된 계기가 된 사건은 1948년 부산 부두에서 17척의 선단 출어식과 2개월 정도로 조업한다는 당시 기사로 확인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1946년 6월 연합국 최고사령부지령으로 발효된 일본어선 조업 한계선인 맥아더 라인까지로 본다면 지금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원양어업과는 공간적 거리의 한계가 있다!<sup>1</sup> 따라서 1960년대 이후부터 원양산업으로 외화 획득이 가능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기술하고자 한다.

1960년대에 들어서 시작한 한국의 원양어업은 남태평양 사모아 기지를 필두로 대서양, 북태평양, 인도양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으로 어장을 확장해 나갔다. 그리고 1970년대에는 트롤어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트롤어선단을 구성한 여러 기업이 새로운 어장을 개척해 나갔으며, 1980년대에는 오징어 채낚기 어업, 새우잡이 등 새로운 어종을 개발하는 한편 경제성이 높은 여러 어장의

---

1 동아일보(1948.03.03.) [부산지국전화] 이십 팔일 봄날에 따뜻한 남해의 항구 부산 부두에서는 조선의 수산개발을 위하여 해방 후 첫 번으로 출범하는 십칠 척의 대선단의 출어식이 거행되었다. 이날 태극기를 휘날리며 해양의 무대로 조선어업의 기세도 드높이 원양출어로 출항하려는 십칠 척의 선단은 저물어가는 황혼의 햇발을 받으며 사척의 지도조사선과 십사 척의 작업선으로 편승된 대선단으로 제주도 서귀포에서 칠십 마일 해상 “맥아더”라인을 향하여 이 개월의 장도에 올랐다. 출발에 앞서 수산회사 앞 광장에서 “뉘”군정 장관대리 농무부장 재무부장대리 공보부장대리 수산국장 등 각계 요인과 각 지방 수산관계자 등이 모인 가운데 출어식이 성대히 거행되었다.

로 확장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 해양 산업의 토대를 만들어 갔다.

본 연구는 한국의 원양어업의 성장과정에서 타국의 어장 개척사를 당시의 자료를 통해 살펴보고 실제 어장 개척 및 조업에 참여한 인물들의 구술 자료를 통해 어장 개척의 험난한 과정을 기술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으로는 원양어업 분야 구술 가능한 대상자를 모색하고 이중 어장별, 직종별 총 12명을 선정하였다. 구술자를 다시 원양어업의 어획하는 어종에 따라 참치류 어업과 트롤류 어업으로 나누고, 어업 방식에 따라 참치주낙연승어업, 선망(旋網)어업, 트롤어업, 오징어 채낚기, 흘림 그물어업 등으로 분류하였다. 어장 구역에 따라 라스팔마스, 사모아, 포클랜드 등 이들이 출어한 어장별 경험담을 기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구술대상자를 수소문하고 직접 찾아가 경험담을 채록하였으며, 구술조사자의 항해 승선 기록을 담은 선원수첩, 당시 사진 등 생활사 자료도 함께 조사하였다. 구술자들이 소지한 자료들과 실제 당시의 신문 기사들을 살펴 자료의 객관화를 기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 산업의 발달사, 해양개척사 측면에서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원양어업 종사자들의 개인 생애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근대화 시기에 바다 위에서 사투를 벌였던 원양어업 발전기의 한 단면을 기술하고자 한다.

## 2. 1960년대 원양 어장 개척에 나선 사람들

한국의 원양어업은 1957년 ‘지남1호’의 인도양 진출을 시작으로 하여 1966년 북태평양 트롤어업 진출과 대서양 트롤어업을 시작하는 시기가 원양어업의 개척기로 본다. 1957년 주한경제조사관실<sup>2</sup> 수산부와 해무청 및 중앙수산시험장은 공동시범사업으로 (주)제동산업 소속 ‘지남1호’가 인도양으로 출항하여 다랑어 연승시험조업에 성공한 것을 필두로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원양어업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1958년 (주)제동산업은 상업 조업을 위해 남태평양 미국령 사모아-Samoa를 어업기지로 하여 조업한 어획물을 미국의 밴캠프 수산식품회사-Van Camp Sea Food Co. 에 직수출하였으며 한국 원양어업 사상 최초로 수출고를 올리기도 했다. 이후 원양 어장은 점차 확장하여 대서양과 인도양까지 진출하였으며 다랑어 연승어업은 국가 수출 산업으로 외화획득과 식량자원 확보에 이바지하기 시작한 때이다. 1958년 당시의 신문기사에서도 지남호의 출항 과정에 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양에 대한 인식의 전환점이 된다. 지남호는 1949년 미국 원조로 들어온 시험 조사

2 당시 주한 경제 조사관실의 영어명은 O.E.C(Office of the Economic Coordinator for Korea)이다.

선박으로 원명은 '워싱턴호'였다. 해방 후 이승만 대통령이 남쪽으로 가서 참치 연승 조업에 참여하라고 '지남호 指南號'로 명명한 것이다. 그러나 1950년 6.25 전쟁으로 출항하지 못하고 유류 운반선으로 사용되던 것을 1951년 제동산업이 정부로부터 불하 받아 연근해 어선, 냉동운반선으로 사용해 왔으나 별 소용이 없던 것을 심상준이 1957년 인도양, 1958년 남태평양 사모아로 가게 된 것이다. 1957년 제동산업 대표 심상준이 정부로부터 불하 받은 230톤급 지남호와 출어자금 일부를 부담하기로 하고 6월 29일 부산항 1부두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인도양 참치연승 시험 조업에 나가게 된 것이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시작이다.

당시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

### ① 指南號 單獨出漁 不遠「참치」遠洋漁擄次

年内出漁를 目標로 推進中이던 第二次遠洋漁擄出漁問題는 諸般事情에 依하여 多少遲延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三日알려진 바에 依하면 于先指楠號一支만이 單獨으로 不遠 出漁할 것이라 한다 同船은 国内修理가 一旦完了되었으나 再次追加修理中인 機關一部가完了되는대로 「사모아」島漁場으로 向할 것이라 한다. <sup>3</sup>

### ② 指南號 印度洋向發 六個月「삼치」잡이

해무청에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二十일 어선 指南號는 六개월간 예정으로 인도양의 사모아섬 근해로 “삼치”잡이를 떠났다고 한다. 이번 출장은 九0년도 원양시범어로(遠洋示範漁擄) 사업계획의 제一차 출항이라고 한다. <sup>4</sup>

### ③ 二次示範 遠洋 出漁資金 要請

十四日 海務廳에서는 第二次(第一次의 指南號는 “사모아”島近海에서 操業中) 示範遠洋漁擄漁業出漁資金으로 圓貨十三億五百萬圓과 政府保有弗 四十三萬八千弗을 融資해줄 것을 財務部에 要請中에 있는데 第二次로는 協信號 等 七隻의 漁船이 動員될 計劃이라한다. 한편 同廳에서는 現保有漁船五隻(延噸數千四百噸)의 修理計劃을 推進中에 있거니와 同修理計劃이 完成되면 二千九百二十噸의 漁獲을 期함으로 서 三十八萬九千弗을 收入할 것으로 豫想하고 있다 한다. <sup>5</sup>

1958년부터 1961년까지 4년 동안 (주)제동산업의 어선 3척이 남태평양에서 조업하였으며, 1962

3 조선일보(1958.01.04. 석간 2면)

4 경향신문(1958.01.21. 사회 2면)

5 경향신문(1958.03.15. 경제 1면)

년에는 (주)화양실업과 (주)동화에서 각각 1척을 남태평양 어장에 출어함으로써 3개 회사의 어선 5척으로 원양 조업 어선이 늘어났다. 인도양과 남태평양으로 80톤의 어선으로 수산개발자금 15만 2천달러로 구입한 '제2 지남호'가 출항하는 기사를 통해 원양산업 태동기 한국의 어선 현황을 볼 수 있다.

④ 15日 出漁式 遠洋漁船 指南號

【度南支社】현대식 냉동시설과 어구를 구비한 제동(濟東) 수산회사 소속제지남호(指南號)와제삼지남호(八〇「톤」)의 인수및 출어식이 지난十五日 장오 九時四十分 부산 제一부두에서 구(具)상공부장관 및 내외 귀빈 다수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그런데 이 지남호는 「아이·씨·에이」수산개발자금 十五만 二천 불로 도입하여 그간 일본에서 원양어선으로 개조하여 이번에 처녀 출어하게 된 것이라는 데 이 어선의 어로 목적지는 국제적으로 원양어선이 많이 집결되고 있는 인도양을 비롯하여 남태평양이라 한다. 6

⑤ 南太平洋 사모아로 「指南號」 遠洋漁擄

【釜山支社】16일 상오 9시 「제동산업주식회사」 소속 제五·제六·제七 「지남호」 三척의 원양어선이 「사모아」로 향해 부산항을 떠났다. 경제개발 五개년계획 사업 첫 「케이스」로 떠난 이 三척의 어선은 「사모아」 근해에서 현재 조업 중인 八척의 한국어선단과 합류, 「삼치」잡이에 국제 원양어선단과 어깨를 겨루게 될 것이다. 7

1964년에는 (주)제동산업 소속 '제1 태평양호'가 버뮤다섬 근해에 출어하게 됨으로써 조업 어장이 대서양으로까지 확대되었다. 1966년에는 미개척어장인 인도양에 진출하였고 같은 해 5월 한국수산개발공사가 이불어업차관자금으로 1965년에 도입한 스탠트롤어선 '제601 강화호'가 라스팔마스 근해에서 시험조업을 실시하였다. 이후 트롤 어선 7척을 추가하여 총 8척이 인도양 어장에 진출함으로써 원양트롤어업이 시작되었다.

한편 1966년 3월 수산청이 발족하면서 한국의 원양어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수산청의 개청과 동시에 수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수산진흥법을 제정, 공포하고 기초적 단계에 머물러 있던 원양어업의 다각적 발전을 도모하던 시기가 있었다.<sup>8</sup> 1966년 7월 북태평양어업시험조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부산수산대학 실습선 '백경호'와 (주)삼양수산 소속 저인망어선 10척으로 선단을 꾸려 각각 북태평양과 북해도 근해에 파견하여 해양조사 및 시험어업을 실시하도록 하

6 조선일보(1959.04.16, 조간3면)

7 조선일보(1963.02.17, 조간7면)

8 조선일보(1963.02.17, 조간7면)

였다. 북태평양 조사단의 시험어업이 성공함에 따라 비로소 북태평양까지 점차 어장을 확대하였다 (수산청 1996: 458).

1967년에는 (주)삼양수산의 어선이 북태평양에서 모선식 선단조업을 실시하여 북태평양에서의 트롤어업의 가능성을 입증하였고 같은 해 12월 (주)신흥수산이 인도네시아 근해에 트롤어선 10척이 출어하였다. 이로써 한국의 원양어업은 다랑어 연승어업과 트롤어업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출어해역도 북태평양, 남서태평양, 대서양 및 인도양으로 확대되었다. 해외어업기지도 태평양 4개 항을 비롯하여 대서양 6개, 인도양 2개, 모두 12개 기지로 늘어났으며, 출어척 수는 180척, 선원 수는 4,210명, 어획량은 4만 484m/t, 수출액은 1,196만 9,000달러의 실적을 올리는 발전을 이루었다 (수산청 1996: 463).

1968년에는 북태평양 트롤어업이 본격적으로 출어 조업하게 되었고 1969년에는 남미 수리남 근해에서 새우트롤어업의 시험조업이 실시되었다. 1970년에는 남미 수리남 근해에 새우트롤어선이 본격적으로 출어함에 따라 출어척 수는 274척으로 증대되었고 선원 수는 6,972명, 원양업체 수는 36개사, 해외기지는 14개소에 달하였으며 8만 9,621m/t의 획기적인 생산으로 3,766만 3,000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렸다. 1971년에는 가다랑어 채낚기어업이 개발되었고 1973년에는 명태 필렛<sup>Fillet</sup>을 개발하여 수출하게 됨으로써 어획물을 전량 내수용으로 반입하던 북태평양 트롤어업이 수출산업으로 탈바꿈하였으며 한국 원양어업의 활로를 개척하였다.

이처럼 1966년부터 북태평양에서 명태를 대상으로 하는 북양원양 트롤어업을 시작으로 1960년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원양어업은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산업고도화 시기에 그 어획물이 국내에 반입됨으로써 국민 단백질 공급의 중요한 역할을 함과 동시에 국가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1980년대에 들어와 급성장한 북태평양의 오징어 유자망어업과 뉴질랜드 및 포클랜드의 오징어 채낚기어업이 시작되면서 원양산업은 활력을 얻었으며 이를 계기로 대규모 원양기업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 3. 1970년대 원양어장 확장을 주도한 사람들

#### 1) 대서양 모로코-모리타니아 어장에서 조업한 사람들

1972년에 모리타니아는 영해의 폭을 12해리에서 30해리로 확장하여 공해 문어어장의 태반을 자국의 관할 수역으로 포함시켰고, 모로코도 1973년에 70해리 어업전관수역을 선포하는 등 북서아프리카 연안국들이 어업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1974년 한국과 스페인 정부는 어업협정을 체결

결하고 양국은 수산업 발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협정된 어항에서의 어선의 출입항을 자유롭게 하고, 선박과 선원에 대하여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한다는 약정을 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스페인령 사하라 어장에서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기틀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76년에 스페인이 지금까지 관할해 오던 스페인령 사하라를 북위 24도를 경계로 그 이북은 모로코에, 그 이남은 모리타니아에 분할해 줌으로써 우리나라 트롤선은 사하라 어장을 잃고 정상 조업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 정부당국은 모로코와의 국제어업협력 추진에 외교적 조치를 촉구하고 있었다. 한국원양어업협회 박원빈 회장은 1975년 6월 말경 모로코를 방문, 라야시 모로코 수산청장과 그동안 추진해온 한국과 모로코간의 어업협력방안의 조기결실을 촉진하는 데 합의하였다. 그러나 모로코 당국은 수산업 장기발전계획으로 연간 5만 톤의 연안 정어리 생산량을 1980년까지 50만 톤으로 확대할 계획을 추진 중이었으며, 우리나라에 대하여 어로기술 및 어로장비의 협력과 지원을 요망하였으나, 협력사항이 단시간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 (1) 모리타니아와 민간어업합작회사 설립

사하라 어장의 75%를 모리타니아가 점유하게 되자 대서양트롤 출어사들은 한국과 모리타니아와의 민간어업합작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1976년 10월에 출어사 회의를 갖고 자본금 2,000만 원 규모의 국내회사(대서양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모리타니아는 당시 30해리로 되어있는 전관 수역을 200해리로 확대하려고 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합작회사와 입어권은 별개의 문제로서 합작회사의 자본금 전액을 일시에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조건을 내세워 입어를 지연시키고 있었다. 어장을 상실한 우리나라의 트롤선들은 조업 중단과 불법조업을 번갈아 가며 할 수밖에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양국의 경비정에 나포되는 선박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모리타니아 정부는 1977년 2월에 들어 자국의 연안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나라 원양어선을 무차별 나포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원양어선 3척이 모리타니아 경비정에 의해 영해 침범 혐의로 나포되었고 그 중 2척은 약 10만 달러의 벌과금을 물고 풀려났으나, 1척은 선원 27명과 함께 선박을 20여 일간 억류하였다. 1975년에도 1척을 나포하였고, 1976년에는 6척을 나포하여 적당 9만 달러씩 약 50만 달러의 벌과금을 징수하고 석방한 사례가 있었다.

이와 같이 모리타니아는 한쪽은 협상, 또 한쪽은 어선 나포 등 양면 작전을 쓰며 합작회사 설립 등을 지연시켰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민관합동사절단의 현지 파견과 모리타니아의 민간경제사절단을 국내에 초청하는 등 적극적인 교섭을 전개한 끝에 한국의 대서양개발과 모리타니아의 세심SECIM그룹 간에 민간합작회사인 코마코프 COMACOP의 설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회사의 사장에는 하썬이, 부사장은 대서양개발 사장인 김윤근이 선출되었다. 코마코프사는 한국어선의 모리타니아 연안조업에는 직접적인 관련을 하지 않으며, 한국어선이 양륙하는 어획물을 가공 처리하여

판매하는 일을 전담하였다. 당시 이곳 어장은 어황이 좋아 11월에 첫 번째로 입어한 대림수산 소속 180톤급 빙장선의 경우 5일간 조업에서 문어, 오징어 등 저서어 26톤을 어획하여 1일 평균 5톤의 좋은 어획 실적을 올렸다.

그러나 1977년도의 입어 기간이 만료되는 1978년 1월 17일 이후의 입어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53척의 조업선은 모두 철수하여 라스팔마스에서 대기할 수 밖에 없었으며 모리타니아에의 어업협력사업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1978년 1월 11일 박원빈 원양협회장과 윤기원 동방원양개발공사 사장은 모리타니아정부와 3개월 간의 끈질긴 협상 끝에 같은 해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12월 31일까지의 1978년도 쿼터량은 선박톤수 17,000톤으로 합의하고 입어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라스팔마스에서 대기 중이던 46척의 트롤선은 일제히 모리타니아 어장으로 출어하였다.

그러나 모리타니아 측은 1979년 4월 15일을 기해 1978년도 입어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우리 어선들을 연안 12해리 외측으로 축출하고 어로 감시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무차별적으로 나포하여 벌과금이 납입될 때까지 음식물 공급을 중단하는 등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9년도 입어교섭이 마침내 타결되었다. 입어조건은 입어어선 톤당 230달러의 입어료와 0.8톤의 선어를 의무적으로 양륙한다는 조건이었다. 대서양개발은 1979년 8월 4일 모리타니아 정부로부터 모리타니아 연안어의 재입어를 승인받고, 동 월 7일 계약서에 서명하였다. 대림수산, 동방원양개발공사, 남양사 등이 그들 나름대로 현지 회사들과 입어교섭을 추진해 왔으나, 모리타니아 측의 무리한 입어조건 제시로 교섭은 매년 결렬되고 있었다. 연안국의 요구는 노골화되어 1980년에 14척이 연안국에 나포돼 230만 달러의 벌금을 물었으며, 3척은 135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고 모리타니아와 모로코에 억류되기도 했다.

## (2) 한국-모리타니아 어업협정 체결

수산청은 김종수 수산청장을 단장으로 한 해외어업교섭단을 1980년 11월 10일 모리타니아 등 대서양 연안국에 파견하여 정부차원에서의 모리타니아, 모로코 등과 일련의 수산외교를 펴기로 하였다. 이 교섭단은 모로코와 모리타니아를 방문하여 회합을 갖고, 대상국의 수산행정 책임자를 초청하는 등 다각적인 해외교섭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1981년 1월 모리타니아의 수산해운경제성장관(소우마레 오우마)이 김종수 수산청장 초청으로 내한하여 2차에 걸친 회담을 갖고 한국어선의 모리타니아 입어와 모리타니아 수산개발에 한국 측이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1982년 5월 한국정부는 대서양 라스팔마스를 기지로 출어하고 있는 우리나라 트롤선(71척)의 안전 조업과 모로코 및 모리타니아 등 연안국과의 어업협력을 강화키 위해 김종수 수산청장과 황정연 원양어업협회장으로 구성된 민관교섭단을 현지로 파견했다. 이후 1983년 11월에 어업협력협정을 체결하고 1984년 11월에 한국-모리타니아 어업실무회담을 통해 추가경비문제와 어업기간과

입어톤수의 조정을 논의했다. 1985년 9월 3차년도 입어교섭에서 모리타니아 측은 선박수리소 건설 및 냉동업 등의 합작사업 참여와 자국의 수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에 따른 입어 허용 방침을 표명했다. 그리고 한국이 초청하여 실시하고 있는 수산기술자 훈련을 확대,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1987년에 들어서면서 모리타니아는 자국의 어선단을 보호하고 수산자원보호명목으로 그동안 입어료만 받고 입어를 허용하던 단순입어허가제 대신 모든 외국어선에 대해 합작 또는 용선 방식의 입어를 요구하였다. 한국은 합작업체인 코마코프사의 실패 사례로 인해 사업성공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1987년 7월 1일 이후 이 어장에서 완전 철수하였다. 당시 이 일과 관련된 신문자료는 다음과 같다.

#### ⑥ 大西양에 韓國漁場

- 우선 25隻을 配置
- 「리베리아」와 遠洋漁場基地設置에 合意
- 技術協調도 밝아

우리나라 수산사상 처음으로 西 「아프리카」에 大西양원양어로기지를 설치하게 되었다. 6일 韓國수산개발공사에 의하면 동사사장 李翰林씨는 「리베리아」공화국 「토바트」부통령·국무장관 등 고위층과 절충하여 오는 9월부터 수도 「몬로비아」에 우리나라 원양어로 기지를 설치, 운영키로 합의했다고 한다. 「몬로비아」에는 「리베리아」냉장회사 등 우수한 시설이 있는데 장차 「리베리아」인에 대한 어로법교육 등 기술협조의 전망이 밝다고 한다. 「리베리아」는 南韓보다 큰 면적에 인구는 1백30만 명의 흑인 공화국이다. 수산개발공사는 올해 伊·佛어업 차관으로 건조, 인수한 40척의 원양어선 중 15척만을 「사모아」에 배치하고 나머지 25척은 大西양에 배치할 계획이며 66년도에 인수할 51척도 대부분 大西양어장에 투입할 예정인데 동공사는 참치잡이로 금년 말까지 1백35만「달러」를 벌어들일 것이라 한다. 「리베리아」의 유력지 「데일리리스너」와 「리베리안스타」는 한국의 어로 가지설치 기사를 톰으로 보도했다. 9

#### ⑦ 大西양遠洋漁業 販路開拓 잘 안돼

【釜山】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판로개척이 잘 안된 탓으로 그 제품이 염가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아 이의 시정책이 촉구되고 있다. 8일 대서양 「라스팔마스」 기지에서 귀국한 수산개발 공사소속 “601 강화호”(1천5백「톤」, 선장 廉柄善) 선원들에 의하면 현지에서의 도미·민어 등 底棲漁의 우리나라 제품가격은 「톤」 당 1백50\$인데 비해 동일한 日本제품은 시장개척이 잘 돼 5백\$에 팔리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강화호는 대서양에서 잡은 도미·민어 등 냉동품 1백여「톤」을 釜山水産센터 入庫, 우리나라 漁業史上 처음으로 國內소비케 되었다. 10

9 동아일보(1965.08.06. 사회 3면)

10 매일경제(1967.09.13. 경제 4면)



### (3) 모로코 해역에의 입어조업

1976년 2월 스페인령 사하라의 영유권이 스페인으로부터 모로코(25%)와 모리타니아(75%)에 분할 귀속되자, 양국은 영해수역을 12해리에서 70해리로 확장하였다. 따라서 당시 스페인령 사하라 어장에 진출해 있던 우리나라 100여 척의 원양트롤선들은 어장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이에 따라 이때부터 동해역 출어선사들은 모리타니아와 모로코와의 어업협력 및 합작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원양업계의 대 모로코 진출을 위한 상담회가 1979년 2월 21일 수산청 회의실에서 이택근 주 모로코 대사 주재로 열렸다. 대서양 출어 20여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상담회에서 이 대사는 1979년도 모로코정부의 수산시책과 앞으로의 어업협력 방안을 설명하면서 모로코는 수산 자원은 풍부하나 어업기술이 낙후되어 있어서 기술습득을 위한 합작사업을 바라고 있으므로 이러한 방향으로 진출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모로코 정부는 합작에 의한 입어일 경우 3개월의 시험조업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3개월을 더 연장해 주고 있으나, 합작 아닌 입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고 합작을 하되 재력 등 신뢰도가 높은 업체와 제휴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합작 승인을 얻어 본 해역에 진출한 어선은 북양수산, 진양어업, 동수, 대진해운, 금강수산, 세양수산 등 6개사 17척이었으며, 관할수역 입어업체는 동원수산, 진양어업, 동원어업, 성양수산 등 4개사 10척이었다. 또한 동방원양개발공사는 1979년 12월 모로코와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여 1980년부터 2척의 선박을 모로코 수역에 진출시키기로 했다. 모로코 정부는 1979년까지 입어허가로 외국어선의 조업을 허용해 왔으나, 1980년부터는 합작투자를 통한 입어조업만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모로코 수역에서의 조업을 위해서는 합작투자가 불가피한 실정이 되었다.

그러나 당시 합작을 한 어선들도 조업구역 위반과 망목규정 위반 등을 문제삼아 나포하였으므로 합작선 조차도 조업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그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면서 예망을 한다면, 사실상 어획 가능한 고기가 거의 없었다. 따라서 합작을 꺼리는 한국어선들은 1982년 이 어장에서 완전히 철수하였다.

## 2) 이종순 선장의 모로코 진출기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대서양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시기는 1965년부터였다. 1965년 시험조업에 성공한 후 대서양 카나리아제도 라스팔마스를 전진기지로 하여 대서양 시대를 열었다.

대서양을 주름잡았던 한국 원양어선은 1976년 3월 1일 사하라 어장이 스페인령에서 모로코와

모리타리아령으로 이양되면서 큰 타격을 받았다. 당시 사하라 어장에서 조업한 한국 원양어선은 130여 척에 이르렀는데 모두 영해 70마일 밖으로 추방된 것이다. 1975년 후반 라스팔마스의 모로코 해역에서 조업했던 이종순 역시 타격을 입어 조업 2년 여 만에 조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이종순은 일본 대양수산의 제안으로 선적을 일본 대양수산으로 전환시켰다. 배의 이름을 삼원 7호에서 707벤즈로 바꾼 뒤 모리타니아 해역에서 조업을 계속했다. 국제적 변화에 발빠르게 움직였던 이종순은 사하라 어장에서 제3국 선적으로 전환해 조업을 재개한 한국 최초의 선장이 되었다. 모로코 정부의 제안에 따라 일본 선적으로 모로코 해역 6마일 밖에서 조업을 재개했지만 어획량이 적어 난항을 겪었다. 이종순은 부득이 연안 가까이에서 조업했는데, 모로코 당국 경비정의 단속에 걸려 한동안 모로코에 감금되기도 했다. 당시 감옥이 없어 호텔에 감금 수용되었던 이종순은 감시원들의 암묵적인 요구를 수용해 별 탈 없이 조업을 재개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선적 국가였던 일본의 외교적 노력도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 3) 이삼열 선장의 모로코에서 탄 두 번째 송출선

1979년 6월 귀국 후 국내에서 1년여의 시간을 보낸 이삼열은 1980년 10월 모로코 송출선에 올랐다. 원래 모로코는 자체적으로 입출항 능력을 갖추기 힘들어 스페인 라스팔마스를 기지로 삼고 있었는데, 80년대에 들어오면서 서서히 자체적인 입출항 기지를 갖춰가기 시작했다. 이삼열이 1등 항해사로 송출된 모로코에서는 한국인 선원 24~25명과 모로코 선원 5명이 같은 배를 타게 되었다. 당시 선장을 제외한 선원들은 이삼열이 직접 모집했다고 한다.

모로코와 합작한 배를 운영하던 선장은 조업 실적이 그리 좋지 않았다. 선장이 이전에 모로코 해역에서 1등 항해사 시절에 썼던 조업일지와 실제 조업 상황이 맞지 않아 원하는 어종을 어획하지 못하고 잡아만 잡았고 갑판장이 너무 무거운 어구를 쓰고 있으니 바꿔야 한다고 말했지만 선장은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는 바람에 조업 실패가 잇따랐다. 이런 상황에서 선장은 갑자기 가정 문제로 일시 귀국해버렸다. 오랫동안 배를 놀릴 수 없었던 모로코 사장은 이삼열에게 한 항차만 선장으로 조업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가 모집해온 선원들과 갑판장이 모두 일항사가 선장을 하면 조업하러 나서겠다고 하는 바람에 어려운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는 사장에게서 1항 동안의 조업 실적이 나쁘더라도 문책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아냈다. 이렇게 이삼열은 선장이라는 직책을 처음 맡게 되었다.

이삼열이 그린 대서양 어장 분포도에는 모로코와 모리타니 사이에 '서사하라'가 선명하게 적혀있다. 그만큼 당시에는 위험하고도 중요한 지역이라 기억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열흘 정도 오징어 잡이로 성과를 올렸지만 곧 그 해역을 벗어나야 했다. 통신국장이 위험한 지역이니 벗어나라고

연락을 해왔기 때문이다.

조금 더 아래쪽으로 이동한 이삼열은 서대를 잡기 시작했다. 서대는 스페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생선으로 가격도 꽤 비싸서 톤당 3,600~4,000달러 정도였다고 한다. 물론 오징어에 비하면 살짝 저렴한 가격이었지만 서대도 하루에 1.5톤~2톤 정도 어획하면서 하루 어획고를 맞춰갔다.

#### 4) 장운용 선장의 모리타니아 진출기

장운용은 1년 계약으로 첫 원양어선에 승선해 라스팔마스로 가 모리타니아 해역에서 조업했다. 고생을 감내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장운용은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해 중도에 선원들 모두 하선해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대서양으로 진출했던 시기는 1967년부터였다. 1970년대 초, 중반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당시 대서양으로 진출한 원양어선은 100여 척을 능가했다. 그러나 1976년 대서양 사하라 어장이 스페인령에서 모로코령으로 전환되면서 우리나라 원양어선은 일대 타격을 맞았다. 모로코와 수교가 없었기에 한국 원양어선은 모두 사하라 어장에서 추방되었던 것이다. 1978년 모로코와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상황은 다소 완화되었지만,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이 발효되면서 조업 가능 구역이 영해 200해리 밖으로 재조정되어 또다시 큰 타격을 받았다.

1977년 이후 각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정으로 우리나라 원양어업이 일대 타격을 받았던 시기에 모리타리아로 갔던 장운용은 비싼 입어료와, 어획량을 제한하는 쿼트제, 어종과 어획량을 감시하는 코스트 가드 제도로 어려움을 겪다가 선사가 부도가 나면서 선원들 모두 곤경에 처하게 된 것이다.

국제 해양법으로 국제해양질서가 종래와 달리 재편되면서 연안국들의 어업 규제는 강화되었고 입어료가 상승하는 것은 물론 입어조건도 까다로워 간혹 입어권 없이 영해 내에서 조업하는 경우도 있었다. 입어권 없이 영해 내 조업을 하다 적발되면 총격을 받기도 하고 나포되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임금체불로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귀국하게 된 장운용은 다음 해인 1983년 태창수산의 태창 85호를 타고 다시 모리타니아로 갔다. 태창 85호에 승선한 선원은 30여명으로 주어종은 문어, 갑오징어, 오징어, 돔 등이었다.

승선 당시 장운용은 기관사로 업무 시간은 정해져 있으나 조업이 시작되면 주어진 업무시간과 상관없이 어장에 투입되어 양망을 하고, 어획한 고기를 선별해 저장하는 일까지 두루 해야 했다. 장운용은 모리타니아에서 2년간 조업 후 태창 85호는 뉴질랜드로 갔다. 모리타니아의 입어권이 비싼 데다가 할당된 어획량이 적어 수익을 올릴 수 없었기에 새로운 어장을 찾아 나선 것이다. 조업을 하

다보면 허용된 어종 외 다른 어종을 잡을 수도 있었으나, 모리타니아 감시원이 승선해 어종과 어획량을 감시했기에 조업에 난항을 겪었다고도 했다.

## 4. 1980년대 원양 어장의 경계를 허문 사람들

### 1) 오만-파키스탄 어장 개척사

오만 등 아라비아 반도 근해어장은 1977년 오만정부와 한국 민간기업간에 어업계약이 체결되면서 1978년부터 조업에 들어간 것이 그 시초이다. 이후 점차 조업어선이 늘어나 1987년에는 7척이 조업하기에 이르렀으나, 어획 부진으로 인해 조업을 일시 중단했다가, 1994년경에 어장성이 양호한 수역에서의 어업 허가를 받아 한국해외수산 외에 6개 업체 9척이 조업하기에 이르렀다.

파키스탄 해역은 1979년 한국과 파키스탄의 민간합작사업으로 시험조업의 첫발을 내디뎠으며 1983년 삼원어업과 파키스탄 P.K. FISHING COPLATION CO. 간의 어업협력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본격적인 조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이후 1984년에는 4척이 조업을 하여 1986년까지 지속되었으나, 어획실적이 저조하였음은 물론 조업시 유류수급이 불가하여 아랍에미레이트 UAE 나 인근 국가에서 공급받았다. 이로 인해 조업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져 결국 채산성의 결여로 그 이후 철수하게 되었다. 또한 1991년에도 4척이 출어하여 1995년까지 조업이 이루어졌으나, 어획 부진으로 지속되지 못하였다.

### 2) 김금열 선장의 오만 개척기

한국해외수산의 '201금봉호', '202금봉호' 두 척이 지중해 연안에서 조업을 하다 돌아와서 1977년 7월부터 최초로 오만 조업이 시작되었다. 그 이전에는 일본인들이 오만 어장을 조업을 하고 있었고, 그들이 철수하면서 한국해외수산에서 오만 어장으로 들어간 것이었다. 오만 조업 초창기에는 주요 어종은 갈치와 참돔이었다. 갈치는 머리와 꼬리를 잘라 일부는 우리나라로 가지고 오는데 드레스를 한 것은 거의 다 일본에 수출했다. 갈치는 일부 수출했고, 돔은 전량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왔다.

1981년에 201호를 인수인계 받아 수리해서 오다가 인도양에서 중동 두바이 쪽으로 들어가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데 배가 화재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호가 불이 나면서 나온 보험금으로 한국해외수산은 새 배를 인수하게 되었다. 801, 808호 두 척을 더 인수하고 그 다음에 또 한 척을 더 인수했는데 그 배가 바로 '오로라 1호'였다. 그 오로라 1호에 김금열은 1983년 2항

사로 승선을 하였다.

### 3) 김형돌 기관장의 파키스탄 조업기

6년간 아프리카 해역에서 조업을 마친 김형돌은 1997년 1년 계약으로 파키스탄으로 갔다. 김형돌이 승선한 배는 파키스탄 선적 트롤어선으로 주 어종은 갈치였다. 당시 김형돌은 선장, 기관장과 함께 파키스탄인, 중국인, 조선족들이 함께 갈치 잡이 조업을 했다고 하는데 승선했던 배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다.

원양어선에 승선 해 갈치 조업은 처음이었지만 트롤 조업을 해왔던 김형돌은 조업 방식이 유사해서 조업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다고 했다. 파키스탄 해역은 1979년부터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진출했던 곳이지만 다른 해역에 비해 그리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는 아랍지역의 내분으로 조업 환경도 열악했다. 파키스탄 배에 승선했던 김형돌은 당시 파키스탄에 진출했던 한국 원양선사들의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지만, 파키스탄에 진출했던 한국 원양선사의 경우 기지장이 현지에서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을 정도로 그 고충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사고 중 상당수는 내륙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슬람문화에 대한 무지로 인해 빚어진 사고도 더러 있었다고 했다.

## 5. 결론

1960년대에 본격적으로 발전 궤도에 오른 원양어업은 정부의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아래 급속도로 성장하였으며 1970~80년대에 크게 융성하였다. 멀고 먼 광활한 대양에서 태극기를 휘날리며 생산 활동에 전념하는 원양어선 종사자들은 외화를 획득하고 국가 재건을 위한 국부를 창출하는 국가 경제발전의 공로자였다. 원양어업 선원들은 한반도를 벗어나 오대양으로 배를 타고 나아가 낯선 외국에서 만난 이국인들과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한 다양한 갈등을 겪으면서도 세계 곳곳을 기항하면서 이국의 문물을 수용하고 전파하는 등 문화 교류의 선도자로서의 역할도 하였다.

또한 원양어장의 개척 및 확장을 통해 국제외교관계를 더욱 폭넓게 확장하였다. 당시 수역 국가의 대부분이 한국과 국교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양어업 관련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나서 어업 허가를 승인받거나 어업협력사업을 체결하였다. 그러므로 정부 공식기관을 통한 외교 활동에 못지 않게 민간인들 간의 교류가 증시되었으며 그중에서도 원양어업활동을 통한 국가 간 유대관계

가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은 실제로 외교면에서의 큰 효과를 거두었다(수산청 1996: 459; 한국원양어업협회 1990: 86-88).

해양을 통해 우리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윤명철(2000)은 “해를 이용하여 동일한 문화를 교류하고 교섭할 때에는 모두 동일한 해양을 공유한다. 그런데 바다에는 선을 그을 수가 없고, 담장을 쌓을 수도 없다. 그래서 국경이 분명하지 않다. 다른 나라로 가고자 할 때에도 육지처럼 인접한 국가의 영토를 반드시 통과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정치적으로 제약이 훨씬 덜하고 교류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라고 했다. 최근 동아시아 해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다를 둘러싼 여러 분쟁은 동아시아의 질서가 더 이상 대륙 중심의 영토 확장이 아니라 이제는 해양을 중심으로 국제 질서의 재편이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음을 말해주는 징표임을 확인할 수 있다.

구술자료 조사과정을 통해 원양어업 발전기의 어장 개척사의 한 단면을 살피면서 해양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관점과 이 바다에서 전개되는 인간의 모든 행위를 다시 보는 시야가 필요한 때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양어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한 이들의 구술 채록 작업을 통해 이들의 개인적인 어업 경험 뿐만 아니라 한국 원양어업의 역사의 한 단면을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초창기 원양 관련 산업의 발달사, 원양개척사를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바다 위에서 그들의 생사를 건 도전과 조업 활동에서 조우한 갖가지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이 원양어업의 발달 과정이며 역사의 산 증거이기도 하다. 한국의 근대화 시기에 거친 대양을 가르며 험한 파도를 헤치고 조업을 나섰던 원양어업 종사자들의 개인 생애사를 발굴하여 원양어장 개척의 한 단면을 구현하였다.

## 참고 문헌

### 논문

채영희·황경숙, 「원양어업 종사자의 구술 자료에 나타난 해양 인식」, 『동북아시아문화연구』49,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6, pp.65-78.

### 단행본

김영승·문대연, 『원양어장개발 50년 : 어구개발 및 자원조사를 중심으로』, 국립수산물과학원, 2007.

농림수산물식품부 원양산업과, 『원양어업 50년 발전사』, 농림수산물식품부, 2008.

부산수산대학교오십년사편찬위원회, 『부산수산대학교오십년사』, 부산수산대학교오십년사편찬위원회, 1991.

부경대학교 어업학과70년사편찬위원회, 『부산수산대학교·부경대학교 어업학과70년사』, 부산수산대학교 어업학과 총동창회, 2012.

수산청, 『수산청삼십년사』, 수산청, 1996.

윤명철, 『한국해양사』, 학연문화사, 2003.

이병기, 『바다, 그 파란 신비에 매료되어』, 우양 이병기 교수 정년퇴임 기념논문집 발간회, 1996.

정규성, 『北洋開拓』, 코스모스백화점, 1975.

한국원양어업협회, 『한국원양어업삼십년사』, 한국원양어업협회, 1990.

\_\_\_\_\_, 『(통계로 본)한국 원양어업50년사:1957-2006』, 한국원양어업협회, 1990.

한규설, 『(어업경제사를 통해 본) 한국어업제도 변천의 100년』, 선학사, 2001.

### 신문기사

경향신문 1958.01.21.

동아일보 1948.03.03., 1965.08.06.

매일경제 1967.09.13.

조선일보 1958.01.04., 1959.04.16., 1963.02.17.

# 바다 사람의 기억으로 읽어가는 역사

『바다 사람의 생애사』1·2·3  
발간의 의미

허영란 | 울산대학교 역사문화학과

- 바다 사람의 구술
- ‘시급함’을 넘어 역사쓰기
- 구술자료와 맥락 정보
- 구술발간물의 성격
- 맺음말 - 여러 학문들의 협업 모색



# 바다 사람의 기억으로 역어가는 역사

## 1. 바다 사람의 구술

바다는 오랜 세월 생업의 현장이었다. 사람들은 어업과 수산업 및 관련 가공업 등에 종사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고, 교역 확대와 기술 발달에 따라 해운과 해양플랜트 등 바다를 무대로 한 산업은 지금도 확장되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어류와 패류, 해조류 등 수산물 소비량은 세계 1위이다. 2019년 현재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1인당 69.8kg으로 그 분량이 쌀 소비량에 버금간다. 소득이 향상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01년도에 52.8kg이었던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sup>1</sup> 그렇지만 각종 수산 제조업이나 해양 관련 산업을 제외하면, 2021년 현재 어업이 총부가가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6%에 지나지 않는다.<sup>2</sup>

오늘날 해양자원 개발이나 해운, 관광 등의 분야에서 바다는 매우 중요한 경제 활동 무대이고, 전국의 해안선을 따라 촘촘하게 들어서고 있는 매력적이고 웅장한 카페와 식당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어업이 위축되는 것과 비슷한 정도로 바다와 포구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역사적 삶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는 드물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아마 어촌

---

1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쌀 소비량(70.1kg)과 비슷하고 육류 소비량(68.1kg)보다는 조금 많다. 2013년 기준으로 1인 1일당 어패류 소비량은 한국 145g, 일본 133g, 중국 95g, 프랑스 92g, 뉴질랜드 61g, 노르웨이 143g, 스페인 116g, 미국 59g으로 한국이 제일 많다.(통계청, 『어업생산통계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17](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17))

2 통계청 『어업생산통계조사』와 한국은행 『국민계정』에 따르면 어업 생산액은 9조 2690억 원이고 총부가가치 생산 비중은 0.16%이다.([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16](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16))

과 어민보다 먼저 그곳에 쌓여 있는 기억과 이야기가 사라질 것이다. 사람들은 소멸의 위기에 처한 뒤에야 비로소 그 대상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다. 사라져가는 어촌과 어민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전승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은 전통적인 어업의 명맥이 끊어지고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어민들의 고심이 그만큼 깊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그런 관심조차 받지 못한 채 잊어버린 다양한 생활의 장면과 장소를 생각하면 뒤늦은 관심이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바다 사람의 살아온 이야기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구술사(oral history)를 선택한 것은 필연적이다. 구술사는 엘리트 중심의 전통적인 역사학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아래로부터의 역사’ 또는 ‘보통사람의 역사’를 지향하며 출발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확산된 구술사는 생존해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경험한 체험과 기억을 기록하고 후세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주목받았다. 구술을 통해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체험한 이야기의 전달자가 될 수 있다. 공식 문서나 권위 있는 기록을 남기기 어려운 분야일수록 구술사는 더욱 중요하고 효과적인 기록의 방법이다. 구술사는 비전문가도 접근하기 쉬우며 다양한 영역에서 과거를 재현하는 다양한 관점을 보여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역사는 있으되 기록은 없는’ 바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세 권의 책자로 세상에 나왔다.

국립해양박물관은 2018년부터 ‘휴먼스토리 조사’를 통해 채록된 구술자료를 정리하여 2019년과 2020년에 『바다 사람의 생애사』 1~3권을 발간했다. 1권은 해양 분야 12명, 수산 분야 12명, 2권은 연안어업 분야 12명, 3권은 산업·환경 분야 6명, 전통음식 분야 2명, 민속 분야 4명 등 12명의 이야기를 수록했다. ‘생애사’라는 제목으로 알 수 있듯이 분야를 구분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구술자들의 생애 전반에 관해 인터뷰를 진행한 다음 구술 내용을 비교적 읽기 좋게 정리하는 방식을 택했다. 구술은 원론적으로는 구술자 개인의 생애를 넘어서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은 대부분 구술자가 체험한 범위 안에서 ‘과거’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고 이어서 구술자가 처해 있는 현재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 2. ‘시급함’을 넘어 역사쓰기

한동안 많은 구술사 프로젝트는 사라져가는 것들을 서둘러서 기록해야 한다는 시급성의 압박을 받았다. 20세기 말 이래 가속화된 경제적·사회적 변화로 인해 “매일 없어지는 물증과 증인은 우리에게 탁상의 논의를 허용하지 않는다.”(박현수 2005: 24)는 위기의식이 구술사의 도입을 서두르게 만들었던 것이다.

2000년을 전후해서 본격적으로 도입된 구술사는 각 분야에서 구술사 아카이브 프로젝트로 이어

졌다. 국사편찬위원회, 대통령기록관, 현대한국구술자료관(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성과포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서울역사편찬원 등 여러 공공기관들이 앞 다투어 구술사 아카이브를 만들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구술자료의 생산을 둘러싼 다양한 논점이나 구술을 활용한 연구와 역사 서술에 대해 논하기에 앞서, 구술자들의 자연수명이 다하기 전에 구술 아카이브의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시급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였다. 다른 한편으로 구술사가 확산되면서 개인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는 미디어 콘텐츠를 비롯해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한 방법이자 재료로 다양하게 활용되기 시작했다. 또 전국 각 지역에서는 지역 주민의 체험과 기억을 기록하는 방법으로도 구술사를 선호했다. 약간의 훈련을 거쳐 비전문가도 면담자가 될 수 있으며 어떤 주제에 대해서든 누구라도 구술자로서 자기의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의 구술 인터뷰를 정리한 다양한 책자들이 대거 출판되었으며, 영상작품이나 예술작품의 원형으로서도 구술사 콘텐츠는 각광을 받게 되었다. 구술인터뷰에 담겨 있는 구술자 개인의 독특한 서사는 스토리텔링의 소재로서도 자주 주목을 받는다. 이처럼 이제 구술사는 출범 당시 ‘시급함’ 하나를 앞세우던 당위적 단계를 벗어나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가는 상황에 처했다.

국립해양박물관에서 간행한 『바다 사람의 생애사』 역시 그런 변화의 조짐을 다소 반영하고 있다. 무엇보다 50~60대의 젊은 구술자를 대거 포함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여기서 구술자의 연령이나 구술주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시급성’이 이번 구술 작업의 최우선 동력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동안 많은 프로젝트에서 가급적 ‘고령자’를 구술자로 선호했던 것에 비하면 이번 작업은 오히려 지금 현재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데 좀 더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주요 내용 역시 관련 분야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공동으로 경험했을 법한 가까운 과거에 대한 ‘개인의 경험’이다. 그것은 사라진 과거의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과정 중에 있는 현재진행형의 서사이다. 그러므로 이번 구술은 해방 이후 수십 년 동안 미루어 두었고 이제는 빠르게 소멸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서둘러야만 한다고 했던 여타 구술사 프로젝트와는 성격이 다르다. 그러므로 이제는 시급함에 쫓겨 미루어 두었던 이야기들과 논점들을 차분하게 꺼내서 생각해야 할 때가 되었다.

구술사와 생애사 life history 또는 구술생애사 oral life history 에 ‘역사 history’라는 명칭을 붙이는 이유는 그것이 ‘과거’를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억과 역사, 문화유산의 형태 등으로 과거를 만난다. 구술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억을 대상으로 삼는다. 기억은 그 자체로 역사는 아니지만 과거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의 과정이다. 또한 기억을 재현하는 매체와 장르가 다양해지고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기억의 생산과 유통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현상은 과거를 다루는 학문으로서 역사학이 전통적으로 누려왔던 권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구술사는 엄격하게 제도화되어 있는 근대 역사학과는 달리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중심에 두는

방법이자 관점이다. 그래서 구술생애사가 객관적이고 엄격한 학문이 될 수 있는지 하는 의구심이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개인이 말하는 각자의 체험에서 누구에게나 해당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객관적 사실’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고 사회구조적 의미를 찾아내는 일도 만만치 않다. 심지어 개인의 기억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며 지속적으로 변형되거나 재구성된다. 구술을 하는 시점과 조건에 영향을 받아 구술 내용이나 뉘앙스가 달라지기도 한다. 따라서 전문적인 역사연구에 구술사 방법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구술자료는 문헌기록을 보완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앞으로 구술자료의 활용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겠지만, 학문적 연구를 위한 자료로서 구술기록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심은 쉽게 불식되지 않는 것이다.<sup>3</sup>

하지만 구술사의 가치는 전통적인 역사학이 쉽게 다가갈 수 없었던 다양한 과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데 있다. 그런 차이가 만들어내는 긴장이야말로 과거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이해를 더욱 넓혀준다. 구술사는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와 만날 수 있는 의미 있는 방법으로서 충분한 잠재력과 확장성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역사학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기 위해 선불리 폭을 좁히기 보다는 그 활용가능성이 최대한 넓어질 수 있도록 구술자료의 수집에서 가공에 이르는 전체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하는 것이 급선무로 보인다.

당대의 일상을 기록하고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는 일 역시 객관적 기준과 합리적인 방법론을 따라야 한다. 구술인터뷰에 들어가는 구술자와 면담자의 엄청난 노고와 그것을 기록화하기 위해 투입되는 막대한 노동량을 생각하더라도 구술사 프로젝트는 치밀한 준비를 거쳐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엄격한 사전 조사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이루어지는 아카이빙 작업은 양적으로 방대하게 축적된 자료라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다음 세대에게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최대한 '질' 좋은 구술을 남기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구술사 프로젝트의 주제별 특징을 반영하여 구술인터뷰에서부터 결과물의 가공과 아카이빙에 이르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술자료의 가치는 구술자나 구술 내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그것 못지않게 구술을 기록화하고 공유하는 방식과 절차에 의해서도 좌우된다. 구술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동의하더라도 구술 자료로서 타당한 절차를 거쳐 적절한 형식으로 객관화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내용 못지않게 중요하다. 특히 『바다 사람의 생애사』 시리즈처럼 구술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구술 인터뷰 내용을 별도의 원고로 작성한 경우, 그 원칙과 기준을 독자와 공유하는 등의 객관화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역사학과 구술사의 만남이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닌데, 양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허영란, 「한국 구술사의 현황과 대안적 역사쓰기」, 『역사비평』102, 역사비평사, 2013, pp.312-331; 윤택림, 「구술사와 역사학의 어색한 관계-그 성과와 전망」, 『구술사연구』 7(2), 한국구술사학회, 2016, pp.45-84.

### 3. 구술자료와 맥락 정보

구술사는 역사쓰기의 새로운 방법이다. 물론 개인의 주관성과 해석의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점에서는 엄격한 사료비판과 주관성의 배제, 실증적 사실의 재구성을 지향하는 ‘과학적인 역사학’과는 다르다. “구술사는 공식적 자료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의 기억과 구술에 기초하여 구성된 또 하나의 역사이다. 구술은 한편으로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증언과 이를 경험한 주체의 자기 성찰, 그리고 자신의 생애를 그 사건에 투사한 서사의 결합물이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들의 구술사는 온갖 어려움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고통이나 애환으로 점철된 삶을 역사적으로 재구성한 결과이다.” (정근식 2005: 6-7)

구술사는 역사쓰기를 특정한 자격을 갖춘 역사학자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자기가 체험한 역사적 사실과 그것에 대한 해석과 성찰을 말할 수 있고, 그것은 일정한 과정을 거쳐 역사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구술은 사회적 약자나 자기 역사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기존 역사에 누락되거나 왜곡된 자신들의 이야기를 역사로 써나가는 실천 방법이다. 『바다 사람의 생애사』도 그와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국립해양박물관은 “바다를 보듬어 온 사람들의 ‘써지지 않은 역사’” (국립해양박물관 2019: 4)를 발굴, 조사, 채록하는 작업을 시작했고, 이 책들은 그런 작업의 성과인 것이다.

구술은 상황의존성이 크다. 구술자의 경험은 과거의 사회적 맥락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의 회상과 구술은 지금 처해있는 사회적 맥락 안에서 그 영향을 받으면서 풀려 나온다. 때로는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과정에서 기억이 재구성되거나 변형되고 삭제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때때로 특정 체험이나 기억에 관해 구술자는 의도적으로 침묵하기도 한다. 따라서 구술만으로는 알 수 없는 외적 조건, 구술자 선정 배경이나 구술인터뷰가 이루어진 과정, 인터뷰 과정에서 드러난 구술자의 개성 등 구술자료가 생산되는 전후 사정을 충실하게 덧붙이는 것은 구술자료를 풍부한 자료로 만드는 중요한 조건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책에는 구술인터뷰의 기획 의도와 준비 과정, 구술자 선정의 기준, 인터뷰 장소나 횟수와 방식 등 인터뷰의 진행 경과, 녹취록 정리의 기준 등 현장에서 진행된 구술 프로젝트와 편집 출판된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맥락 정보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구술인터뷰 과정에서 생성된 ‘구술자료’(영상, 음성, 녹취록, 사진, 이용동의서 등)의 보존과 활용에 대해서도 아무런 정보를 찾을 수가 없다. 최초에 수집된 원자료가 어디에 어떤 식으로 보존되어 있으며 해당 자료에 접근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구술인터뷰를 ‘전사’하여 녹취록을 작성했으며 그것을 토대로 주요 내용 위주로 질문과 대답 형태로 내용을 편집했다는 사실이다. 또 그렇게 정리된 구술 내용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구술자의

생애사에 해당하는 간략한 설명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관련지에 ‘원고 집필’로 명시되어 있는 필자들이 전체 구술 내용을 참조하여 해당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구술인터뷰는 구술자에게도 면담자에게도 도전적인 과정이다. 시점, 장소, 관계, 상황에 따라 구술인터뷰는 유동한다. 구술자의 진술이나 취지를 최대한 존중했다고 하더라도, 구술내용을 축약하고 선별하는 과정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은 집필자이다. 구술사는 “인터뷰에서는 먼저 구술자에게, 다음에는 역사학자에게 응답 내용에 권력을 행사하게 할 수 있는 몹시 위험한 방법이다. 이를 행하는 것은 커다란 윤리적 도전을 의미한다.”(도로테 비얼링 2006: 239-240) 따라서 구술내용에 대해 경중을 판단하고 선별하고 새로운 맥락을 부여하는 기준을 고민하고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구술인터뷰와 구술자료에 대한 맥락 정보의 제공은 구술인터뷰 작업의 저변에 가로놓여 있는 윤리적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기초적인 조건이다.

각 구술자의 사진은 ‘사실효과’를 발휘한다. 구술자의 사진이 수록되어 있는 이 책에는 사진 속 당사자의 직접적인 경험이 담겨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하지만 문답 형식으로 정리되어 있는 본문이 실제 인터뷰에서 이루어진 대화인지(1권은 대체로 그런 듯하다), 녹취록은 바탕으로 다듬은 것인지(2,3권은 녹취록을 꽤 다듬은 것 같다) 알 수가 없다. 녹취록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술성<sup>orality</sup>’을 살리는 일이다. 구술은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구술자는 몸짓, 표정, 목소리, 한숨, 머뭇거림 등 무수한 기호들을 동원해서 ‘말한다’. 이런 현장성을 완전하게 문자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녹취록은 그런 한계를 의식하면서 ‘구술성’을 최대한으로 담아내고자 한 노력의 산물이다. 단순히 내뱉어진 말-소리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구술자가 표현한 감정과 인식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우선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는 이면의 감정이나 의도를 민감하게 의식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구술이 구술자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 편집된 원고의 신뢰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편집과 원고 집필의 원칙이나 취지를 독자와 공유해야 하는 것이다.

『바다 사람의 생애사』는 구술을 일정한 분량(p.15 내외)으로 요약해 두었기 때문에, 본문을 읽어 보더라도 첫머리 요약문(‘들어가며’)의 정보 이상으로 심화된 내용이나 구술자의 인식을 읽어내기는 어렵다. 만일 이 글을 읽은 독자가 구술 내용을 더 많이 알고 그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원본에 접근하고자 한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 구술아카이브의 구축과 공개 방법은 기관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국립해양박물관 역시 수집한 아카이브의 원본 공개에 관한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 4. 구술발간물의 성격

구술녹취록을 편집하여 책으로 출판하는 행위는 녹취록 작성과는 성격이 다른 작업이다. 4 전 사된 녹취록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구술 아카이브로 구성되며 일반에 공개된다. 반면, 구술발간물의 생산과 보급은 구술 아카이브의 공개와는 다른 목적과 의미를 갖는다. 구술자료의 공유와 이용을 위해 제작하는 녹취록은 '구술성'의 재현을 무엇보다 중시한다. 그와 달리 구술발간물은 '가독성 readability'을 고려해야 한다. 구술자료의 출판은 구술 내용을 읽을거리로 만들어 독자에게 제공하고 공유하는 것이다. 이 때 등장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은 해당 출판물이 연구자들을 위한 자료인가, 아니면 일반 독자를 위한 책인가 하는 점이다.

자료로서든 책으로서든 구술발간물의 편집은 가독성을 염두에 두고 주제와 시간적 선후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녹취록을 재편집하고 재맥락화하는 일이다. 녹취록의 운문이나 구술내용에 대한 가필·수정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지만, 공개적이고 일관된 작업 원칙에 따라 가독성이 있는 읽을거리로 만들어야 한다. 오랜 구술사 경험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도 구술자료와 구술발간물을 구분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말해진 내용을 문자화한 일차 자료가 녹취문이라면, 편집된 출판물은 해당 주제에 대한 집필자의 생각이 반영된 2차 자료로서 독자들에게 제공된다. 그러나 이런 편집이 구술을 표준적인 문장으로 다시 쓰거나, 설명적인 내용을 마치 구술자의 생각인양 기입하거나, 구술에 내포된 긴장을 보여주는 모순이나 비밀관성을 제거하거나, 구술자의 독특한 목소리를 왜곡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편집은 균형을 잡는 작업이다. 한편으로는 구술자의 독특한 어법이나 내적 논리, 감정적 진리에 담긴 진실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구술을 읽을 만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편집자의 역할이다.<sup>5</sup>

『바다 사람의 생애사』의 편집에 대한 내용적 평가는 별개로 두더라도, 작업 과정에서 거쳤음에 분명한 관련 논의가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하다.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이루어진 구술 녹취록을 읽는 일은 연구자들로서도 쉽지 않다. 애초에 구술은 책으로 읽기 위해 작성한 '문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 독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글이라면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어찌면 이 책이 구술자료로서도 활용되기를 기대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가독성과는 상관없이 앞서 제기한 '맥락 정보'가 더욱 중요하다.

4 허영란, 「구술생애사 읽기」, 『역사문제연구』16, 역사문제연구소, 2006 ; 허영란, 「빛나는 땀의 흔적과 구술출판물이 감당해야 할 고민들」, 『한국문화인류학』40(2), 한국문화인류학회, 2007, 를 토대로 재정리했음

5 Linda Shopes, 「Some Notes on Preparing Oral History Interviews for Publication」(콜럼비아 대학 구술사연구소 2006 Summer Institute on Oral History 교재).

## 5. 맺음말 - 여러 학문들의 협업 모색

『바다 사람의 생애사』 발간의 기초가 되는 ‘휴먼스토리’ 프로젝트를 주도한 것은 민속학자와 인류학자들이다. 해당 연구자들의 조사 역량이나 전문성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문이 없으며 오히려 존경심을 갖고 있음을 먼저 밝혀두고 싶다. 그런데 민속학 및 인류학과 연구대상을 자주 공유하는 역사학자로서는 접근 방법과 주된 관심사에서 학문적 문제의식과 방법에서 기인하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거칠게 말해보면 역사학자는 상대적으로 거시적 구조와 더불어 시간 흐름에 따른 지속과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는 반면, 민속학자나 인류학자는 미시적 국면에 집중하면서 현재 나타나는 문화적 현상의 구체성과 완결성을 주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sup>6</sup>

짧게는 50여 년, 길게는 일제강점기에 시작해서 현재에 이르는 90여 년 간에 걸친 구술자의 경험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있어 역사적 접근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인지 이제호나 황태섭(『바다 사람들의 생애사 1』)처럼 일제시기에 태어나 격동의 근현대를 살아온 구술자들에게서 시간성을 읽어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상대적으로 젊은 구술자의 구술 역시 시대상이나 시대변화와의 연결이 전반적으로 취약하다. 역사적 의미를 장소성 차원에서 고려하는 접근도 부족해 보인다. 물론 구술인터뷰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편집 과정에서 생략되었을 수도 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전개되는 역사는 구체적인 장소에 중층적으로 퇴적된다. 그리고 그것은 일차적으로 해당 장소에서 살아가는 개인의 삶을 규정한다. 시간과 장소, 구조와 개인, 역사와 기억을 교차시킬 수 있을 때 구술자료는 과거에 대한 구술자와 면담자의 공동 해석으로서 특별한 가치를 갖게 된다. 그것을 위해 박물관 프로젝트로서 구술생애사 작업은 여러 관련 학문의 다층적 협업 위에 진행되어야 하며, 그렇게 해야 조사와 연구, 전시와 보존 등 구술사의 종합적 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관심을 받지 못했고 기록되지도 못했던 ‘바다 사람의 생애사’는 어떻게 보존되고 전승되어야 할까. 그 동안의 무관심에 비추어 볼 때 관련 연구자로서는 이 책자의 발간만으로도 매우 감사한 일이다. 하지만 그런 의미에도 불구하고 『바다 사람의 생애사』는 안타깝게도 연구자와 시민 모두에게 다소간 불만족스러운 콘텐츠이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해양 관련 ‘휴먼스토리’ 프로젝트가 생산한 구술자료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다.

---

6 1936년에 의대생과 함께 울산 달리 마을을 찾았던 아택 뮤지엄의 민속학자들도 그러했는데, 그들은 달리 마을의 공동노동 조직이 어떻게 변해왔고 변해 가는가 보다는, 현재 그것이 어떻게 연행되고 있으며 완전한 형태가 무엇인지를 재현하고 기록하는데 주로 관심을 기울였다. 당시 조선의 농촌은 농정이 해체되는 격변기를 지나고 있었지만 그들은 변화의 양상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 대신 마을 주민들에게 농정(과 유사한 공동노동조직)을 재현해주도록 요청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다.(허영란 2015)



## 참고 문헌

### 논문

- 도로테 비얼링, 「젠더 역사와 구술사-과거에 던지는 질문」, 『일상사로 보는 한국근현대사』, 책과함께, 2006, pp.239-240.
- 박현수, 「지금 아니면 안 되는 일: 민중생활사의 기록과 해석」, 『20세기 한국민중의 구술자서전1 어민편-잔물, 단물』, 소화, 2005, p.24.
- 윤택림, 「구술사와 역사학의 어색한 관계-그 성과와 전망」, 『구술사연구』 7(2), 한국구술사학회, 2016, pp.45-84.
- 정근식, 「한국 현대사와 원자폭탄 피해자의 증언의 의미」, 『고통의 역사-원폭의 기억과 증언』, 선인, 2005, pp.6-7.
- 허영란, 「1936년 '달리조사'와 식민지 농촌 아카이빙(archiving)」, 『사학연구』120, 한국사학회, 2015.
- \_\_\_\_\_, 「한국 구술사의 현황과 대안적 역사쓰기」, 『역사비평』102, 역사비평사, 2013, pp.312-331.

### 단행본

- Linda Shopes, 「Some Notes on Preparing Oral History Interviews for Publication」, (콜럼비아 대학 구술사 연구소 2006 Summer Institute on Oral History 교재)

### 보고서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조사」, 2019.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2019.
- 한국은행, 「국민계정」, 2021.
- 해양수산부·국립해양박물관, 『바다사람의 생애사 1』, 국립해양박물관, 2019, p.4.

#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 연구성과와 가능성

송지은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 머리말
-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 연구의 필요성
-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 연구 추진절차
-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 연구성과 및 방향성
- 맺음말

#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 연구성과와 가능성

## 1. 머리말

최근 현대화·산업화 영향으로 소멸 될 위기에 놓인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활발해 지고 있다. 문화유산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은 1960년대 이래로 꾸준히 지속 되어 왔는데, 유형유산에만 국한하지 않고 일정한 형체나 실물이 없는 무형유산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무엇보다 무형유산은 기·예능을 보유하거나 해당 분야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에 의해 계승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고령화 등의 이유로 더이상 전승하지 못할 경우, 마땅히 전해져야 할 소중한 유산들이 사라질 위험이 크다. 따라서 무형유산의 경우 실체가 없기 때문에 기록의 중요성이 특히나 강조되었고, 각 정부 부처와 연구기관에서는 이를 전승하고 체계적으로 기록하기 위한 구술조사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는 역사와 문화를 형성, 발전시키는 ‘인간’ 즉, ‘사람’ 자체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 인문·사회학계의 흐름과 맞물려 현재 다양한 분야의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

2018년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분야 종사자들의 생애사를 기록, 연구하여 해양문화유산으로 보호하고자 ‘휴먼스토리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글에서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 구술조사에 대해 논의를 보고자 한다. 2018년에서 2021년까지 약 4년간의 성과를 고찰하여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향후 활용방안과 지향점 등 그 가능성을 제안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필자의 소략한 논의가 연구의 목적에 대해 다시금 성찰해 보고,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 연구의 의미와 방향성을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2.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구술기록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이다. 이는 남성, 엘리트, 중앙에 치우쳐 있던 그동안의 역사연구에 대한 반성으로, 여성, 민중, 지역 중심의 역사를 발굴해 내는 것이 그 출발이었다(함한희 2000). 이후 사회의 변화와 함께 구술기록의 중요성은 더욱 확대되었고, 현재까지 다양한 학문 분야와 연계되어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구술기록은 구술사 연구의 토대일 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 발전에도 기여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구술기록의 목적이 인간의 생애를 구술을 통해 정리하여 역사의 미진한 부분을 재구성하고, 역사의 진보에 미치는 인간의 역할을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이용식 2014). 다양한 사람들의 역사적 경험을 기록하고, 이를 후대에 전승하며 역사의식을 갖게 함으로써 우리는 좀 더 성숙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었다.

사람들의 삶의 경험을 기록하는 작업은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문헌 기록에서 소외된 20세기 삶의 경험에 대한 구술과 채록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해양·수산분야 역시 종사자들의 고령화, 어촌 소멸 등의 문제가 심화 되면서 이들의 이야기를 해양문화유산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해양수산부 2018). 해양·수산분야의 전통기술, 전통식지도 ‘사람’을 매개로 이어지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변화하거나 단절될 수 있다. 따라서 과거의 기억과 현존하는 삶의 현장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다음 세대의 계승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더 늦기 전에 이들의 이야기와 소장자료를 수집하고, 자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휴먼스토리 연구용역’ 사업을 계획하였다.

2018년부터 추진된 ‘휴먼스토리 연구용역’ 사업은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 구술조사 연구로, 바다를 생활 터전으로 삶을 영위해 온 보통사람들의 이야기를 발굴, 조사, 기록하고, 나아가 해양문화 확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해양수산부 2018). 따라서 구술조사 추진 분야를 단계적으로 세분화하였으며, 체계적인 구술 생애사 수집, 정보의 구축 및 활용을 위해 논의 단계부터 12개년(2018~2029) 장기사업으로 계획하였다. 최근 구술기록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다수의 국가기관에서 구술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기에 그들의 조사 경험과 연구방법이 큰 도움이 되었다. 해양수산부는 문화재청의 국립문화재연구소(現국립문화재연구원)와 국립무형유산원, 국사편찬위원회 등의 구술조사 사례들을 참고하여 사업의 추진 방향 및 방법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해양수산부 각 부서와의 협의, 지자체, 유관기관 등의 협조를 얻어 조사 대상 선정하면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해 나갔다.

이후 해양·수산분야 구술조사 특성을 감안하여 적합한 연구방법을 개발하고 현장조사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의 결과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술조사 연구자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기 프로젝트로 계획된 만큼 연구의 결과물은 누구나 읽기 쉬운

형태의 시리즈 도서로 발간하고자 하였으며, 조사 성과를 전 국민에게 공유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과학관 등에서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표 1〉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 연구 추진 분야

	대상	관련분야	연도
1	해양·수산(종합)	○ 해사안전, 해양산업, 항만물류, 조선 분야 초기 개척자 등 ○ 염전, 항로표지(등대원), 해녀 등 장기간 종사자 등	'18
2	연안어업	○ 우리나라 각 지역의 맨손어업, 나잠어업, 상업 등 연안어업 분야 종사자	'19
3	사라지는 해양문화	○ 사라져가는 해양 관련 직업군 ○ 갯강이 마을, 사라진 뱃길, 섬마을 관련 등	'20
4	원양어업	○ 참치, 오징어, 콩치 어업 등 국내외 원양어업 관련 종사자, 마다가스카르 섬의 어업 관련	'21
5	해운·항만	○ 항만하역업, 조선업, 선박수리, 크레인기사, 상여객 관련, 수입·수출업(검사원), 도선, 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등	'22
6	해녀	○ 제주 해녀 및 육지해녀(울산, 부산, 삼척 등), 국외(일본, 블라디보스톡) 출향해녀 등	'23
7	해양과학	○ 극지연구소, 해상과학기지 관련 ○ 해양생물, 해양자원 연구자 등, 해양과학연구 선구자	'24
8	가공업	○ 수산물 가공공장 등 가공처리업 종사자 ○ 소금채취업(염전) 관련	'25
9	해양영토·환경	○ 울릉도·독도 주민, 독도의용수비대, 해양생태 해설사 등 ○ 해군함정 근무자, 해경 창설 당시 근무자 등	'26
10	유통 및 판매업	○ 수산물 중개 도·소매업 관련 종사자 등 ○ 수산물 직판장, 경매업 관련 종사자 등	'27
11	레저관광	○ 해양레저, 해양스포츠 관련 종사자 등 ○ 해양문화관광 관련 종사자 등	'28
12	공공분야	○ 해양수산부 창설 멤버 ○ BPA, IPA 등 설립 담당자, 해군 소속 근무자	'29

출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분야 휴먼스토리 연구용역 추진계획(안) 보고」, 2018.

### 3.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 연구 추진절차

해양수산부는 구술기록수집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과 함께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하였다. 사업이 시작된 2018년에는 해양과 수산, 2개의 분야를 종합적으로 추진하였는데, 종사자들의 연령, 건강상태, 구술 동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총 24명을 구술조사 대상으로 확정하였다. 2019년

부터는 해양·수산 분야의 다양한 영역을 심층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에 따라 각 분야 격년 주기 추진을 결정하였고, 2019년 수산분야를 시작으로 매년 12명씩 조사하여 2021년까지 총 36명에 대한 구술기록을 추가로 수집할 수 있었다.

구술기록수집은 구술자의 생애, 바다에 대한 전통기술, 전통지식 등에 대해 구술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연구자 선정에서부터 시작된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구술조사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연구기관을 공모하여 연구인력과 인력풀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연구자와의 논의를 통해 구술조사의 체계를 갖추고자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준비단계를 거쳐 본격적으로 구술조사가 시작되면, 우선 연구자별로 구술자를 대상으로 예비조사가 이루어진다. 예비조사에서는 구술자와 라포를 형성하고, 구술자가 기억을 전개하는 방식과 특성을 파악한다. 그리고 향후 면담 일정 등을 조율하여 본조사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 구술조사는 본조사 실시에 앞서 면담 일정을 사전에 결정하고, 구술자와 관련된 기사와 논문, 학술자료 등을 파악하여 구술자별 질문항목을 마련한 후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술조사는 사전 면담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별로 총 3회 이상으로 계획하였으며, 구술채록과 함께 구술자의 소장자료 목록도 함께 조사, 정리하였다. 또한 구술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내·외부 전문가 모니터링 및 자문을 실시하였으며, 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검독·검수, 수정·보완 단계를 거쳐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내용에 대한 최종 확인작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를 토대로 최종 연구보고서를 제작하였다.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한 기존연구 자료들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하기 위해서는 구술조사 전 과정에 걸쳐 사진과 영상촬영을 병행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이러한 사진과 영상물은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 시리즈 도서와 해양수산부 공식 채널 등을 통해 소개하였으며, 발간된 도서 역시 해양문화유산 콘텐츠로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누리집, 박물관 및 과학관, 대학 도서관 등에 무료로 배포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수많은 논의와 절차를 거쳐 추진한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 연구를 통해 해양·수산 분야 종사자들의 인적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며, 살아있는 현장의 모습을 생생한 기록으로 남길 수 있었다. 다양한 분야에서 수집된 개인의 기록들은 우리나라 해양·수산의 역사와 흐름을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이를 통해 대중들이 쉽고 흥미롭게 우리 해양문화 이해하고, 그 중요성과 의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표 2〉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 추진절차

사전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조사: 조사대상자 및 분야에 대한 사전 기초자료 및 문헌조사</li> <li>○ 동의확보: 대상자 면담허가, 자료의 공개/활용동의서 확보</li> <li>○ 예비조사보고: 예비조사보고서 작성, 제출 및 질문지 작성</li> <li>○ 제작회의: 대상자와 현장조사 일정수립, 사전 면담 및 조사를 통한 영상 및 사진, 구술 등 기록화 방안 검토</li> </ul>
구술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술조사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인원: 1회당 조사연구자 2인 1조로 수행</li> <li>- 조사시간: 1회당 2시간 내외</li> <li>- 동시녹음 및 면담 기록</li> <li>- 실물조사: 박물관에서 수집가능한 자료 소장여부 조사</li> </ul> </li> <li>○ 사진촬영: 조사대상자의 얼굴과 전신모습, 소장자료 등을 자연스럽게 촬영</li> <li>○ 검증: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제작전반에 대한 연구면담자 검증</li> </ul>
전사 및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사(轉寫transcribe: 구술채록한 음성자료를 텍스트로 전환하는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요인원: 2명</li> <li>- 내용: 조사자를 상대로 구술채록한 내용을 텍스트로 전환하여 결과물 제출을 위한 면담보고서 작성(소장자료의 가치를 파악하는 등 실물조사 목록 작성)</li> </ul> </li> <li>○ 자료보고서 편집 및 작성</li> <li>○ 검독(檢讀: 전사본에 대해 오류 여부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요인원: 2명(연구면담자 및 구술조사 대상자)</li> <li>- 내용: 연구면담자와 구술조사 대상자가 직접 오류를 2차례 진행</li> </ul> </li> </ul>
결과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증: 최종 조사본 검토</li> <li>○ 결과보고서 및 사진, 구술녹취록(출력본, 음성파일원본) 제출</li> <li>○ 휴먼스토리 도서 발간</li> </ul>

출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분야 휴먼스토리 연구용역 추진계획(안) 보고」, 2018.

## 4.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 연구성과 및 방향성

### 1) 연구성과 및 의의

해양수산부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 구술조사를 통해 60명의 구술기록을 수집하며, 총 4편의 도서를 발간하였다. 구술조사 성과가 담긴 이 기획도서에는 조사목적에 부합하도록 해당 분야의 쟁점, 매체별 기록방법, 구술자 소장자료, 구술기록의 전사 및 검독 방법 등을 수록하였다. 특히 2021년에 추진한 ‘원양어업’ 분야의 구술조사는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연구방법론을 개발하고, 구술조사 현장에서 일어나는 과정과 절차를 기획도서를 통해 매뉴얼화 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 연구를 추진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표 3〉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 추진성과

연도	분야	인원	추진성과	발간물
'18	해양·수산 (종합)	24	○ 해양과 수산분야 24명 조사('18.10.~'19.5.) - 국립해양박물관, 영남대학교, 중앙대학교 수행 - 항만, 해사안전, 과학, 조선업, 수산업(멸치, 홍어, 굴비, 염전 등) 관련 종사자 ○ 『바다사람들의 생애사1』 발간 완료('19.8.)	
'19	연안어업	12	○ 연안어업분야 종사자 12명 조사('19.5.~'19.12.) - 국립해양박물관, 부경대학교 수행 - 연안자망어업, 통발, 나잡어업, 유자망, 맨손어업, 김양식 등 종사자 ○ 바다사람들의 생애사2, 발간 완료('19.12.)	
'20	사라지는 해양문화	12	○ 사라져가는 해양문화 종사자 12명 조사('20.3.~'20.11.) - 국립해양박물관, 한국해양대학교 수행 - 영신제, 초벌, 물범지킴이, 머구리, 태우, 해남, 뱃노래, 가자미 식혜 등 해양문화 관련 종사자 ○ 바다사람들의 생애사3, 발간 완료('20.11.)	
'21	원양어업	12	○ 원양어업분야 종사자 12명 조사('21.3.~'21.11.) - 국립해양박물관, 부경대학교 수행 - 어장별(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어업, 어종별, 제반산업(냉동가공, 어구) 관련 종사자 ○ 바다사람들의 생애사4, 발간 완료('21.11.)	

출처: 해양수산부, “바다와 함께한 보통사람의 이야기를 기억하다”,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21.11.29)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 연구는 해양수산부의 기존연구 자료들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구술조사에 적합한 결과물 도출을 위해 사진과 영상, 음성 기록을 표준화된 데이터로 정리하였다. 이는 기획단계부터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 연구 목적이 구술기록의 관리와 활용에 있었으며, 장기적으로 아카이브 구축 등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규격화된 포맷으로 축적된 결과물을 통해 다각적인 해양문화 콘텐츠 제작이 가능해졌으며, 이로써 구축자료의 체계성은 물론, 효율성까지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표 4〉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 구술조사 결과물

주요 결과물	자료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사 : 향후 활용 측면을 고려하여 전사본과 편집본을 구분하여 작성</li> <li>○ 영상 : 보존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제작, 영상과 음향을 동시에 기록, 구술조사 정보(일시, 구술내용 등) 메타데이터 작성</li> <li>○ 음성 : 구술내용을 mp3 파일로 기록하고, 전사본 작성에 참조</li> <li>○ 사진 : 구술자, 연구자, 촬영자 등 구술조사 과정과 공간 촬영</li> <li>○ 소장자료 : 구술자의 소장자료(사진, 소지품 등) 촬영하여 기록하고, 소장자료 목록(내역 및 특징 등)을 작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width: 50%;">■ 강황연</li> <li style="width: 50%;">■ 동영상</li> <li style="width: 50%;">■ 김관일</li> <li style="width: 50%;">■ 사진</li> <li style="width: 50%;">■ 김동현</li> <li style="width: 50%;">■ 서류</li> <li style="width: 50%;">■ 김진수</li> <li style="width: 50%;">■ 소장자료</li> <li style="width: 50%;">■ 김창명</li> <li style="width: 50%;">■ 음성</li> <li style="width: 50%;">■ 박영호</li> <li style="width: 50%;">■ 전사본</li> <li style="width: 50%;">■ 배재적</li> <li style="width: 50%;">■ 최병진</li> <li style="width: 50%;">■ 이강운</li> <li style="width: 50%;">■ 편집본</li> <li style="width: 50%;">■ 정성수</li> <li style="width: 50%;">■ 최신일</li> <li style="width: 50%;">■ 정창용</li> </ul>

출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분야 휴먼스토리 연구용역 성과품」, 2021.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 연구는 구술자들의 소장자료 목록을 확보하고, 자료의 명세서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과업 중 하나였다. <표 4>와 <그림 1>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자칫 사라질 뻔한 해양·수산분야의 생활사 자료들을 발굴하였다는 점이 이 연구의 주요한 성과 중 하나이다. 박물관 수집자료가 생명력과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출처, 사용자 등 유물에 대한 정보가 명확할 때 가능하다. 그리고 그동안 구술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들은 그 정보가 명확하다는 점에서도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맥락이 있는 자료수집과 이야기가 있는 유물을 통해 박물관의 의미 있는 전시가 가능해진다. 현재 일부 구술자들이 기증한 자료는 국립해양박물관 소장자료로 확보하여 전시에 다양하게 활용 중이다. 2020년 ‘바다와 여성’ 기획전에서는 2018년에 조사된 ‘깡깡이 아지매 강애순’ 선생의 구술기록 및 소장자료가 활용되었다. 올해 2022년 2월 27일까지 개최된 ‘조선造船의 나라, 조선朝鮮’에서는 2020년에 조사된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5호 하단 돛배 조선장 김창명” 선생의 기록영상이 전시되기도 하였다.



<그림 1> 구술자별 소장자료 현황 및 내역서

출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분야 휴먼스토리 연구용역 성과물」, 2019.

해양수산부는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 연구를 통해 전문성 있는 연구인력과 인력풀을 확보할 수 있었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양한 기관의 전문 연구인력들이 다수 참여하였는데, 국립해양박물관과 공동으로 부경대학교, 영남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가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진들의 노력으로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료의 수집 및 편집, 구술자 선정과 섭외, 구술조사 실행과 결과물 제작, 데이터 보존과 관리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그리고 4년간의 구술조사 성과들이 차츰 드러나기 시작했던 2021년 연구진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간 축적된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 연구 결과를 전 국민에게 공유하고, 향후 어떻게 보존·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립해양박물관에서 개최된 <‘바다 사람’ 조사성과와 의의> 학술대회를 통해 관련 연구자들은 심도 있게 견해를 나누고, 해양문화유산으로서 구술기록 수집의 방향성과 가능성에 대해 심층적

으로 논의할 수 있었다. 현재 구술사연구는 다양한 학문과 연계하여 발전하고 있다. 구술사 자체가 다학제간 연구이기 때문에,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 연구 역시 관련 학계에 구술조사 연구방법 등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분야 인접 학문의 연구에도 기여 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 연구 인력풀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술적·정책적 정보를 공유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해양문화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교육 네트워크 등의 사례처럼 해양·수산분야 구술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성과를 공유할 채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통해 연구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과 구술조사의 성과를 공유해야 하며, 구술기록 관리 및 활용기반을 공고히 해나가야 할 것이다.

## 2) 향후 방향성 및 가능성

지금까지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 연구는 사라져가는 해양·수산분야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시급히 담아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동시대가 요구하는 구술기록에 대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그 결과를 대중에게 공유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한다.

먼저 그 시작으로, 구술기록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구술사 연구의 발전과 함께 아카이브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으며, 진정한 의미의 구술조사는 아카이브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구술조사를 추진하는 대다수의 기관이 이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거나, 중장기적으로 구축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고 있다. 구술기록 아카이브 구축은 기본적으로 ‘보존’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보존’은 곧 ‘활용’을 위한 것이기에, 수집한 구술기록을 어떻게 관리,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 연구 역시 풍부한 인문 콘텐츠를 학계뿐 아니라 대중들에게 서비스하기 위해서, 구술조사 결과물인 구술 텍스트, 영상 및 사진, 기획도서 등에 대해 쉽게 접근,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구술조사 연구 결과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 구술조사의 객관성을 높이며 사업 주관기관과 연구기관의 업무 프로세스 향상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술조사 연구인력과 아키비스트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연구기관들은 구술 전문 아키비스트를 구술조사와 구술기록 아카이브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하며, 이렇게 구술기록의 수집과 아카이브 구축이 함께 맞물려야 그야말로 사회에 기여하는 구술기록의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구술기록은 수집단계에서부터 ‘활용’을 염두에 둔 ‘기획’ 수집의 성격을 지닌다. 달리 표현하면 구술기록은 기록물과 같이 어떤 업무나 행위의 결과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 또는 경험을 그것이 발생한 시간과 간격을 두고 어떠한 활용목적에 의해 재현한다(권미현 2019). 이러한 관점

에서 구술기록은 인간의 행동과 삶을 재현해 내는 것이고, 이는 서사가 있는 이야기로서 힘을 가지게 된다. 바로 이러한 맥락이 활용을 위한 기본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다. 구술기록을 수집·관리하는 기관은 동시대적 관점에서 각계각층의 요구를 반영한 구술기록의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이야기와 실물자료가 함께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박물관 등의 전시·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 연구 성과물들은 국립해양박물관의 전시로 활용되었으며, 향후 좀 더 확대된 방향으로 결과물들을 소개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박물관은 구술조사를 자료수집 방법으로 적극 활용해야 하며, 수집한 구술기록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검증하여 관람객들로 하여금 참여와 해석이 가능한 전시들을 기획해 나가야 한다. 전시 뿐만 아니라 우리 해양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구술기록이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고 있듯이 다양한 연령층을 연결하는 매개로서 구술기록을 활용한다면 다각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오늘날 박물관은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는 인간과 관련된 모든 것의 집합이자 클라우드 시스템이며 서로 연결되어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사회적 메시지 전달의 공간으로서 전시와 교육적 시도를 이어나가고 있는 만큼 구술조사 및 구술기록의 해석을 통한 활용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그림 2〉 구술자 소장자료 및 국립해양박물관 전시활용 사례

출처: 국립해양박물관 공식 블로그(2020)  
 해양수산부·국립해양박물관,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 3』, 2020.

## 5. 맺음말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의 현재를 깊숙이 들여다보면 과거가 겹쳐져 있기 마련이다. 역사 속에서 우리 사회는 성장해 왔고, 따라서 그 과정에서 삶의 모습을 기록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분야 종사자들의 수십년 간의 삶의 여정을 담은 구술조사 사업을 통해 우리 해양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겨보고, 다음 세대를 위한 귀중한 자산으로 남기고자 하였다. 4년간의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 연구는 구술자 생애에 대한 연대기적 확인, 주요사건과 의미, 사회적 이슈, 동시대에 활동했던 해양·수산 종사자에 관한 기억 등을 토대로 해양·수산분야의 역사를 새롭게 기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필자는 사업 담당자 입장에서 2018년부터 2011년까지 지속 되어 온 사업의 성과를 고찰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해 보았다. 다시 강조하고 싶은 측면은 바로 구술기록의 관리와 활용이다. 수집한 구술기록에 대한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박물관 등의 전시·교육 기관에서의 중장기적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다. 필자가 제안한 활용방안 이외에도 오늘날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활용도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이미 국내외 여러 기관에서 구술기록을 수집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리,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활용방안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정성 있는 구술기록의 수집·관리가 기본이 될 것이다.

구술기록이 구술자, 구술조사 연구자, 기록관리 전문가, 이용자 모두에게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구술기록을 소중히 다루고 의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역할과 책임이 바로 정부 부처를 비롯한 구술기록 연구기관과 이용자에게 있음은 당연한 이치이다. 오늘날 우리는 구술기록을 통해 과거와 현재는 시간적·공간적으로 다르지만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인지해야 하며, 구술자들의 과거는 단순한 기억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삶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있으며, 과거와 미래가 겹쳐진 채 우리 앞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논문

- 배은희, 「지역 구술기록의 생산과 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 -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2), 한국기록관리학회, 2018, pp.85-108.
- 이은정, 「해양분야 구술채록 성과와 의의」, 『바다사람 조사성과와 의의 발표자료집』, 국립해양박물관, 2021, pp.1-17.
- 함한희, 「구술사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구술사연구』1(1), 한국구술사학회, 2010, pp.7-47.

## 단행본

- 국립무형유산원,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 구술채록 연구의 성과와 가능성』, 국립무형유산원, 2014.

## 보고서

- 해양수산부, 「2015년도 원양산업 실태조사」, 2016.
- \_\_\_\_\_, 「해양·수산분야 휴먼스토리 연구용역 추진계획(안) 보고」, 2018.
- \_\_\_\_\_, 「연안어업 휴먼스토리 연구용역 추진계획 보고」, 2019.
- \_\_\_\_\_, 「2020년 휴먼스토리 연구용역 추진계획 보고」, 2020.
- \_\_\_\_\_, 「2021년 휴먼스토리 연구용역 추진계획 보고」, 2021.
- 해양수산부·국립해양박물관,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 1』, 국립해양박물관, 2019.
- \_\_\_\_\_,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 2』, 국립해양박물관, 2019.
- \_\_\_\_\_,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 3』, 국립해양박물관, 2020.
- \_\_\_\_\_,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 4』, 국립해양박물관, 2021

## 웹페이지

- 국립해양박물관, “〈바다와 여성〉 전시 속 그곳 영도 깡깡이 예술마을”. 국립해양박물관 블로그, 2020년 8월 25일, <https://blog.naver.com/museum4you/222070406279> (검색일: 2022.5.11.).
- \_\_\_\_\_,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조선시대 배를 통한 선조들의 기술과 생활을 관람하세요! -‘조선(造船)의 나라, 조선(朝鮮)’전시회 개최” , 국립해양박물관 블로그, 2021년, <https://blog.naver.com/museum4you/222520945388> (검색일: 2022.5.11.).
- 해양수산부, “바다와 함께한 보통사람의 이야기를 기억하다”,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21년 11월 29일,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83293> (검색일: 2022.5.11.).

## 웹진

- 권미현, 「구술기록의 관리와 활용:기분방향과 새로운 패러다임」, 『기록인(IN)』20, 국가기록원, 2012.
- 윤택림, 「왜 구술사인가 : 한국 근현대사에서 구술 기록의 중요성」, 『기록인(IN)』20, 국가기록원, 2012.

#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에 대한 아카이브 체계 구축과 그 방안

권현경 | 국립해양박물관 학술연구팀

- 서론
- 〈휴먼스토리 연구용역〉 아카이브 구축 형태와 방법, 성과
- 국립해양박물관 오션아카이브 현황과 필요성
- 향후 오션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제언

#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에 대한 아카이브 체계 구축과 그 방안

## 1. 서론

국립해양박물관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한 〈휴먼스토리 연구용역〉 사업을 총 4회 수행하였다. 이 연구 용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령화로 인해 언젠가 사라질지도 모르는 해양관련 종사자들의 이야기들을 체계적으로 구술하여 채록하는 것이다. 연구 용역의 결과물로 구술 채록된 자료들은 형태적 측면에서 영상, 음성, 사진, 문서자료(전사본, 편집본) 등이 디지털화되어 체계적으로 남겨져 있다. 이러한 가치 있는 유·무형의 자료를 집대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보존, 활용하는 시스템을 아카이브 Archives라 정의한다. 아카이브는 과거의 족적을 잘 정리하여 현재와 미래에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자산관리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들의 체계적 보존과 관리 작업을 지속한다면 디지털 아카이브 Digital Archives로서 보존, 관리, 활용의 측면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라 생각된다. 또한, 근현대 자료 발굴과 생활사 자료 확보에 기여하여 항구적으로 해양문화유산으로 남겨져 대표적 해양자료로서 보고가 될 것이다. 휴먼스토리 연구 사업과는 별개로 국립해양박물관은 최근 3년간 어로기술문화에 대한 학술연구 조사를 지역별로 시행하였다. 또한 코로나-19가 전파되기 전 역사·인류·민속적 조사 범위를 국제 사회로 넓혀 해외의 해양문화의 교류와 상호이해 증진을 목표로 국외 해양문화유산 조사도 병행하였다. 2017년과 2018년에는 조선통신사 행로에 대한 일본 현지조사를 2019년에는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남부의 민족지 현지조사를 수행하여 보고서로 발간하였다.

최근 디지털 지식시대를 맞이하여 이러한 국내·외 조사 연구 자료들은 시간이 지나 방대한 자료로 축적되어 이를 국립해양박물관 차원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더 나아가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구축하여 편의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아직은 국립해양박물관

아카이브 구축과 이에 대한 관심과 집중도는 미약한 단계지만 이번 논고를 통해 국립해양박물관이 그동안 얻은 학술조사 결과물의 아카이빙 방식과 현황, 필요성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고자 한다.

## 2. <휴먼스토리 연구용역> 아카이브 구축 방법와 형태, 성과

바다의 역사는 대체로 역사는 있으되 기록은 없는 유사무서(有史無書)의 역사라고 한다.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을 온전히 기록하는 것 자체가 결코 녹록치 않다. 산업이 발전되면서 우리는 빠르게 변해가는 사회를 살고 있으며, 바다 사람들의 역시 같은 궤의 삶을 살고 있다. 예를 들면 포구에서 항구로 발전하면서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진 테우와 돛배의 수요는 거의 없어졌고, 신안의 많은 염전 부지들은 국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태양광 발전 부지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지난 200년의 전통을 이어온 부산 가덕도의 송어잡이는 최근 신항 준공 이후 어획량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심지어 선원들의 인건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들의 드러나지 않은 일상의 역사를 온전히 남기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국립해양박물관은 2018년부터 총 4년간 휴먼스토리 연구용역 사업을 이끌어 왔다. 누군가의 시각에서 보면 사사로운 작업이라 할 수 있지만 이 역시 누군가가 기록하지 않으면 영원히 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작업으로 통해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로 채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간 휴먼스토리 연구용역에서 다루온 주제와 조사기간, 조사대상자, 참여 연구진들의 목록을 <표1>로 정리하였다. 2018년부터 해양과 수산 분야를 총망라하여 5개의 주제를 다뤘고, 이 기간동안 총 36명의 연구진들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였다. 연구가 처음으로 시작된 2018년에는 해양과 수산이라는 비교적 큰 범위의 주제를 종합적으로 다뤘으며, 2019년부터는 주제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세분화하여 심층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각 주제별 연구기간은 6~8개월 정도였으며, 각 분야별 구술조사 대상자는 총 12명으로 4년간 총 60명이 인터뷰에 참여하였다.

구술조사 대상자 선발은 연구의 취지에 맞게 대상 연령에서 일정 부분 제한 두었으며, 최소 60세 이상으로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주제 특성상 일부 지역에 구술조사 대상자가 한정될 수 있다 판단되어, 최대한 전국 각지에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선발하였다. 그리고 대중에게 크게 노출되지 않았으며, 타 조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최대한 '보통사람들의 이야기'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조사 대상자의 최종적인 선발은 국립해양박물관과 해양수산부의 승인, 전문가 검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2018년부터 해양수산부에서 발주한 휴먼스토리 연구용역은 그간 엄정한 절차와 평가를 거쳐 필요 자격을 갖춘 사업수행자를 선발하였으며, 이러한 공모 과정을 통해 국립해양박물관은 구술조사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4년간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총괄은 국립해양박물관 학술연구



구팀에서 맡았으며, 교육기관에서 해양역사·문화 또는 구술 채록 조사 등에 대해 연구하거나 전공한 전문가들이 개인자격으로 참여하여 국립해양박물관과 협업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이끌어 갔다.

〈표 1〉 2018~2021년 휴먼스토리 연구용역 개요

주제	기간	조사 대상자	참여 연구진
1 해양	2018.10.19. ~ 2019. 5.19.	강애순, 강용기 강용정, 김대식 박용주, 박철형 이영기, 이영재 이제호, 장찬영 최정윤, 한기선	총괄 : 주강현(MMK) 책임연구원 : 권유리(MMK), 이은정(이하 영남대) 조사 : 이은정, 정재영, 김유신, 김주영 원고집필 : 이은정, 정재영 사진 및 촬영 : 김유신, 김주영
2 수산	2018.10.19. ~ 2019. 5.19.	강 철, 김민식 김해원, 양치권 유명근, 이금숙 이승식, 이종석 임성식, 장천수 지홍태, 황태섭	총괄 : 주강현 책임연구원 : 전경호(MMK), 박경하(이하 중앙대) 조사 : 박경하, 이대화, 한미라, 차지원 원고집필 : 이대화, 한미라 사진 및 촬영 : 이대화, 차지원
3 연안 어업	2019. 5.20. ~ 2019.12.15.	강도건, 강부선 강성기, 김우경 김진수, 김찬식 방상현, 손흥주 임선구, 장재수 한승남, 홍운기	총괄 : 주강현 책임연구원 : 권유리, 정해조(이하 부경대) 조사 : 정해조, 노용석, 이정화, 김슬기, 박명숙 원고집필 : 노용석, 이정화, 김슬기, 박명숙 전사 : 박하영 사진 및 촬영 : 황인모, 이정화, 김슬기, 박명숙
4 해양 문화	2020. 3.26. ~ 2020.11.19.	강창언, 김관일 김진수, 김창명 박명호, 최신일 이강윤, 정성수 김동언, 배재적 정경용, 최병천	총괄 : 이종배(MMK) 책임연구원 : 권유리, 김태만(이하 한국해양대) 조사 : 김태만, 강병관, 박진명, 최민영 원고집필 : 강병관, 박진명, 박정오, 우동준 전사 : 박진명, 박정오, 우동준 사진 및 촬영 : 강명수
5 원양 어업	2021. 3. 8. ~ 2021.11. 8.	김규수, 김금열 김형돌, 문인리 여재구, 이삼열 이종순, 장백권 장운용, 정호모 하동현, 하이호	총괄 : 김태만(MMK) 책임연구원 : 서영남(MMK), 채영희(이하 부경대) 조사 : 채영희, 황경숙, 주현희, 심민정 원고집필 : 채영희, 황경숙, 주현희, 심민정 전사 : 채영희, 황경숙, 주현희, 심민정 사진 및 촬영 : 문진우, 김관민, 오승진, 이호영

\* MMK는 National Maritime Museum of Korea의 약자로 국립해양박물관의 영문표기이다.

다음은 구술조사 전에 이루어진 예비 조사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구술조사 대상자 선정 후 선행 연구나 문헌자료 등으로 사전에 기초정보를 수집하고 본조사시 초기의 방향성과 계획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 이를 분석한 다음 조사에 임하였다. 이러한 예비조사를 충분히 거친 후 조사 항목을 구체화하였으며 특히, 구술생애사 인터뷰 질문 범주를 전생애 주기로 개략적으로 구성하여 선정된 구술자에 적합한 질문 범주로 재구성하였다. 이 질문 범주는 앞서 장현정 대표의 논고 ‘유사무서 有史無書, 바닷가 보통 사람들의 생애’ (p.49 참고)에서 언급된 바가 있어 이 글에서는 생략하겠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조사대상, 유형, 지역과 함께 구술조사의 필요성, 방향과 계획 등에 대해 예비보고서로 소략하게 정리하여 남겨두었다.

구술조사 대상자와 첫 번째 면담에서는 <표 2>와 같이 구술 및 자료 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확보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연구 목적과 취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구술조사 대상자 중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귀중한 개인의 시간을 내어주시는데 감사한 의미로 사례비를 전원에게 지급하였다. 구술대상자와 연구진과는 일종의 라포형성을 위해 최소 2~3번의 면담으로 진행되었다. 구술조사 인원은 2~3인을 1조로 구성하여 1회당 2시간 내외로 조사를 진행하였고, 면담이 끝난 직후에 면담보고서를 작성하여 진행상황, 구술내용과 그 의미 파악, 핵심어, 특기사항을 바로 기록하였다. 그리고 앞서 허영란 교수 논고 ‘바다 사람의 기억으로 엮어가는 역사’에서 구술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동의하더라도 구술 자료로서 타당한 절차를 거쳐 적절한 형식으로 객관화되고 있는가에 대한 중요성을 밝혔다. 그간 구술 채록된 결과들은 대중성 있는 서적 형태로 『바다사람들의 생애사 1~4』 시리즈로 출판되었다. 이 과정에서 구술 채록된 내용이 일부 가독성 있는 형태로 편집되어 왔으며, 조사 방법과 그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전무하여 이에 대해 그간 구술매체별 기록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구술조사시 영상 촬영과 함께 사진 촬영, 음성기록을 병행하였다. 영상 기록은 HD 방식으로 촬영하되 카메라 각도는 45도 내외로 구술자의 상반신 정도를 촬영하였다. 영상 촬영과 동시에 녹음을 실시하였고 AVI 원본파일 형태로 저장하였으며, 면담일시, 장소, 참여자, 촬영내용을 담은 촬영 보고서를 함께 작성하였다. 사진 촬영은 구술자의 전신과 상반신, 클로즈업 등으로 구성하여 촬영하였으며, 구술자의 인터뷰 당시 촬영뿐만 아니라 구술자의 주거지, 경제활동 공간, 특별한 공간의 촬영을 병행하였다. 또한, 구술자가 가지고 있는 자료(사진, 소지품, 소장품)를 복사 촬영하였으며, 이에 대한 목록표를 별도로 작성하였다. 사진 촬영을 위한 카메라는 디지털 1,200만 화소 이상으로 촬영하였으며, 사진 파일은 RAW와 함께 TIFF, JPG파일로 각각 변환하여 저장하였다. 음성기록은 구술자당 2~3회 이상 실시하였으며, MP3파일로 저장하였다. 따라서 <표 3>은 위와 같은 촬영과 기록방식으로 그간 구술조사 대상자 별 수집된 자료 개수, 시간 등을 총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 2〉 구술 및 자료 활용 동의서

## 구술 및 자료 활용 동의서

국립해양박물관에서는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오신 분들의 다양한 경험을 구술로 채록하고 기록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구술은 우리나라 해양문화의 기록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과 취지로 선생님께 구술을 요청 드리고 이 결과물(발간서)은 연구와 교육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니 활용을 승낙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해양박물관의 구술 및 자료 활용 요청을 승낙합니다.

국립해양박물관 귀중  
0000년 00월 00일

구술자

(서명)

〈표 3〉 휴먼스토리 연구영역을 통해 수집된 자료 목록

구분	성명	녹취(개, 시분초)		동영상(개, 시분초)		사진(개)	소장자료(개)
		개	시분초	개	시분초		
해양	강애순	2	3h 48m 25s	2	4h 13m 25s	30	42
	강용기	3	4h 51m 46s	6	4h 45m 50s	30	53
	강용정	3	4h 39m 28s	9	4h 37m 30s	34	52
	김대식	2	3h 41m 39s	6	3h 1m 38s	30	6
	박용주	2	3h 56m 59s	13	3h 55m 16s	30	22
	박철형	2	3h 44m 39s	17	3h 17m 29s	30	25
	이영기	3	4h 26m 18s	11	4h 33m 11s	30	48
	이영재	3	4h 48m 28s	17	4h 41m 30s	30	49
	이제호	3	3h 17m 50s	12	3h 27m 44s	30	36
	정찬영	2	3h 51m 29s	9	3h 50m 49s	30	9
	최정윤	3	5h 8m 12s	17	5h 0m 13s	30	47
	한기선	3	1h 39m 46s	5	2h 8m 6s	30	10

수산	강 철	2	4h 24m 16s	4	4h 36m 11s	40	3
	김민식	5	3h 17m 55s	6	3h 18m 13s	40	2
	김해원	5	3h 45m 12s	3	3h 47m 12s	40	0
	양치권	2	4h 24m 10s	3	4h 2m 23s	39	12
	유명근	2	2h 45m 26s	2	2h 51m 52s	40	2
	이금숙	2	2h 30m 1s	2	2h 31m 25s	41	0
	이승식	3	3h 8m 9s	3	3h 6m 10s	43	2
	이종석	3	2h 52m 3s	2	3h 8m 36s	40	2
	임성식	2	3h 0m 28s	2	3h 11m 39s	40	28
	장천수	2	2h 53m 21s	5	3h 5m 52s	40	0
	지홍태	2	3h 4m 25s	3	3h 9m 8s	40	4
황태섭	2	3h 15m 20s	3	3h 13m 44s	24	9	
연안 어업	강도건	4	4h 10m 5s	18	4h 47m 53s	25	0
	강부선	4	4h 49m 35s	14	3h 56m 6s	23	0
	강성기	4	4h 39m 22s	14	3h 39m 59s	25	0
	김우경	4	5h 9m 43s	15	4h 5m 19s	21	0
	김진수	4	3h 56m 46s	27	4h 4m 1s	25	0
	김찬식	4	5h 9m 9s	18	3h 34m 29s	24	0
	박상현	4	4h 15m 34s	17	4h 8m 33s	22	0
	손홍주	4	4h 18m 56s	31	8h 2m 33s	27	0
	임선구	4	4h 5m 25s	10	4h 2m 23s	22	0
	장재수	4	4h 15m 3s	16	4h 17m 31s	27	0
	한승남	4	4h 14m 37s	16	3h 11m 44s	77	0
홍운기	4	4h 46m 7s	23	4h 42m 49s	27	0	
해양 문화	강창언	2	3h 2m 28s	3	3h 4m 35s	30	21
	김관일	1	49m 48s	1	53m 40s	30	3
	김동언	2	2h 41m 52s	3	4h 20m 7s	30	1
	김진수	2	2h 50m 4s	2	1h 42m 30s	30	11
	김창명	2	1h 6m 21s	1	1h 5m 21s	30	3
	박명호	2	2h 31m 45s	3	2h 36m 32s	30	4
	배재적	2	2h 58m 53s	2	3h 1m 19s	30	5
	이강윤	2	2h 38m 28s	2	2h 40m 30s	30	2
	정경용	2	3h 9m 25s	2	2h 56m 27s	30	5
	정성수	2	2h 55m 40s	3	3h 3m 31s	30	9
	최병천	1	27m 33s	1	18m 31s	30	1
최신일	2	7h 14m 14s	1	42m	30	2	
원양 어업	김규수	5	6h 37m 19s	4	4h 56m 34s	63	66
	김금열	4	3h 20m 5s	13	2h 55m 41s	39	68
	김형돌	3	2h 46m 38s	4	2h 48m 54s	27	0
	문인리	6	4h 36m 33s	8	4h 3m 7s	62	12
	여재구	6	4h 53m 33s	10	3h 17m 51s	106	25
	이삼열	18	7h 14m 26s	25	7h 3m 21s	59	27
	이종순	3	4h 17m 42s	5	4h 28m 39s	22	9
	장백권	4	3h 35m 40s	13	3h 10m 20s	43	22
	장운용	4	2h 29m 1s	6	2h 18m 48s	31	20
	정호모	6	3h 24m 33s	14	3h 6m 47s	73	40
	하동현	4	3h 36m 19s	6	3h 32m 56s	47	6
	하이호	3	4h 11m 13s	13	3h 47m 11s	76	22

사진, 영상, 음성 기록을 통한 구술 채록 결과물의 파일명은 지속적인 통일성을 위해 더블린 코어 Dublin Core 방식으로 표기하였다. <표 4>은 파일명 작성에 대한 더블린 코어 방식의 상세한 설명으로 해당 작성법은 휴먼스토리 연구용역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 자료의 생산과 관리 측면에서 일관성과 체계성을 갖추도록 노력하였다.

<표 4> 자료번호 붙이는 방법과 예시

### ◇ 자료 분류번호 작성법

자료를 입력하는 순서에 따라 임의로 일련번호를 붙여서 표시하는 방식으로, 각 자료마다 고유한 ID를 부여한다.

#### ○ 분류번호 붙이기

휴먼스토리 연구용역에서 수집한 자료는 형태에 따라서 음성, 동영상, 사진, 문서, 물증 자료로 나뉜다. 각 자료의 형태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번호를 매긴다.

#### <분류번호>

기록형태번호/지역번호/자료내용의 범주/제작년월일/영문이니셜(연구자구술자)/시퀀스 (빈칸 없이 이어서 표기하며, 기록방식번호와 범주 사이에만 ‘-’를 그어준다)

- ① 기록형태번호 : 자료의 기록 및 저장한 방식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분류번호를 매긴다. 그 분류는 아라비아 숫자 한자리로 표기하는데, 다음과 같다.  
동영상 자료(1), 사진 자료(2), 음향 자료(3), 문서 자료(4), 실물 자료(5) 이다.
- ② 지역번호 : 해당 자료를 수집한 지역을 표기한다. 지역번호는 알파벳 숫자 두자리로 표기하며, 각 지역별 번호는 다음과 같다.  
서울(01), 강원도(02), 경기도(03), 경상남도(04), 경상북도(05), 전라남도(06), 전라북도(07), 충청남도(08), 충청북도(09), 제주도(10), 외국(11), 지역 미상(12)
- ③ 자료내용의 범주 : 자료의 성격을 규정하는 범주이며, 해당범주의 코드는 영어의 약호로 표기한다. 알파벳 대문자 두자를 사용하여 고유번호를 표기한다.

- 구술 생애사 Life History (LH)
- 지형 공간 Topography & Space (TS)
- 근대유적 Modern Remains (MR)
- 사건 Event (EV)
- 실물 Real Material (RM)
- 문서 Text (TE)
- 극영화 Fiction Film (FF)
- 비극영화 Nonfiction Film: 뉴스릴 Newsreel (NE), 다큐멘터리 Documentary (DO)
- 드라마 Drama (DR)
- 비전문인영화 Amateur film (AF)
- 국립해양박물관 제작 연구자료 Production (PR)
- 기타 Etc (ET)

④ **제작년월일** : 해당 자료를 기록·제작한 날짜를 일·월·연도의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 8자리로 빈칸 없이 표기한다. 예) ddmmyyyy

단, 자료의 제작시기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정확한 시기만을 표기하고 나머지 자리는 '0'으로 표기한다. 예) 00mmyyyy, 0000yyyy, 00000000

자료의 제작시기가 부정확하지만 대략적으로 추정이 가능한 경우엔 제작년대를 표기한다. 그리고 제작년대 다음에 알파벳 소문자 's'를 추가로 표기하고, 나머지 자리는 '0'으로 표기한다. 예) 0001950s, 0001960s, 0001970s

⑤ **연구자구술자명(영문이니셜)** : 해당 자료의 연구자와 구술자의 영문이니셜을 연속적으로 입력한다. 영문 대문자를 사용하며, 한글은 사용하지 않는다. 단, 글자수는 6자로 제한한다.

⑥ **순서(시퀀스)** : 순서(시퀀스)는 아라비아숫자 네 자리수로 표기한다. 해당자료의 제작년월일을 기준으로 입력 순서에 따라 시퀀스를 표기한다.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연구자에 의해서 제작된 자료를 구별하기 위하여 입력순서를 표기한다.

○ 자료 분류번호 붙이기의 예(1-07LH08112003HGDKCS0001)

위의 번호는 2003년 11월 8일 전북(07)에서 연구자 홍길동(HGD)이 김철수(KCS)의 구술생애사 (LH)를 기록한 첫 번째 동영상 자료라는 뜻이다.

<u>1</u>	-	<u>07</u>	<u>LH</u>	<u>08112003</u>	<u>HGDKCS</u>	<u>0001</u>
동영상	-	전북	구술생애사	제작일월연도	연구자구술자명	자료입력순서

그리고 국립해양박물관은 향후 사업에 대한 결과물로 오션아카이브 시스템 구축과 함께 일반 이용자 모두를 위한 아카이브 서비스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영상, 사진, 음성 구술 채록 자료에 대해 각각 메타데이터(표 5)를 작성하였다.

다음은 매체별로 기록된 구술 채록 자료를 바탕으로 면담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연구자가 처음으로 구술 채록된 음성자료를 문자자료로 전환하기 위해 전사<sup>轉寫</sup>를 수행하였다. 또한, 전사 작업은 가급적 인터뷰가 끝난 직후 순서대로 진행하였으며, 기록된 구술 자료에서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사본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 질문과 답을 대화체로 작성한다.
- 지나치게 반복되는 감탄사를 생략한다.
- 사투리, 외래어, 한자말은 첫 1회만 ()안에 표준어, 외국어, 한자를 표기한다.
- 문장 끝은 마침표를 쓰며, 문장 완성을 위해 생략된 단어 및 절을 [] 안에 넣어 준다.
- 숫자는 원칙적으로 아라비아 숫자를 쓰되, 내용 전달이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한글로 쓴다.
- 각주 부호 위치는 문장 부호 다음에 쓴다.
- 각주는 전문 분야의 용어, 인명, 지명, 사건과 같은 고유명사에 대해서 작성하여 보완 설명을 한다. 또한, 의미 파악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석 작업을 행하며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 파일명은 더블린 코어 방식으로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사본이 모두 완성되면 연구자는 대중들이 이해하기 쉬운 출판물 형태로 편집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편집본은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구술자에게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는 검독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구술자가 비공개 처리를 원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해당 부분을 마지막으로 검토하였다. 그 후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하여 편집본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받고 최종 수정과 보완 작업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은 1~2번 이상의 원고에 대한 검토와 수정 작업으로 이루어졌다.

〈표 5〉 메타데이터 작성 양식

<b>메타데이터</b>	
제 목	000의 구술생애사
제작자 / 녹취자	
주 제	
*주요내용	
제작기관	(소속)
구 술 자	
기록형태	음성 <input type="checkbox"/> 동영상 <input type="checkbox"/> 사진 <input type="checkbox"/> 텍스트 <input type="checkbox"/>
제작년월일	0000년 00월 00일
자료형식	hwp
*자료번호	더블린코어 번호 부여(표 4 참조)
자료출처	국립해양박물관
*기록언어	한국어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자료배경	
연관자료	
저작권	국립해양박물관
디지털화여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자료위치	국립해양박물관

구술조사시 구술대상자에게 소장한 자료 현황 파악을 위해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수집 가능한 자료 소장 여부를 조사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소장자료에 대해서는 사진촬영 후 파일과 목록표를 작성하여 정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실제 2018년 영도 갯강이 마을에 사는 강애순 선생은 배의 수리를 시작하기 전 선체에 붙은 조개껍데기나 녹슨 부분을 떼어내는 작업인 갯강이질에 사용하는 도구를 국립해양박물관에 기증해 주셨다. 갯강이 아지매였던 기증 신청자는 직접 사용한 도구들로 날이 무디어지면 대장간에서 보수해가며 사용했다고 한다. 가덕도 전통 송어잡이 김관일 어로장은 잡은 송어의 개수를 셀 때 쓰는 도구(주산)를 2021년 박물관에 기증해주셨으며, 특히 2021년 문인리, 정효모 선생은 선원수첩, 항해도구, 어구 설계도면 등 다양한 원양어업과 관련된 현대 자료들을 박물관에 직접 기증해 주셨다. 이러한 생활사 자료는 개인의 삶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과 동시에 이 연구 용역을 통해 박물관으로써 우리기관이 조사 연구와 자료 수집, 보존이라는 선순환의 기능적 역할을 하며 아주 충실하게 수행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해당 자료들은 국립해양박물관 내 〈자료 수집 규정〉에 의해 공식적인 기증 절차를 밟아 현재 항온·항습 시설인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모든 기증 자료에 대한 소유권은 국립해양박물관이 가지고 있으며, 〈자료기증자 예우 지침〉에 따라 기증자에게는 일부 특전을 부여하고 있다.



〈표 6〉 휴먼스토리 연구 용역 기증자 및 기증 물품

연도	기증자	기증자료	자료 사진	
2018년	강애순	강강이질에 사용한 도구		
2021년	문인리	선원수첩		
	정효모	육분의 외 약 100점		
2022년	김관일	승어주산		

### 3. 국립해양박물관 오션 아카이브 현황과 필요성

국립해양박물관은 「국립해양박물관법 제1조」에 따라 해양문화와 해양수산업의 유산을 발굴, 보전, 연구 및 전시함으로써 해양문화의 진흥과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한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 국립해양박물관의 업무 영역은 해양의 모든 범위에서 학술조사·연구, 전시, 교육, 자료 수집 및 관리·보전 등이 있다. 이러한 범위에서 박물관의 고유한 학예 업무들은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조사연구, 기록화 그리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이며, 일관성 있게 보전·관리하는 아카이브는 전체적인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기반이자 핵심 영역이다.

디지털 환경의 변화와 함께 정보화의 물결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1999년에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기록보존소'가 '국가기록원'으로 승격되었고, 이로써 '아카이브'가 본격적으로 사회적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00년부터이다. 이런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 개인의 관심에서 지자체 및 각 학교나 회사 등의 관심으로 확장할 수 있었다. 정보화 시대와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이 활성화됨에 따라 이용자의 원하는 정보 요구는 더욱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기관별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각각의 고유한 기능을 확장하면서 박물관, 도서관, 기록관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Library, 기록관Archives, 박물관Museum의 기능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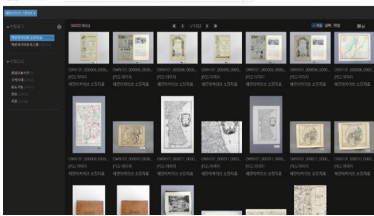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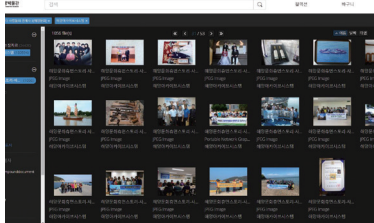
역할이 하나로 통합된 기록관의 유형으로 ‘라키비움(Larchiveum)’이라는 개념이 탄생되기도 하였다.

선행된 연구사례에 따르면 박물관 아카이브는 행정기록물이 아닌 박물관의 조사, 연구와 같은 박물관의 고유 기능을 하면서 발생하는 박물관 기록물을 수집한다고 정의하며, 다른 아카이브와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특히, 박물관형 아카이브는 해당 박물관의 합목적성에 맞는 유무형의 자료이며, 자료 수집에 있어 복제 자료의 정보적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순수, 일반 아카이브 보다는 수집가능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다.

2015년 법인으로 설립된 국립해양박물관 역시 박물관의 설립 목적과 함께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아카이빙을 실현하기 위해 일정 부분 노력하였다. 2015년 ‘해양아카이브시스템’과 ‘해양아카이브 소장자료’로 구분하여 웹 서버 기반의 시스템을 개발하고 현재 관리 중에 있다. 이중 ‘해양아카이브 시스템’은 박물관 생산문서(자료)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시스템으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각종 자료가 보관되어 있으며, 내부 이용자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어 일반 대중의 접근과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점이 있다(〈표7〉 참고).

또한, 해양아카이브 시스템에 탑재된 자료들은 학술자료 외 국립해양박물관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활동 자료나 내부 운영과 관련한 모든 매체의 자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학술자료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 일부는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표 7〉 국립해양박물관 해양아카이브 시스템 개요 (해양문화 아카이브 구축 계획(안)참고)

해양아카이브 소장자료	해양아카이브 시스템
	
<p>○ 박물관 유물(자료)의 데이터 시스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외유물사진, 국적, 시대, 용도, 기능, 장르, 재질의 범주로 분류</li> <li>- 박물관에서 수집·보관하고 있는 유물(자료)의 보존을 위해 데이터화하여 관리</li> <li>* 총 34,430 개의 데이터 관리 중 (2022년 기준)</li> </ul>	<p>○ 박물관 생산문서(자료)의 데이터 시스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술연구, 전시기획, 유물관리, 도서관, 기록관, 교육문화사업, 대외협력 등의 범주로 분류</li> <li>- 학술연구, 전시, 교육, 대외협력 등 각종 사업 시행 후 생산된 자료(사진, 동영상, 팸플릿 등)와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각종 자료(도면 등) 보관</li> <li>* 총 180,588개의 데이터 관리 중 (2022년 기준)</li> </ul>
<p>유일성과 문화유산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유물과 구분하여 아카이브 자료는 정보적 가치 중심으로 관리</p>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2019년 〈Ocean Digital Archive Gallery 구축 계획(안)〉 수립에 이어, 〈해양문화 아카이브 구축 계획(안)〉을 수립하였으나, 아쉽게도 구체적인 사업 추진과 직접적인 예산 확보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그렇지만 이용자 중심의 시스템 고도화 및 디지털 아카이브 자료실 구축 등 추진 전략과 계획 수립은 국립해양박물관이 당면한 문제를 파악하여 성공적인 아카이브 운영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는 것에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국립무형유산원 등 문화예술기관의 아카이브 구축 사업(〈표 8〉 참고)에 비해 비교적 늦게 시작한 한계점을 극복하여 오션 아카이브로의 전문성과 그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립해양박물관은 한 부서의 노력이 아닌 전사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자체적인 방안 모색과 함께 별도 예산 및 전문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타 박물관의 아카이브 사례를 보면 아카이브 전담 인력과 부서가 조직 내에 별도로 존재하며, 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박물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자료의 생산, 구입, 수증 과정을 거친 후 사업 혹은 아카이브 담당자가 이를 디지털로 변환한다. 이 중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자료를 선별하여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아카이브시스템의 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표 8〉 국가 및 유관기관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사례


명칭 (기관)	수집대상	자료현황	
민속아카이브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자료 ○발간자료	• 사진 977,654점 • 영상 11,667점 • 음원 7,244점 • 문서 등 기타자료 14,821점	약 1,000,000점
무형유산 디지털아카이브 (국립무형유산원)	○전통공연, 예술 ○전통기술, 지식 ○구전 전통 및 표현 ○생활관습 ○국립무형유산원 생산자료 ○인간문화재, 연구자 등에게 수집한 자료 공개	• 사진 74,375건 • 영상 579건 • 음원 125건 • 도서 531건	약 75,610건
ACC아시아문화 아카이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문주제컬렉션 ○기증컬렉션 ○기관정책&운영 ○ACC 콘텐츠 ○기획콘텐츠	• 이미지 39,485점 • 동영상 4,479점 • 음원 234점 • 문서 등 기타 625점	약 44,823점
한국해양수산 아카이브 (부경대학교)	○해양 수산 자료 - 전근대 해양수산자료 - 근대 해양수산자료 - 해양이후자료 - 현대자료 - 한국/일본대상자료 - 기타지역대상자료	• 이미지 55건 • 도서 1,837건	총 1,892점
해양문화유산 디지털 자료보관소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2025년 공개예정	○해양문화유산 조사연구정보 - 수중발굴조사 - 해양유물 - 보존처리 - 연구활동 - 전시업무 등	• 문서 자료 • 사진 • 영상 • 음원 • 도면, 3D 등	약 85만 건

2022년 국립해양박물관 학술연구팀은 <오션아카이브 구축 계획(안)>을 재수립하여 자체적으로 조사 연구 자료의 생산, 분류 및 관리 방법을 통일성 있게 목록화하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였다.

우선 <휴먼스토리 연구용역>과 같이 사라져가는 혹은 사라질지도 모르는 해양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연구는 국립해양박물관의 설립 목적과도 연계된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국내·외 해양문화유산 조사 활동과정에서 생산한 사진, 영상, 음성 자료의 방대한 양은 물론이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간과할 수는 없으며, 결과적으로 조사 활동에 대한 연구 업적을 정리하여 매년 출판물의 형태로 발간하고 있다. 2016년부터 국립해양박물관 학술연구팀에서 수행한 해양문화유산 조사 주제와 지역, 조사기간, 조사자, 연구 성과에 대해 <표 9>로 정리하였다. 또한 학술연구팀은 2016년부터 생산된 국내·외 학술조사를 비롯한 총서 발간,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해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자료를 한곳에 수집하였다. 각 자료 혹은 연관된 자료 묶음마다 휴먼스토리 연구용역과 동일한 방식으로 메타 데이터(<표5> 참고)를 작성하고, 각 자료에 번호(<표 4> 참고)를 통일성 있게 부여하여 분류를 통한 통합 작업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메타데이터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전문적일 수록 자료의 학술적인 가치가 상승하고 미래에 전문자료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다 판단되며, 향후 자료의 관리와 검색에 있어 비효율적으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8> 국립해양박물관 학술연구팀 수행 국내·외 해양문화유산 조사

조사지역/ 주제	현지 조사 기간	조사자	자료현황 / 출판물
통신사 선단의 항로와 항해	(1차) 2017.3. 7.~14. (2차) 2017.5.27.~28.	김주식, 백승옥, 이경희, 김소형, 전경호	사진 4,384개 영상 1개 
국외 세토나이카이 도모노우라	(1차) 2018. 8. 23.~24. (2차) 2018.12. 8.~14. (3차) 2019. 1. 27.~31.	주강현, 이경희, 박솔희, 조민주, 김혜진	사진 207개 음성 6개 
인도네시아 솔라웨시	(1차) 2019. 3.17.~25. (2차) 2019. 4.20.~29.	주강현, 김윤아, 전경호	사진 202개 

국내	해양인물조사	(1차) 2016. 3.14. (2차) 2016. 3.18. (3차) 2016. 4.26. (4차) 2016. 8. 1. (5차) 2016.10. 4.~5. (6차) 2016.10.15.	이범석	사진 422개	
	서해 영해기점	(1차) 2017. 4.24.~28. (2차) 2017. 5.30.~ 6. 1. (3차) 2017. 6.12.~20. (4차) 2017. 9.18.~22.	김소형, 전경호	사진 2,533개	
	동·남해 영해기점	(1차) 2018. 3.27.~30. (2차) 2018. 4.16.~19. (3차) 2018. 4.25.~27. (4차) 2018. 5.21.~23.	백승옥, 김영길, 전경호, 제아름, 김승신, 이에니	사진 659개	-
	남해안 해안유적	(1차) 2018. 3.14.~15. (2차) 2018. 3.20. (3차) 2018. 3.26.~30. (4차) 2018. 4.10.~13. (5차) 2018. 5. 3.~ 4. (6차) 2018.10.20. (7차) 2018.12. 6.~ 7.	김승신, 전경호	사진 850개	
	남해안 어업기술 문화	(1차) 2020. 5.11.~14. (2차) 2020. 5.20. (3차) 2020. 5.27.~28. (4차) 2020. 6.8.~11. (5차) 2020. 6.22.~23. (6차) 2020. 7.10. (7차) 2020. 9.14. (8차) 2020. 9.23. (9차) 2020.10.12. (10차) 2020.10.22.	권유리, 전경호, 김진태, 유동균	사진 2,424개 영상 1개 음성 56개	
	동해안 어업기술 문화	(1차) 2021. 2.15.~18. (2차) 2021. 3. 9.~12. (3차) 2021. 3.30.~4. 3. (4차) 2021. 5.24.~25. (5차) 2021. 6.21.~25. (6차) 2021. 7.26.~30. (7차) 2021. 8.23.~27. (8차) 2021.11. 8.~ 9.	권유리, 전경호, 방민규, 김효영, 권현경	사진 1,019개 영상 1개 음성 15개	

#### 4. 향후 오션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제언

과거 축적된 자료부터 지금 현재도 생산되고 있는 자료까지 그 양을 고려한다면 아카이브 작업은 그야말로 시급하다. 이러한 시급성으로 인해 깊은 학문적 논의와 고민이 없다면 오션아카이브 구축 사업은 국립해양박물관의 오랜 숙원 사업밖에 머물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에는 오션아카이브 자료 대상과 범위, 공개 기준, 저작권 쟁점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휴먼스토리 연구 사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축적되어 온 성과물, 기증자료 등이 국립해양박물관 기획, 테마 전시로 연계되어 활용된 사례를 확인하였다.(p.101 참고) 이러한 활용 사례로 우리는 아카이빙된 정보가 다시 사회 속으로 피드백 되는 선순환적 구조의 기반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자료의 수집과 소장 자료의 관리를 넘어 다양한 활용을 통해 또 다른 가치 확산을 고민하는 단계에 올라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는 과거 또는 현재의 자료를 단순하게 저장하고 보여주는 아카이브가 아닌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으로 이용자는 자료수집에서부터 분류, 가공, 분석 등 새로운 차원의 작업 과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아카이브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 등 발전된 기술과의 융합으로 무한한 콘텐츠 개발의 가능성을 가진 박물관으로의 성장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링크를 통해 자료를 다양한 매체와 파일들을 넘나들고, 새로운 개념으로의 자료의 합성이나 분리, 가공하는 등 새로운 지식이 열리는 터전으로 말이다. 결국 아카이브는 현재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닌 미래 해양시대를 위한 작업이라는 사명으로 가지고 국립해양박물관은 오션아카이브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논문

- 김시덕, 「민속 아카이브 구축 - 국립민속박물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民俗研究』 17,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8.
- 김시덕, 「박물관형 아카이브와 민속학적 활용」, 『비교민속학』60, 비교민속학회, 2016.
- 류지연, 「박물관의 아카이브 구축과 활성화 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20.
- 서상민, 「박물관 아카이브 운용 사례와 발전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6.
- 오동욱, 「지속가능한 보존관리를 위한 지역 근대문화자원 아카이브 구축연구」, 『지역사회연구』 26(1), 한국지역사회학회, 2018.
- 이재필, 「국립무형유산원의 아카이브 현황과 향후 정책방안」, 『무형유산』2, 국립무형유산원, 2017.

## 단행본

- 국립해양박물관,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 - 조사성과와 의의』, 국립해양박물관, 2022, pp.89-101

## 보고서

- 국립해양박물관, 「Ocean Digital Archive Gallery(ODAG) 구축 계획(안) 보고」, 2019.
- \_\_\_\_\_, 「해양문화 아카이브 구축 계획(안)」, 2019.
- \_\_\_\_\_, 「오션아카이브 구축 계획(안)」, 2022.
- 해양수산부·국립해양박물관,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 1』, 국립해양박물관, 2019.
- \_\_\_\_\_,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 2』, 국립해양박물관, 2019.
- \_\_\_\_\_,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 3』, 국립해양박물관, 2020.
- \_\_\_\_\_,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 4』, 국립해양박물관, 2021.





# II

---

바다사람들을 통해 본  
구술채록의 지향점

# 바다사람들을 통해 본 구술채록의 지향점

사회자 : 백승옥 (국립해양박물관 학예연구실장)

논의자 : 송지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주무관)

허영란 (울산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김문기 (부경대학교 사학과 교수)



# 바다사람들을 통해 본 구술채록의 지향점\*

**백승옥:**

안녕하십니까. 국립해양박물관 학예연구실장 백승옥입니다. “지향점 논의”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할 경우, 대개 발표와 토론을 하고 그 학술대회를 개최한 목적에 맞추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학술대회의 방식입니다.

다만,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바다사람들에 대한 학술적인 논의라기보다 구술적인 논의를 소개하고 그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술적 토론을 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에서는 ‘지향점 논의’라는 주제에 맞게, 앞으로 구술자료 관련하여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지를 논의하고 기존에 무엇이 부족했는가를 생각해보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지금까지 네 분의 발표가 진행되었고, 앞으로 세 분의 발표가 남아있습니다. 첫 번째로 울산대학교 허영란 교수님의 ‘구술자료와 바다 사람의 생애사라는 공공문화콘텐츠’라는 제목의 말씀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 부경대학교 김문기 교수님께서 ‘오션 아카이브’와 관련하여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 송지은 선생님께서 이번 학술대회의 제목이기도 한 ‘바다 사람 조사성과와 의의’를 말씀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토론자료를 볼 때, 송지은 선생님께서는 ‘바다 사람’ 즉, 휴먼스토리 연구용역사업의 의의와 실행동기 등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주셨습니다. 세 분의 발표 중 송지은 선생님께서 먼저 발표하시는 것이 지향점 논의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송지은 선생님께서 먼저 발표해주시고, 다음으로 허영란 선생님, 김문기 선생님의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송지은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내용의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

\* 이 글은 2021년 7월 2일(금) 국립해양박물관 대강당에서 진행되었던 「국립해양박물관 4개년 바다사람 - 조사성과와 의의」 학술대회의 ‘지향점 논의’ 문답을 녹취하여 편집한 것이다.

## 송지은:

안녕하세요. 저는 해양수산부 송지은입니다. 저는 휴먼스토리 프로젝트의 사업담당자로서 발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술조사에 고군분투하면서 참여해주신 연구진분들과 구술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앞서 4년간의 성과에 대한 교수님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구술조사가 굉장히 섬세하게 설계가 되었음을, 그리고 구술자에 대한 배려와 속도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바다 사람의 조사성과와 의의’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발표의 순서는 먼저 해양수산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추진 현황, 그리고 그 간의 사업성과와 의의, 마지막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합니다.

먼저, 사업의 목적 및 배경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에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해양수산 분야의 종사자들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그들의 이야기가 묻히면서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해양수산 분야의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조사하고 기록해서 해양문화의 확산을 위한 일종의 기초자료 마련이라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분야 휴먼스토리’라는 과업으로 추진이 검토되었습니다.

추진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해마다 12명씩 구술자를 선정해서 심층적인 구술조사를 추진하고, 구술조사의 추진결과를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리즈의 도서로 발간하고자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분야를 좀 더 세분화해서 조사대상을 좀 더 확대하여 장기 프로젝트로 추진할 필요성이 검토되었습니다.

〈표 1〉 해양수산분야 휴먼스토리 추진경과 (2021년 7월 기준)

보고서명	바다사람들의 생애사 1	바다사람들의 생애사 2	바다사람들의 생애사 3
주제	해양 및 수산	연안어업	사라져가는 해양문화
사업기간	2018. 10. ~ 2019. 5.	2019. 5. ~ 12.	2020. 3. ~ 11.
조사대상	해양·수산분야 각 12명	연안어업 종사자 12명	해양문화분야 종사자 12명
연구진	국립해양박물관 영남대학교, 중앙대학교	국립해양박물관 부경대학교	국립해양박물관 한국해양대학교

2018년도에는 해양 및 수산 분야로 각 12명씩, 총 24명을 조사했습니다. 이때는 분야를 세분화 하진 않고, 총괄적인 개념으로 접근하여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삼아 구술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과 영남대학교 그리고 중앙대학교 연구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2019년부터는 해양과 수산분야를 세분화할 필요성을 느꼈으며, 10년 정도의 장기 프로젝트로 분야를 세분화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수산분야의 연안어업을 중심으로 총 12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앞서서 부경대학교 노용석 교수님께서 발표해주신 것처럼 연안어업을 나잠, 통발, 맨손어업, 김양식 등 그 종사자들을 세분하여 구술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 2편을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0년도에 사라져가는 해양문화를 주제로 해서 12명을 선정했습니다. 아까 발표에서 발표해주신 것처럼 민속제례, 민요, 전통사업 등의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서 종사자들에 대한 구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발표하신 부경대학교 채영희 교수님께서 2021년도 과업을 진행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2021년도는 다시 수산분야의 원양어업을 대상으로 12명의 구술자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sup>2</sup> 이 부분은 앞서 발표에서 말씀해주신 부분이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부터 2029년까지의 추진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분야 휴먼스토리는 2019년부터 10년간 장기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사 영역을 해운과 항만, 해녀, 해양과학, 가공업, 레저나 관광, 공공영역으로 점점 확대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표 2〉 해양수산분야 휴먼스토리 추진계획(안)

구분	분야	세부내용(안)	연도
해양	해운/항만	• 항만하역업, 조선업, 선박수리, 크레인기사, 선박 물품 공급업, 외항선 선원 등 • 국내외 해상여객 관련, 수입·수출업(검사원), 도선, 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등	'22
수산	해녀	• 제주해녀 및 육지해녀(울산, 부산, 삼척 등), 국외(일본, 블라디보스톡)출항 해녀 등	'23
해양	해양과학	• 극지연구소, 해양과학기지 관련, 해양생물, 해양자원, 해양과학 연구자 등	'24
수산	가공업	• 수산물 가공공장 등 가공처리업 종사자, 소금 채취업(염전) 관련 등	'25
해양	영토/환경	• 울릉도·독도 주민, 독도의용수비대, 해양생태 해설사, 바다해설사 등 해군함정 근무자, 해경 창설 당시 근무자 등	'26
수산	유통/판매업	• 수산물 중개 도·소매업 관련 종사자, 수산물 직판장, 경매업 관련 종사자 등	'27
해양	레저/관광	• 해양레저, 해양스포츠 관련 종사자, 해양문화관광 관련 종사자 등	'28
공공	공공영역	• 해양수산부 창설 멤버, BPA, IPA 등 설립 담당자, 해군 소속 근무자 등	'29

앞서 발표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구술기록의 체제나 기록의 관점 등에 대해 저희가 검토가 필

2 학술대회 「바다 사람 - 조사성과와 의의」는 2021년 7월 2일(금)에 진행되었으며, 당시 휴먼스토리 연구용역(원양어업)은 진행중에 있었다.

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제별, 인문별, 사건별로 기록을 분류하고 체계화하는 것에 대해 해당 사업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10년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국립해양박물관의 학술연구 사업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연구 추진 방향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업성과와 의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먼스토리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까지 총 60명의 구술기록을 담은 총 4 편의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를 발간하였습니다. 구술조사 과정에서 사진과 영상 음성기록 등 표준화된 데이터를 제작하여 축적하였습니다. 수집 단계에서부터 관리와 활용을 목적에 두었기 때문에 포맷을 규격화하여 수집을 추진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사나 영상물, 사진 등을 활용하여 구술자의 어떤 생활환경을 다양하게 담을 수 있도록 기록하고 현재 그 내용들을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결과물 외의 조사 성과와 의의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연구 축적과 함께 구술 채록의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인문학 연구자들의 인력풀 확보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있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이러한 연구자 분들에 대한 인력풀을 확보한다는 데 이 사업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사진과 영상 그리고 음성기록 자료들을 통해서 다양한 해양수산 관련 콘텐츠 개발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구술채록과 구술자 소장자료 목록도 저희가 구축했기 때문에 향후 박물관 소장자료로 수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 정책자료에 휴먼스토리 자료가 공개가 되고 있고 그에 대한 홍보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확보한 구술기록 자료의 체제성이나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자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가 이 사업에서 더 논의되어야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조사기관에서 어떻게 이 자료를 관리하고 활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측면을 생각해보았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이 4개년의 조사들을 이끌고 나갔기 때문에 박물관이라는 강점을 이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 구술기록에서 스토리텔링적인 요소를 발굴하고 그걸 전시의 서사로 이끌어내어 역사적인 검증을 통해서 활발하게 기획전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수의 박물관이 구술의 기록들을 전시의 기초자료로 이용하고 있고, 관람객과 상호작용하는 매체로써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박물관에서 필요한 작업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시뿐만 아니라 전시와 연계한 교육이나 강연 등의 사업과 성과를 공유하는 것을 첫 번째 활용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박물관이 유물이나 소장자료를 수집할 때, 공개 구입이나 기증이나 경매를 통해 수집하고 있습니다. 구술조사와 박물관 자료수집 체계를 연계하여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구술 대상자에 대한 소장자료를 구축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물관 자료수집의 여러 방법 중 하나로써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창언 선생과 어로장 김관일 선생님이 사용하셨던 ‘제주 태우 설계 도면’이나 송어 잡을 때 쓰는 ‘주관알’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어떤 물건이 유물로서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히스토리와 이야기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박물관이 유물을 수집할 때, 그 맥락이 있는 유물 수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구술조사와 연계하는 유물 수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과제를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가공하고, 제공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보시스템(아카이브)을 구축해서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초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박물관의 연구 성과를 국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보시스템(아카이브) 마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사업의 성과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구술채록을 위해서 참여해주신 연구진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기관 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활동을 강화하고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면서 학술적이고 정책적인 활용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박물관 사업과 중장기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구자분들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중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쉽게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이용자의 수요나 박물관의 환경 등 많은 부분에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가공할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백승옥:

송지은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떤 성과를 내었고 앞으로 계속해서 2029년까지 해보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송지은 선생님 발표를 들어보니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방향성이 정해진 단계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2018년도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줄속으로 시작된 면이 있습니다.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사업 결과에서도 이러한 불안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성과를 3건(『바다 사람들의 생애사』1,2,3)을 김문기 선생님과 허영란 선생님께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 책을 보시고 체크해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두 분 선생님께서 사업 성과물들에 대한 코멘트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특히 허영란 선생님께서는 구술조사의 경험이 풍부하시고, 방법론에도 해박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허영란 선생님께서 준비해 오신 내용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허영란:

일단 제가 토론을 하는 위치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국사가 전공이며, 그중에서 근현대사를 전공했습니다. 지금은 지역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구술사, 공공역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역사가 서울 중심 내지는 행정구역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만, 이제는 생활권 중심의, 지역민 중심의 새로운 역사쓰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해양도 굉장히 중요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동해포구사』 시리즈를 간행을 했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해양의 장소에도 익숙한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듯합니다. 또한 울산 같은 경우는 장생포에서 고래잡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와 관련된 작업에 대해서 2010년부터 (작업을 해서) 『장생포 이야기』라는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주제가 저에게 익숙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현재 제가 한국구술사학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구술사학회는 구술사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는 여러 학문 분과가 모여 있습니다. 역사, 사회학, 인류학, 민속학, 여성학 등 여러 분과에서 이런 구술사라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최근에 어떤 작업이 이루어져왔고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가를 익숙하게 알고 있는 위치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2004년도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구술사, 지역사 10년치 프로젝트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쪽에서 이때부터 구술사 아카이브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15년이 흘러, 그 사이에 많은 기관이 구술 아카이브를 수집하고 있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서비스도 하고 있고, 새로운 문제도 축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깔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만 집중하겠습니다. 제가 본 것은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라는 세 권의 출판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출판물을 검토하면서 느꼈던 의문점들이 토론문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오늘 발표에서 많은 의문이 해소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들이 해소가 되었지만, 여전히 학술행사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라는 책만 보게 됩니다. 그 책을 보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여전히 유의미한 질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술사나 구술 생애사를 히스토리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과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사실이나 해석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화되어있는 근대역사학과 달리 구술사는 개인의 경험을 중심에 두는 역사연구의 방법론이고 관점입니다. 그런 이유로 구술사나 생애사는 전통적인 역사학에서 찬밥 신세였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말하는 각자의 경험에서 객관적 경험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고 사회구조적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죠. 심지어, 개인의 기억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이고 지속적으로 변형되고 재구성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역사학적인 사료가 될 수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항상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술사는 기본적으로는 엘리트 중심의 전통적인 역사학을 비판하고, 아래로부터의 역사, 그리고 보통 사람의 역사를 지향



하며 출발하였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이 연구는 생존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수십 년 동안의 현대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있어서 의미 있는 방법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이 구술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여러 공공기관이 방대한 구술사 인터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15년의 기록을 갖고 있으며, 대통령기록관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구술자료관 같은 곳은 10년 사업을 끝내고 다시 10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학진흥사업성과포털에서도 많은 구술자료가 있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서울역사편찬원 등에서도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구술사의 역사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글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술사는 그것이 수행되는 정치문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강력하게 구속됩니다. 그런데 이번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 경우처럼 공공기관, 즉 해양수산부와 박물관이 주도하면서 과도한 엘리트 구술이 성행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구술사가 아래로부터 역사인 이유는 기존의 역사가 늘 엘리트 중심의 기록을 축적해왔기 때문입니다. 구술까지 엘리트 중심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엘리트 중심의 구술이 진행되었던 것은 그동안 구술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가 급변하면서 구술자들이 생존해 있을 때 가급적 더 많이 모아야한다는 ‘시급성’이라는 논리가 생기게 됩니다. 엘리트 중심의 구술이 어쩔 수 없이 진행되었는데, 시급성의 논리로 이러한 비판을 피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2000년대 들어와서 많은 구술 프로젝트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구술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예시를 소개하자면, 박현수 선생님의 민중생활사연구단입니다. 2005년도에 영남대학교에서 주도하셨을 때 전국의 인류학자, 역사학자, 민속학자들이 참여했죠. 구술의 물증, 증인 등이 사라지고 있다는 시급성 때문에 탁상의 논의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위기의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과를 바탕으로 최근 구술사는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특히 지역사 편찬을 각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를 만들 때 구술 인터뷰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으로써 어디서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화성시사』같은 경우는 30권의 시사를 편찬하는데 그 중의 10권이 구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민들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화성시도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화성시 연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바다 관련 인터뷰를 많이 진행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박현수 선생님의 책을 인용했는데 이것도 ‘어민편’의 구술책입니다.

앞선 방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구술사 방법은 굉장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문화산업, 관광산업이 부상하면서 문화콘텐츠를 생산하는 하나의 방법이자 문화콘텐츠 그 자체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술사는 사람이 등장하고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의 소재로서 주목을 받기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구술사는 출범할 당시의 ‘시급함’을 내세우면서 탁상 논의를 할 겨를이 없으며, 빨리 서둘러서 해야 한다는 단계를 이미 넘어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립해양박물관에서 간행한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도 이러한 조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송지은 선생님께서도 처음에 기획할 때 ‘시급함’을 중요한 근거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인터뷰 대상을 보면, 5~60대가 굉장히 많고, 40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시급함이라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당위이지만, 1차적 동력은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제 말은, 시급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도 각각의 분야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공동으로 경험했을 법한 가까운 과거에 대한 개인적 경험을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라진 과거의 것이 아니라, 사라지거나 변화하는 과정 중에 있는 현재진행형의 경험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못했기 때문에 서둘러 기록해야 한다는 시급성과는 좀 다른, ‘어떻게 기록하고’,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이제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명태가 없는데 명태잡이를 얘기하고 오징어가 없는데 오징어잡이를 얘기하고 하는 것처럼 이제 많은 경험이나 기억이 실체가 아니라 문화적인 기억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화적인 기억을 ‘어떻게 사회화 시킬 것인가?’ 그리고 ‘연구할 것인가?’라는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사실 첫 번째 일부 발표를 통해 어느 정도 의문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책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맥락정보’라는 것인데, 이 구술이 ‘무엇을 위한 구술’인지 ‘어떻게 진행된 구술’인지에 대해 이 책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구술사는 새로운 역사쓰기 방법이고 역사가 없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보적인 역사쓰기 방법입니다.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 역시 그런 문제의식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나 국립해양박물관은 바다를 보듬어 온 사람들의 ‘써지지 않은 역사’를 발굴, 조사, 채록하는 작업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상호의존성’이 큼니다. 구술자의 경험은 과거의 사회적 맥락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의 회상은 현재 처해있는 사회적 맥락 안에서 풀려 나옵니다. 또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과정에서 기억은 재구성되거나 변형되고 삭제됩니다. 때로 구술자는 의도적으로 침묵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구술만으로는 알 수 없는 외적 조건, 구술자 선정배경, 구술 인터뷰가 이루어진 과정, 그 과정에서 드러난 구술자의 개성 같은 것들이 덧붙여져야 합니다.

제가 이 발표문을 작성할 당시에는 놀랍게도 그런 것들이 이 책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구술 인터뷰 과정에서 생성된 ‘구술자료’의 보존과 활용에 대해서도

아무런 정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술 인터뷰는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시점·장소·관계·상황에 따라 구술 인터뷰는 유동적으로 변화합니다. 구술 인터뷰와 구술자료에 대한 정보제공은 이런 윤리적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기초적인 방법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가는 역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윤리적이고 상호이해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 정보를 관리하고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술자의 진술이나 취지를 최대한 존중했다고 하더라도, 구술내용을 축약하고 선별하는 과정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은 집필자입니다. ‘어떤 내용을 쓸 것인가?’, ‘어떤 내용을 소개할 것인가?’ 등의 구술내용에 대해 경중을 판단 및 선별하고 새로운 맥락을 부여하는 기준에 대한 고민과 공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작업들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구술 인터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그 내용들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구술자의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구술자의 사진이 주는 ‘사실효과’로 인해 우리는 책에 구체적인 개인의 경험이 담겨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문답 형식으로 정리되어 있는 본문이 정말로 실제 이루어진 대화인지 정확히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1권은 상당부분이 실제 이루어진 대화 내용을 발췌하여 책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 3권 같은 경우에는 녹취록을 바탕으로 상당히 가공된 것 같습니다. 내용이 합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대로 주고받은 말, 그 자체를 게재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녹취록錄取錄’, 여기서는 ‘전사轉寫’하신다고 표현을 하셨습디만, 보통 인류학 쪽에서는 ‘전사록轉寫錄’이라는 말을 쓰시죠. 녹취록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술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구술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술자는 몸짓, 표정, 목소리, 한숨, 머뭇거림 등 무수한 기호들을 통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장성을 완전히 문자화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녹취록은 그런 한계를 의식하면서 구술을 최대한으로 담아내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내뱉어진 말, 소리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구술자가 표현한 감정과 인식을 기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구술은 구술자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악센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같은 말이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때문에 원고 집필의 ‘원칙과 취지’를 독자와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경우에는 모든 구술자의 구술을 일정한 분량, 약 15쪽 내외로 압축해두었기 때문에 본문을 읽어보아도 구술성을 읽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반인들이 이것을 읽을 때 어떻게 읽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 같은 연구자가 이것을 읽고 어떤 내용을 더 자세히 알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편집이 되었다면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전사록을 보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해당 내용의 전사록은 어디서, 어떻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에 나와야 합니다.

이 콘텐츠 자체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책인지 아니면 자료인지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술 녹취록을 편집하여 책으로 출판하는 행위는 전사록, 녹취록 작성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대개 녹취록은 구술 아카이브로 구성되어 일반에게 자료로써 공개가 됩니다. 반면에 구술 출판물의 생산이나 공급, 보급은 구술 아카이브와는 전혀 다른 목적과 의미를 갖습니다. 구술자료의 공유와 이용을 위해 제작하는 녹취록은 ‘구술성’, 아까 말씀드린 그 구술성이 제일 중요하지만, 구술 출판물은 책이기 때문에 ‘가독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읽을거리로 만들어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때 할 수 있는 질문이, 이게 대체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만든 것인지 아니면 이게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을 미루어 볼 때, 대중에게 보여주기 위해 만든 책 같은데,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대중들에게 이 책을 주면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연구자들은 자신의 연구이기 때문에 이런 구술대화를 읽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술대화는 글로 읽기 위해서 말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녹취록 자체를 그대로 책으로 출판한다면 일반 대중들이 읽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재미도 없습니다. 연구자들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술 인터뷰 녹취록을 읽을 때 소리 내어 읽기도 합니다.

그게 자료이든 책이든 구술 출판물의 편집은 가독성을 염두에 두고 주제와 시간적 선후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주제에 따라 녹취록을 재편집하고 ‘재맥락화’ 해야 합니다. 녹취록의 운문이나 구술 내용에 대한 가필, 수정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합니다만, 공개적이고 일관된 작업원칙 하에서 가독성이 있는 읽을거리로 만드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미국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편집해야 될 것인가, 편집할 때 기술이나 방법도 중요하지만, 윤리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술 콘텐츠는 구술자의 기억이고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생애사 편집 마지막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편집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이 책을 만들 때 어떤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하자, 이렇게 요약하자’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이루어진 구술 녹취록을 읽는 일은 연구자들로서도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애초에 구술은 읽히기 위해 작성된 ‘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독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글이라면 전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래 어떤 목적으로 쓴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여전히 유효한 질문이고 이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역사학자로서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휴먼스토리’ 프로젝트라고 하셨는데, 주로 민속학자나 인류학자들이 주도하셨습니다. 이분들이 현장조사에서 얼마나 막강한 전문성과 열정을 갖고 있는지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인류학이나 민속학을 전공하시는 분들과 협업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연구대상을 공유하는 근현대사 전공자인 저의 눈에는 양자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제가 거칠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경향적으로 역사학자는 지속과 변화 등 시간의 흐름을 주목하고, 민속학자나 인류학자는 현재 전

개되고 있는 문화적 단면을 주목하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술자들을 볼 때는 짧게는 40~50여 년, 길게는 일제강점기에서 시작해서 현재에 이르는 90여 년 간의 구술자의 경험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있어 역사적 접근은 필수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것에 대한 부분을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구술자가 연세가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나는 몇 년도에 무엇을 했다.'라는 식으로 구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이라면 그 시대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이 분이 말씀하시는 게 일제시기 경험인지, 60년대 경험인지 50년대 경험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1권의 예를 들면 이제호 선생님이나 황태섭 선생님처럼 일제시기에 태어나 격동의 역사를 살아온 분들의 구술에서 시간성을 읽어내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보다 젊은 구술자의 구술 역시 시대상이나 시대 변화와의 연결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특징이 있습니다.

역사적 의미를 '장소성' 차원에서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진행되었지만, 2시간씩 2번 이상 인터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편집에서 반영이 안됐을 수도 있습니다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전개되는 역사는 구체적 장소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개인의 삶에서 '장소성'이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바다 사람의 생애사가 어떻게 기록되고 공유되어야 할까하는 질문을 했을 때, 박물관의 프로젝트로서 구술생애사 작업은 학문적인 작업과는 다르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현대사박물관이기도 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이런 현대사 구술인터뷰를 진행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IMF를 경험했던 분들의 경험을 '전시'한다고 생각하고 스튜디오 공간을 아예 만들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전시 콘텐츠의 제작을 염두에 두고 구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작업은 인터뷰의 질도, 화질도 좋고 환경도 좋았지만, 작위적이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작위성'이라는 것 때문에 이러한 작업들이 정말 역사적인 진정성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누구나 쉽게 구술 인터뷰를 박물관의 전시 콘텐츠와 연결시킨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분들이나 저나 요즘 박물관에 가보면 다 스피커나 이어폰 등이 있고 그 헤드셋을 끼면 구술자가 화면에 나와 얘기하는 것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몇 분짜리 클립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서서 꼼꼼하게 다 들으신 분은 별로 안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자는 그것이 쉽게 콘텐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실은 그런 콘텐츠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대중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콘텐츠인가?', '그건 어떤 방식의 체험을 주어야 할까?', '지식을 주어야 할까?', '생생함을 줘야 할까?' 등의 '무엇을 줘야 할까?'라는 고민을 이젠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맺음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4년에 국사편찬위원회의 직원이었습니다. 당시 '구술사·지역사' 프로젝트를 기획했을 때, 굉장히 많은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졌던 문제의식은 구술사와 지역사를 유기적으로 결합하기 위해 '장소'와 '경험'이라는 것의 결합이 필요하다는 생각

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카이빙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시간과 장소’, ‘구조와 개인’, ‘역사와 경험’을 교차시켜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학문적인 분야에서도 인류학, 역사학, 문학 이런 여러 분야가 지금까지 축적된 각자의 관점에서의 성과들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저는 반가운 마음입니다. 지금 구술자료 수집기관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9년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전국의 공공기관에 구술자료 수집 현황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2020년에는 민간기관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민간기관이나 지방단체 등에서 했던 구술자료에 대한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다른 여러 기관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조사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고민, 그 논의를 토대로 하여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나 기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처음에 문제제기 했던 것으로 돌아가 본다면 ‘이제 시급하니까 하고보자’라는 것보다는 좀 더 진전된 고민을 해양수산부나 국립해양박물관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백승옥:

감사합니다. 허영란 선생님께서 크게 네 가지 정도를 말씀해주셨습니다.

#### 〈표 3〉 허영란 발표내용

1. 시급함 이후 -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
2. 맥락정보 - 무엇을 위한, 어떻게 진행된 구술인가
3. 자료인가 책임가 - 어떻게 읽히길 기대하는가
4. 역사는 어디에? - 역사학과의 협업은 불가능 할까?

오늘 앞의 발표를 들으면서 의문점들이 많이 해소되었지만, 앞에 국립해양박물관이 발간한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 1, 2, 3을 봤을 때, 아직 부족함이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충하고 검토해서 앞으로 작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좀 더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작업을 주로 했던 분들은 인류학자, 민속학자이기 때문에 역사학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역사성’, 특히 ‘시대성 부여’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빠져있어서 그 부분도 앞으로 더 고려해서 해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첫 번째는 옛날에 우리가 구술사를 처음 시작할 때처럼 빠르게 진행을 해야 한다는 시급성의 차원에서 벗어나, 이제는 사업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잡는 것이 중요하며, 어떻게 무엇을 위해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활용’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책자를 내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구술 작업을 했지만,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어떻게 기준을 잡을 것인가?’, ‘또 기준을 정리하는 사람들의 철학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구술하는 대상이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박물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의 구술자들과 관련해서 어떤 기준이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해보신 게 있다면 추가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 허영란:

원론적인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대체로 다 그것을 가지고 출발한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해양이나 어업 등에 대한 역사가 다른 영역에 비해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60, 70년대 해방 이후에 훨씬 더 근본적으로 조선시대 어업과 일제 강점기 어업이 많이 변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은 기준에 어떻게 논의되어 왔는가를 기준으로 방법론이나 방향이나 그것의 활용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되, 해양이라고 하는 것, 어업, 수산, 관광과 관련된, 요즘 어촌에서도 그게 논쟁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어업이나 관광이나 이런 게 논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양에서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지점들에 대한 고민이 아주 특화되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엔 그것과 관련해서 한국의 어업이라고 하는 것은 ‘단절성’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분야별로 연속성이나 단절성이나 아니면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을 하나하나 나누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백승옥:

지금 앞에 화면에 떠 있는 것이 영화 「자산어보」의 ‘정약전’과 ‘창대’라는 인물 같은데, 우리도 ‘창대’라는 인물을 발굴해보자, 또는 ‘앞으로 창대를 남기면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앞으로의 창대를 만들어보자’ 이런 차원에서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허영란 선생님께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것이 있는데, 창대의 어느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기록하고 구술하고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쉽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허영란:

최근에 구술과 관련해서 역사학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역사학에서 구술사가 별로 주목받지 못하거나 의구심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라면, 개인이 기억하는 것이 객관성이 있느냐, 믿을 수가 있느냐에 대해 질문을 하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사실이 무엇인지를 최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한 다음 ‘이게 사실이니까’, ‘이걸 역사에 남겨야 해’ 그것이 민중의 구술이라도 이런 식의 접근을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지금 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한국에서 어업이라 하는 것에 대한, 아까 외국에서의 어업 얘기를 많이 했는데, 벌써 젊은 사람들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때문에 그런 일제시기 또는 더 이상 자신은 일제시기가 아니지만 부모나 자신의 마을 공동체 사람들이 일제시기 이래에 어업을 했던 경험, 그 이후에 계속해서 ‘어촌에 살고 있거나 다른 삶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기억을 가지고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 왔는가?’에 대한 영역이 같이 다 연구가 되어야 합니다. ‘당시는 어업을 어떻게 했어요?’가 아니라, 어업을 했고 그런 삶의 경험을 가지고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현대에 올 때까지 어떤 방식의 삶을 경험하면서 살아왔는가를 기억하는 게 어업 쪽의 자료로써 중요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구술사는 기본적으로 엘리트 구술이 한국 구술의 중심인 것에 대해서 비판을 받지만, 돈을 공공기관에서 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엘리트 구술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계획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서도 굳이 구술을 하지 않아도 수많은 언론기사나 신문과 보고서에 본인들의 얘기가 들어가 있는 엘리트 구술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민 구술에서 어업구술이든 다른 어떤 구술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남기는 것이 구술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창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구술사의 실천적인 가치였다는 것을 생각해야하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백승옥:

구술사라는 것은, 저는 전공이 아니지만, 발표를 들어보니 ‘기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 구술을 정리하고, 듣고, 질문 하는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 허영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술사에서는 ‘진정성’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무엇을 사실이라 믿고 말하는가?’, ‘그 구술자가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넓은 기준이고 역사학자는 기준을 좁게 잡습니다. ‘무엇이 사실이냐?’를 기준이라고 보니까 역사학자들은 구술에 대해서 전통적·소극적으로 이용합니다. 인류학·민속학·문화학 또는 일부 저 같은 역사학자들은 그가 진정하다고 믿는 구술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영란 선생님의 말씀은 이 정도로만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김문기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문기 선생님께서는 특히 이 아카이빙의 중요성, 또 앞의 우리가 연구성과를 냈던 부분에 대한 평가와 아카이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 김문기:

부경대학교 사학과와 김문기라고 합니다. 앞의 책 3권을 보았는데, 대부분이 수산업과 관련이 깊었습니다. 저는 물고기를 둘러싼 역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들 책들은 문헌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제 연구의 약점을 보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마침 앞에 발표하신 허영란 선생님과 저는 역사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허영란 선생님의 발표가 주로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언급이었다면, 저는 실제 내용적인 면에서 느꼈던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발표 제목은 「바다의 일상과 바다의 열전-‘오션 아카이브’의 느리지만 큰 발자국」이라고 했습니다. 바다 사람의 삶이라는 ‘일상’은 모두 공감하실 터입니다. 열전<sup>列傳</sup>이라고 한 것은 주지하다시피 사마천의 사기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이번 조사가 바다 사람들 개개인의 삶을 잘 정리했다는 점에서 ‘열전’이라는 단어만큼 이번 성과를 잘 표현하는 말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느리지만’이라고 한 것은 이런 작업이 진작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을 담았습니다. 원래 부제에는 ‘발자국’이 아닌 ‘발걸음’이었습니다. 이번 작업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하는 아쉬움 때문에 ‘발자국’으로 고쳤습니다. 앞으로 이 작업이 계속되어 앞으로도 계속될 ‘발걸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역사학자이다 보니 역사의 시간을 길게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보는 데도 그전에는 어땠는지, 왜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졌는지, 왜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는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입니다. 말 자체보다 그 언어의 시간적 맥락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영화 자산어보를 보셨을 것입니다. 장구한 우리 문명에서 창대라는 바닷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또 “그 목소리를 복원한 역사가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때면, 이번 작업이 가지는 큰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제가 대학에서 연구하고 있는 주제의 하나는,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의 기후변동의 역사입니다. 당시는 ‘소빙기’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한랭한 날씨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물고기의 이동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앞서 노용석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 변화와는 반대의 현상을 역사적으로 증언하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저는 동아시아 차원에서 어류 지식과 해양어업이 어떻게 근대적으로 전환되었으며, 오늘날에 어떤 유산을 남겼는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3권의 보고서를 보면서, 그 비워진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근대 이후 100년 동안 우리 수산업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싶었던 차에 3권의 보고서를 통해 미리 이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어서 앞으로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이번 사업의 의의 및 향후 과제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 '바다의 열전 : 오션 아카이브의 첫 걸음'은 이번 사업의 의의입니다. 두 번째는 '유사유서(有史有書)'입니다. 원래는 유사무서가 되어야 할 것인데, 이 작업을 통해 '창대의 목소리'를 찾아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향후 과제입니다. 향후 과제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지만, 그래도 떠오르는 몇 생각을 중심으로 이야기 할까 합니다. 첫 번째 논점은 앞서 충분히 논의가 된 것 같아서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고, 두 번째 논점을 중심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논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션 아카이브의 첫 걸음'이라 하는 말이 이번 사업의 총평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저는 그 의의를 다시 세 가지로 정도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유사무서'였던 바다 주인공의 목소리 복원입니다. 이 부분은 충분한 공감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광범위한 지역과 다양한 직업의 인물 발굴 조사입니다. 처음에는 국립해양박물관이 부산에 위치하고 있어, 경남이나 경북에 치우쳐 있지 않을까 우려했습니다. 실제 작업은 백령도로부터 제주도, 강원도 고성에 이르기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지역과 주제가 다양해지면서 집중적인 분석이 부족하다는 약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광점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해양산업과 해양문화의 현황 및 과제 반영입니다. 제가 주목해서 봤던 부분은 해양산업의 현황이었습니다. 전통기술의 단절과 해양인구의 감소는 현재 바닷사람들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행히 노용석 선생님께서 잘 설명해주셔서 그 부분에는 충분한 공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관심이 갔던 부분은 남획과 해양오염, 지구온난화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였습니다. 남획 부분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니, 입장에 따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흥미로웠습니다. 서해안 연안어업의 현실을 지적하는 인터뷰에서는 조기어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오는 어선을 막아야 한다고 했는데, 동해 명태에 대한 인터뷰에서는 명태를 못 잡을 때 남해를 돌아 황해에 들어가서 조기를 잡는다고 했습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한 각기 다른 입장은 그 자체로 흥미롭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충돌을 어떻게 정리하고 평가해야 할런지는 앞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전망은 공존과 공생이라는 메시지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가 핵심일 것입니다.

역사학자로서 저는 '기록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고민합니다. 곧 기록을 남기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입니다. 이런 질문으로 바탕으로 「일상의 기억과 역사의 사실」이

라는 주제를 설정했습니다. 먼저 저의 개인적인 경험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의 고향은 서부 경남의 하동입니다. 어렸을 때 멸치가 식단에 많이 올라왔지만, 멸치를 ‘멸치’라고 불렀던 기억은 별로 없었습니다. 시골에서는 멸치를 매번 ‘염포’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수에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염포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염포탕이면 멸치로 만든 탕이겠거니 생각했었는데, 낙지로 만들었더군요. 그래서 혼란에 빠진 적이 있었고, 아직까지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멸치잡이 공동체를 이루다’라는 인터뷰에서 염포란 멸치를 찌서 말리는 것이라는 부분을 보면서, 유년시절 서부경남에서 멸치를 염포로 불렀던 연유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하나의 기록으로 유용하게 전송될 것임을 확인시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유용성을 볼 수 있었던 또 다른 사례로는 신안염전에 대한 인터뷰를 들 수 있을 듯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황해도에 염전이 만들어졌는데, 그곳 기술자들이 한국전쟁 때 피난민으로 내려와서 비금도에 정착하여 지금의 염전이 조성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역사적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이것 또한 “역사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한국 염전사의 연구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평가됩니다.

‘원양어업 선장에서 홍어전도사로’라는 인터뷰도 흥미로웠습니다. 해산물에 대한 국가별 취향과 선호도가 달라서, 국제적인 유통망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즐기는 수산물은 당연히 우리 연안에서 잡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생선인 조기는 아프리카의 세네갈에서, 홍어는 남아메리카의 바다에서, 명태는 베링해에서 잡은 것이 대부분 수입됩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인이 선호하던 물고기라는 먹거리의 국제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특히 수산업의 역사와 현재의 현황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터뷰에 등장하는 기억들이 실제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줄리언 반스의 소설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에서는 “역사란 불완전한 기억과 불충분한 문서가 만나는 지점에서 빚어진 확신”이라고 정의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기억의 불완전성과 그것의 왜곡에 대해서 역사학자는 신중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보고서에 등장하는 몇몇 인터뷰에서 실제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인터뷰의 기억이 정말로 ‘역사적 사실’일까? 혹시 그 기억이 왜곡된 것은 아닐까?

예를 들어, ‘200년 된 가덕도 송어잡이의 전통을 잇다’라는 인터뷰를 보면, “가덕도에서 다른 물고기보다 송어를 많이 잡았다.”는 부분과 “전통이 150~200년이 되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110여 년 전에 간행된 『한국수산지(韓國水産志)』에는 가덕도의 물고기 가운데 송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송어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당시 일본인들이 조사했을 때는 송어가 중요한 어종이 아니었음은 분명합니다. 인터뷰에는 송어들이라는 “150~200년 된 가덕도

만의 전통방식"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로장이 산 위 높은 곳 망대에서 송어 떼가 지나는 것을 지켜보라고 알려주면 물속에 드리웠던 그물을 들어 올리는 어법입니다. 사실 이런 장면은 일본의 전통어법에서도 보입니다. 당장 의문이 들었습니다. 가덕도의 송어들이 어법은 도대체 어디에서 유래한 것일까 하는 점입니다. 근대 부산과 가덕도의 역사를 아시는 분이라면, 가사이 겐타로(香椎源太郎)라는 사람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일본인은 가덕도와 인근의 대구(大口)와 청어(靑魚)를 독점하면서 조선 수산의 제왕이 되었습니다. 근대까지 가덕도에서 송어의 중요성은 언급한 기록은 찾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덕도에 150~200년 전의 독특한 송어들이 어법이 있었다는 말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조사했습니다. 송어들이 어법은 한편으로 '육소장망(六艘張網)어업'이라고도 합니다. '육소장망'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전통어법에 등장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배의 개수에 따라 '사소장망', '육소장망', '팔소장망' 등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소장망'이라는 어법은 가덕도의 전통이 아니라 일본의 전통어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정하면,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이 어법이 가덕도 주변에서 행해졌고, 가덕도 어민들이 송어잡이에 이 어법을 채용하게 되었던 것은 아닐까? 해방 이후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 어법이 가덕도 송어잡이의 전통어법으로 기억되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물론 저는 근대이후 일본어민들에 의해 들어와 어느새 정착한 일본식 어법 또한 전통어법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역사성을 무시하고, 이것을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순수한 전통어법이라고 여기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구룡포 과메기를 들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구룡포는 과메기의 본고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과메기는 본래 청어로 만들었는데 1970년대 이후 청어가 잡히지 않으면서, 꽂치로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청어는 저의 중요한 연구주제였기 때문에, 과메기에 대해서도 깊은 의문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가족여행으로 영덕과 구룡포의 과메기 제조 현장을 답사하기도 했습니다. 구룡포 과메기 문화관에는 과메기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과메기에는 통째로 말리는 '통 과메기'와 배를 갈라 말리는 '배지기 과메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과메기라고 하면, 후자의 '배지기 과메기'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과연 조선시대 우리조상들이 애용했던 과메기가 배를 갈라서 말린 '배지기 과메기'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선시대 기록에서 이른바 '관목어(貫目魚)'는 통째로 말린 것이었고, 배를 갈라 말렸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에도시대 일본입니다. 일본에는 홋카이도에 청어가 많이 낚았는데, 그 가공 기술 가운데 배를 갈라 말리는 이른바 '미가키(身欠)'라는 것이 있습니다. 놀라게도 1924년도에 일본에서 온 야스무라 료타로(安村良太郎)와 이시하라 시게노부(市原重信)가 강구항(江口港)과 구룡포(九龍浦)에서 처음으로 이 미가키 공장을 만듭니다.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김용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유력 정치인의 부친이기면서, 친일파 논쟁의 한가운데 있기도 한 바로 그 분도 포항에서

미가키 사업을 시작했을 때 초기 사업자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터뷰의 내용은 바닷사람들의 역사와 문화를 재현하는 데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분들의 기억이 의도치 않게 오염되거나 왜곡되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청산도의 초분<sup>草墳</sup>에 대한 인터뷰에서도 '만들어진 전통'에 대한 오해들이 나옵니다. 영화 자산어보에도 정약전이 송정사의<sup>松政私議</sup>를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약전의 말에 따르면 19세기 초반에 조선의 산림이 황폐화되어서 도서지역은 이미 초분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삼남지역부터 경기도 남쪽지역은 대부분 초분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청일전쟁을 앞두고 조선을 염탐했던 혼마 규스케<sup>本間久介</sup>는 일본인은 당시 광범위하게 행해졌던 초분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분은 본래 우리의 전통이 아니라 산림황폐화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보고서의 인터뷰에서는 물론이고 민속학 연구에서도 이러한 생태적 배경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미있는 장면이 『알쓸신잡』이라는 TV프로그램에도 보입니다. 개심사<sup>開心寺</sup>에 있는 굽은 나무기둥을 보고 “너무 아름답다.”, “우리의 미학이다.”라는 감탄을 쏟아냅니다. 대단한 미학이 있는 듯이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휘어진 나무기둥을 사용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쓸 만한 나무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가 대단한 미학적인 안목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조선후기가 되면 재목으로 쓸 만한 굽은 나무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이 대단히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비금도<sup>飛禽島</sup>의 염전이야기 마찬가지로입니다. 자산어보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최근 새로운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조선후기에 이미 비금도에 염장이 아주 넓게 발전하여 신안에 있는 여러 섬들이 그것을 요청했다는 기록입니다. 물론 황해도에서 염전기술자들이 유입되면서 비금도의 염전이 더욱 발전했겠지만, 그것이 비금도 염전의 시작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점에서 앞으로 문화인류학, 역사학이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인터뷰의 내용을 분석, 검증함으로써 그 의미와 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만들어진 전통'도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단절된 기억, 왜곡된 사실, 만들어진 전통이라는 위험성에 대해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번 보고서를 살펴 보면서, 「만들어진 '전통', 역사의 검증」이라고 제목 붙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구축된 아카이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에 부족함이 많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에 위치한 국립해양박물관의 정체성과 위상을 확립하는 일인 듯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중앙과 지방의 격차가 점차로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2024년 인천에 국립해양박물관이 들어서게 되었을 때, 서울에 인접해 있다는 인적 인프라와 문화적 기반에서 부산은 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산 국립해양박물관에서 깊은 고민들을 통해서 새로운 아젠다를 선도하고, 주변 지역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몇 년 전부터 포항에서는 환동해라는 아젠다를 만들어내기 위해 여러 차례 강의를 요청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이라는 도시는 이런 인문학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박물관에 계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부산이 문화적으로 얼마나 척박한지. 비록 인천이 황해를 통해 중국과 연결되어 있지만, 부산은 환동해와 황해를 아우르는 더욱 확장된 국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박물관이 지역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어떻게 태평양이라는 국제성을 지닐 수 있는가가 앞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아마 박물관에서 더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보고서의 활용과 관련하여 건의하고 싶은 것은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와 관련된 전시회와 바다의 열전에 대한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후속 작업이 어떻게 더 진행될 지 알 수 없지만, 디지털 공간을 만들어서 박물관 홈페이지에 ‘디지털 박물관’의 형태로 아카이브를 계속 해 나가는 것은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앞서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렇게 수집된 사진들이 너무 아깝습니다. 이 사진들이 지금은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겠지만, 몇 십 년이 지나면 완전히 달라진 디지털 시대에 볼 수 없는 것들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구입해서 스캔하고 되돌려주는 방식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이들 사진이라도 아카이브 작업을 계속해서 한 개인이라는 측면에서 남겼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제전마을 박물관’이었습니다. 어촌마을이 스스로 정체성을 찾으면서 마을의 박물관을 만드는 과정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마을이라는 공동체가 자신들의 기억을 간직하려는 시도입니다. 어촌마을에서 자신들의 기억을 재생할 때 박물관의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기억의 문제를 다루었지만, 어촌마을이라고 할지라도 몇 세대의 기억 이전에 대해서는 자신들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보고서에서 ‘장항’이 소개되었습니다. 장항은 일본이 만든 항구도시인데, 그 모습들은 일제강점기에 출간된 『일본풍속지리대계』(本風俗地理大系) 등과 같은 책에서 다양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작업을 하게 되었을 때, 역사학과 문화인류학의 연계가 절실합니다. 특히 부산이라는 지역에 있는 국립해양박물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백승옥:

에 감사합니다. 김문기 교수님께서도 첫 번째로, 저희가 4개년 동안 진행하였던 성과들을 보고 느낀점과 앞으로의 과제를 말씀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부산말로 ‘조금 더 단디해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2023년 건립예정인 인천국립해양박물관과 관련하여 부산에 있는 국립해양박물관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잠깐 정리해주셨습니다. 해양수산부와 국립해양박

물관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인천국립해양박물관과 국립해양박물관은 경쟁관계가 아니라 서로 win-win 관계입니다. 해양수산부 및 인천·부산국립해양박물관은 친해양적인 생각을 제고하고, 해양문화를 널리 보급한다는 공동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도와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해나가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으로 국제성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해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제화라는 것은 국제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것을 국제적·세계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박물관에서도 이런 점을 지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브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해주셨는데, 아카이브의 중요성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중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본 학술대회를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발표는 첫 번째로 이은정 선생님께서 해양분야 구술채록과 관련하여 얘기해주셨고, 두번째로 노용석 선생님이 한국어촌의 문화변동과 어민의 적응전략에 대해 발표해주셨습니다. 특히, 노용석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는 김문기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역에 있는 어촌박물관을 앞으로 계속 살려나갈 수 있는 지원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장현정 선생님의 발표가 있었고, 마지막 주제발표로는 채영희 선생님께서 휴먼스토리 4차의 조사성과를 바탕으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채영희 선생님께서는 저희가 갑질을 좀 한 것인데, 지금 한창 작업을 하고 계시는 중에 발표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뭐 요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다 세우셨고 재료준비도 다 하셨고 담을 그릇도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만들어서 담기만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조사가 다 되지 않았는데 발표를 부탁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향점 논의 토론에 참여해주신 허영란 선생님과 김문기 선생님,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성과에 대해 평가해주시고 방향성도 제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직접 예산 등의 작업에 대해 컨트롤하고 계신 송지은 선생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의 화면에 장현정 선생님의 발표 ppt의 마지막 장이 띄워져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담당자에게 띄워달라고 한 이유는 마무리를 이 그림들로 하고 싶어서입니다. 첫 번째는 에두아르 마네의 작품인데 ‘구술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이 그림이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장현정 선생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거울에 비친 모습들을 구술하고 찾아내고 아카이빙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사실 이 구술이라는 것은 기준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초점을 둘 것인지에 대한 철학과 기준이 필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였는데, 저는 두 번째 그림에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단원 김홍도의 「해담노화도蟹食蘆花圖」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게 두 마리가 갈대 ‘노蘆’자의 ‘화花’. 즉, 갈대의 꽃을 먹고자 탐하는 것을 그린 그림입니다. 아까 장현정 대표님께서도 말씀 해주셨는데 과



〈그림 1〉 Édouard Manet, *A Bar at the Folies-Bergère*, 1882  
(이미지 출처: The Courtauld Gallery)



〈그림 2〉 김홍도, 〈蟹食蘆花圖〉  
(이미지 출처: 네이버 미술백과)

거에 장원급제를 바라는, 염원하는 길상(吉祥)이 들어가 있는 그림입니다. 게는 갑옷을 입어서 ‘갑(甲)’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등하는 것이죠. 두 마리는 소과(小科), 대과(大科)를 같이 급제하는 것입니다. 갈대는 과거를 급제하고 나면 임금님이 불러서 음식을 내줍니다. 그것을 전로(傳臚)라고 하는데, ‘로臚’가 중국 발음의 ‘갈대 노蘆’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전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원급제를 염원하는 그런 그림인데, 그 위에 ‘해룡왕처야횡행(海龍王處也橫行)’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바다는 용왕이 있는 곳인데도 횡행한다. 즉, 게가 옆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걷고 싶은 대로 걷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지조<sup>志操</sup>를 말합니다. 박물관의 바다 사람들의 구술 작업도 기준과 철학이 필요한데, 이것은 정말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기준을 잡아서 작업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10년 이상 해나가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준이 저희 나름대로 필요하고 제대로 잡아야한다고 봅니다. 왕이 있더라도 어디에도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그림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오늘 학술대회를 마칠까 합니다.

오늘 발표해주시고, 토론해주시고, 이 학술대회를 끝까지 지켜봐주신 현장에 계신 여러 선생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유튜브 생중계로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1년 국립해양박물관 학술대회「국립해양박물관 4개년 바다 사람 - 조사성과와 의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 III

---

바다사람과 함께한 시간들

# 바다 사람과 함께한 시간들

구술 자료를 다른 자료와 구별 짓는 가장 큰 특징은 2가지가 있다. 우선, 구술 자료는 문어가 아니라 구술이라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술은 구술자의 언어와 언어행위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sup>1</sup> 구술 자료의 또 다른 특징은 연구자와 구술자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료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이 과정은 명백하게 자극과 반응이라는 기계적인 작동이 아니라 연구자와 구술자의 상호관계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sup>2</sup> 따라서 구술채록은 연구자와 구술자의 공동 작업이며, 연구자와 구술자간의 라포(rapport)<sup>3</sup> 형성여부와 구술자가 연구자에게 들려준 이야기의 깊이와 진정성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휴먼스토리〉 연구진들은 4년 동안 사업을 이어오며 60여 명의 ‘바다 사람들’을 만났다. 이 과정에서 연구진들은 인터뷰를 구술자의 자택 또는 생업공간 인근에서 진행하는 등 구술자들이 자신의 생애를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연구진들은 자신을 연구의 도구로 삼아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이들과 관계를 맺으며 기록되지 않은 채 사라져가는 그들의 생애사를 건져 올렸다.

여기에 그 순간들을 소개한다.

## 일러두기

1. 본 장에 수록된 사진들은 해양수산부 주관 〈휴먼스토리〉 사업의 구술채록 장면들을 촬영한 것이며 사진의 저작권은 해양수산부에 있다.
2. 구술자들의 존칭은 생략하였다.
3. 캡션에 표기된 날짜는 인터뷰 일자이다.

- 1 윤택림, 『새로운 역사 쓰기를 위한 구술사 연구방법론』, 아르케, 2004.
- 2 Fontana and Frey, “The Interview: From Structured Questions to Negotiated Text”.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2000, p.695 참고
- 3 의사소통에서 상대방과 형성되는 친밀감 혹은 신뢰관계



1



2



3

1. 자료를 보며 등대원으로 지내온 36년간의 이야기를 연구진에게 들려주는 강용정 (2018.12.08.)
2. 연구자에게 깡깡이 도구에 대해 설명하는 강애순 (2019.02.22.)
3. 연구자에게 외항선 기관사의 삶에 대해 말하는 강용기 (2019.01.15.)



1. 통영 바다목장에서 연구자에게 양식에 대해 설명하는 박용주 (2019.01.05.)
2. 연구자에게 남극에서의 경험을 들려주는 이영재 (2019.02.22.)
3. 연구자에게 제 2 지남호와 원양어업 개척에 관해 이야기 해주는 이제호 (2019.01.11.)



1. 연구자에게 한국해양대와 원양어업에 대한 사진자료를 보여주는 최정운 (2018.12.21.)
2. 연구자에게 30여 년의 월급명세서를 보여주는 이영기 (2019.04.07.)
3. 평택항 조성과 역사에 대해 연구자에게 설명하는 김대식 (2019.04.26.)



1. 선대부터 약 60년간 감포를 지켜온 선구점안에서 연구자와 박철형 (2018.12.23.)
2. 자료를 보며 동중국해 어장 개척에 대해 연구자에게 설명하는 임성식 (2019.02.19.)
3. 울진 후포 앞에서 연구자와 김해원 (2019.02.28.)





1



2



3

1. 어리굴젓 사업에 뛰어든 이야기를 연구자에게 전해주는 유명근 (2019.04.13.)
2. 연구자에게 죽방렴에 대해 설명하는 김민식 부부 (2019.01.30.)
3. 평생토록 운영해온 갯강이 마을의 식당과 하숙집에서 인터뷰하는 한기선과 연구자 (2019.04.06.)



1. 연구자에게 과거 60여 년간의 멸치조업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승식 (2019.01.24.)
2. 자신이 40년 이상 물질을 한 동삼동 해녀촌에서 연구자에게 그간의 삶을 말하는 이금숙 (2019.02.12.)
3. 과메기에 관해 대화를 나누며 웃음짓는 장현수와 연구자 (2019.02.13.)
4. 수하식 굴 양식에 대해서 직접 그림을 그리며 연구자에게 설명하는 지홍태 (2019.03.31.)
5. 연구자에게 수산물 중매업이라는 직업의 의미와 자긍심에 대해 말하는 이종석 (2019.03.22.)
6. 연구자에게 현재의 최신식 건조장을 설명하는 강철 (2019.01.04.)







1. 연구자에게 전복치패 배양에 대해 설명하는 한승남 (2019.08.31.)

2. 정리된 그물 앞에서 연구자에게 서해안 연안어업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는 홍운기 (2019.06.30.)

3. 연구진에게 어업경영인으로 성공을 안겨준 바다에 대해 이야기하는 김우경 (2019.10.12.)

4. 새만금 간척지를 배경으로 인터뷰하는 '나홀로 배'의 선주 강성기와 연구자 (2019.08.24.)





1. 오징어배의 선원부터 자신의 배를 구입하기까지의 이야기를 연구자에게 들려주는 장재수 (2019.08.17.)
2. 연구자에게 흥어 홍보를 위해 번역한 『자산어보』의 일부를 보여주는 양치권 (2019.01.05.)
3. 자신들의 생활과 역사를 기록한 제전마을 박물관에서 연구자에게 어구에 대해 설명하는 김찬식 (2019.08.07.)



1. 연구진에게 북에서의 생활과 머구리기술에 대해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박명호 (2020.07.19.)
2. 직접 그린 테우 설계도면들을 연구진에게 소개하는 강창연 (2020.08.20.)
3. 망대 안에서 어장을 바라보며 '송어들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연구진과 김관일 (2020.08.15.)



1. 사시사철 푸른 청산도를 배경으로 웃음짓는 연구진과 최병천 (2020.07.05.)
2. 직접만든 황포돛배 위에서 연구진과 인터뷰하는 김창명과 그의 수제자 조목근 (2020.07.31.)
3. 가자미 식혜에 담긴 실항민들의 스토리와 자료를 연구진에게 많이 내어준 정성수·신애자 부부 (2020.07.18.)



1. 어간장 뿐 아니라 남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연구진에게 전해준 이강윤·이화봉 부부 (2020.06.26.)
2. 원양어선으로 세계를 누비며 40여년 동안 모았던 비행기표와 사진들을 연구진에게 설명하는 하이호 (2021.09.24.)
3. 연구진에게 원양어선 승선경험을 들려주는 김형돌 (2021.04.06.)





1. 연구진에게 어망설계에 대해 설명하는 김규수 (2021.08.13.)
2. 연구진에게 한국 원양어업에 격동기를 담담하게 이야기 하는 이종순 (2021.04.06.)
3.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살아온 날들을 쭉 돌아볼 수 있었다고 연구진에게 감사를 인사를 전했다 정경용 (2020.06.27.)



2



3

1. 바다에서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출판한 작품들에 대해 연구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하동현 (2021.09.11.)
2. 직접 배를 이끌고 연구진들에게 백령도의 점박이물범들을 보여주었던 김진수
3. 신안 천일염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연구진에게 설명하는 최신일 (2020.07.04.)
4. 연구자에게 '제2 지남호' 사고와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문인리 (2021.10.23.)
5. 사진을 보며 연구진에게 원양어선 승선시절부터 수산물 가공업에 종사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여제구 (2021.08.05.)





연구자에게 과거에 자신이 사용했던 천문항해를 위한 천측 기구 사용법을 알려주는 정호모 (2021.05.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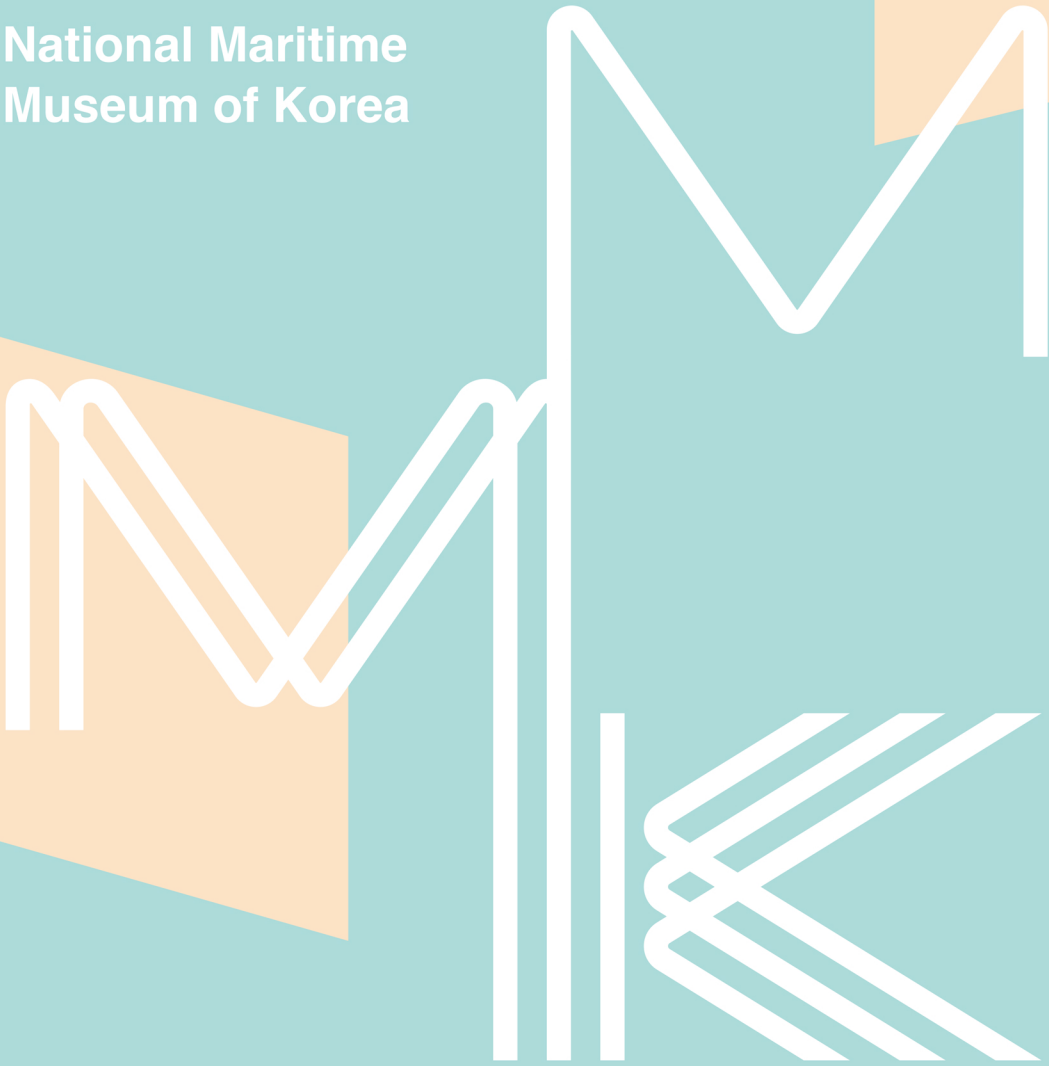
"바닷가에서 사는 사람은,  
바다 없는 삶을 조금도 상상할 수 없다."

Those who live by the sea can hardly  
form a single thought  
of which the sea would not be part

- 헤르만 브로흐 (Hermann Broch)



National Maritime  
Museum of Korea



# Life history of the sea people

—  
Significance and Results of Investigation



[www.mmk.or.kr](http://www.mmk.or.kr) 비매품  
ISBN 979-11-88805-42-6 93910